

문화비전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 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문화원 임직원 일동

CONTENTS



문화비전선언문	001
웅진 향토유적 · 명승 · 천연기념	004
웅진군민의 노래	006
발간사 태동철(문화원장)	007
축사 조복순(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008
초대글 신영희(웅진군의회 의원),	010
김사연(인천문인협회장/수필가)	012
문화원 총회 이모저모	015
웅진 섬 민요집 발간(공모사업)	017
웅진 축제	023
웅진바다 해님이 축제, 제야 행사	024
장봉도 벚꽃축제	026
'미스트롯' 백령도 평화콘서트	027
서포리 축제	028
웅진 군민의 날	029

I. 문예마당

시	
"박꽃이 피었다고" - 태동철	034
안압지(雁鴨池) 야경 - 김수원	035
사랑은 지금 - 김근호	036
웅진사랑 - 장정돈	037
모래 산언덕 - 박윤직	038
겨울 문턱에서 - 최원선	039
가을날 - 김옥자	040
해당화 - 송영옥	041
느낌 - 이암전	042
아름다운 영흥도 - 이돈혜	043
기억속의 나 - 유희정	044
Beautiful tomorrow - 김희승	045
그 숲에서 - 김연아	046

수필	
잃어버린 추억의 교정 - 조종식	047
주사를 맞는 그 고통 - 박인화	050
누명 쓴 새 이야기 - 강도영	052
그때가 오늘의 과거인 것을 몰랐다 - 김나혜	054
시금치 한 단에 대한 추억 - 이경림	056
백령도에 그 따오기는 아직 노래할까 - 이서연	058

독후감	
자유인, 그리스인 조르바를 만나다 - 김수원	061

자유 기고문	
라틴어 속에 담겨진 행복 찾기 - 태동철	069
가정환경의 위기, 예견되었거나 자초한 문제 - 김흥규	073
친구가 좋은 점 - 정영민	083

웅진사람들의 이야기	
Mr.s 장봉입니다. - 이순덕	085
영흥도 버더(드)니 마을 이야기 - 신명연	086
소청도 - 이은철	088
웅진군 산악연맹 - 김현기	090
제2회 웅진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진대회 "대상" - 박용만	092

웅진발전을 위한 제안	
웅진 섬자랑 맛자랑 웅진7미(味)	097
서해 최북단에 숨겨진 자연유산의 보고 백령도 - 김기룡	102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 섬 역사문화 자원의	
문화관광 활용 방안 - 장봉도의 인어 전설 - 차광운	110
섬 농업의 '참'가치 - 이병현	115

그림	
십리포 해변, 영흥대교가 보이는 풍경 - 권순범	117
희망을 품은 영흥대교 - 김선주	118
목섬 풍경 - 유명조	118
아름다운 영흥도 - 서미경	118

서각	
박용만(선,만사여의), 손선주(담산림), 최인재(명전부석,	
윤동주'시'), 이성범(소목,신심,안선,서해3)	119

사진	
포구의 아침 등 6점 - 한영수	122

화훼조형	
아름다운 십자가 등 2점 - 서옥선	123

웅진의 아름다운 풍경	124
--------------------------	-----

II. 최첨단화되기까지의 섬 교통 이야기

(1부) 초폐속 이전의 섬 교통(1990년말) - 박용운	134
---------------------------------------	-----

III. 농촌지도 성공담

최북단 백령도의 딸기 - 김을남	144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 이충환	148
해당화는 강한 향기를 내뿜어 곤충들을 불러 들인다 - 오현석	153

IV. 발굴·선양해야 할 향토사료

북도면편 장봉궁(長峯宮)과 장봉신궁(長峯新宮)	158
연평면편 연평도 조기와 임경업(林慶業) 사당(祠堂)	162
백령면편 백령진 토성(白翎鎭 土城)	169
대청면편 대청도(大靑島)와 원순제(元順帝)	172
덕적면편 덕적도의 3.1 독립만세 운동	180
자월면편 당고사(當告祀)와 해산막(解産幕)	186
영흥면편 삼별초(三別抄)의 항몽기지(抗蒙基地)였던 영흥도	188

V. 문화유적탐방

강화도 문화유적탐방을 마치고 부제 : 강화도의 재발견 - 곽인화	194
--	-----

VI. 옹진의 따뜻한 복지 행정 현장 탐방

무료급식 및 밑반찬 전달	200
김장김치 나누는 이웃 사랑	201
저소득 장애인 가구 온수매트, 쌀 기부	202
위기 발굴 가구 주변 환경개선 서비스	203
스마트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완료	203
찾아가는 이동 목욕 차량운영	204
의료봉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205
노인 무료 안(眼) 검진	206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	207
'사랑 더하기' 드림 스타트 여름 가족캠프	208
새싹 수산 꿈나무 해외견학	209
내 고장 옹진 역사·문화탐방	210
효 '孝'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	211
서해 최전방 우도 부대 국군장병 위문	212

VII. 옹진 섬마을 학교자랑

꿈꾸는 아이들이 함께 하는 장봉분교 - 신상훈(교사)	214
배움이 즐겁고 큰 꿈을 키우는 백령초등학교에서 크는 아이들 - 차현숙(교사)	216
학교 가는 길 - 노광록(교사)	217
내게는 감사할 것 밖에 없는 - 임병미(교사)	219
멀고도 가까운 섬, 백령도 - 이주희(교사)	221
별 보러 가는 길 - 이은영(교사)	224
학교자랑 - 박연서(영흥교)	225
학교자랑 - 정승희(영흥교)	227
내 마음의 고향 영흥도 - 윤여원(영흥교)	229
장봉분교 자랑 - 송지인(장봉분교장)	230

자랑스러운 학교, 대청초등학교- 최건우(대청초)	232
즐거운 학교 - 장민준(대청초)	233
우리 학교래요 - 이윤서(백령초)	234
백령초등학교의 자랑거리 - 이윤지(백령초)	235
어떤 섬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대이작도 - 김소현(이작분교장)	236
볼수록 매력 있는 소이작도 - 김현지(이작분교장)	237

VIII. 문화원 주요사업

1. 문화원 자체 역점사업	240
옹진문화지 발간	240
문화유적탐방	241
홈페이지 신규 제작	243
2. 문화예술진흥사업	244
군민역량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강좌	244
찾아가는 문화 활동	245
찾아가는 예절교실 운영	249
3.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255
심청 효행학생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255
생활문화센터 및 여가공간을 이용한 문화 활성화	256
문화 활동가 양성사업	258
■ 도서지역 양서보급	259
■ 위탁사업 Again 서포리! 응답하라 덕적도! 축제 사업	260

IX. 제20회 심청 효행 학생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



2019 심청 효행 학생 글짓기

내가 1순위로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께 - 이예진	262
나의 어머니 - 노수빈	264
안녕! 우리 딸 - 김아진	266
어머니의 삶이란 - 김희준	269
공경하세후 - 노금구	271
허삼관매혈기 - 김현서	273



2019 심청 효행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황류안(북포초), 서하영(북포초), 신동민(영흥초), 이윤서(백령초) 양연수(영흥중), 안은희(백령중), 김미령(영흥중), 김민주(영흥중) 유시아(연평고), 강민지(영흥고), 김예진(영흥고), 이미리(연평고)	275
--	-----

X. 임원 및 회원명단

웅진 향토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연평면 충민사 - 향토유적 제1호



백령도 패총 - 향토유적 제2호



백령도 두무진 - 명승 제8호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66호



신도 노랑부리백로, 갯이갈매기 번식지
- 천연기념물 제360호

웅진 향토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백령도 사곶해변 - 천연기념물 제391호



백령도 콩돌해안 - 천연기념물 제392호



백령도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 천연기념물 제393호



남포리 습곡구조 - 천연기념물 제507호



소청도 분바위 - 천연기념물 제508호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 천연기념물 제521호



웅진군민의 노래

윤 석 중 작사
손 대 업 작곡

행진 빠르기로



1. 서 해 에 널 려 있 는 수 많 은 섬 들
2. 이 옷 섬 이 옷 사 촌 정 다 운 마 을



파 도 와 싸 우 면 서 나 라 지 키 네
산 과 물 다 스 려 서 살 찌 는 고 장



푸 른 섬 을 거 - 느 린 웅 진 군 민 아
황 금 어 장 차 - 지 한 웅 진 군 민 아



우 리 는 빛 이 되 자 등 대 가 되 자
힘 모 아 마 음 모 아 잘 살 아 보 자

웅진문화 제2호 발간사



한 여름 일한 땀방울이 알알이 영그는 이 가을, 햇살 고와 하늘이 높고 푸르며 바람 상쾌하여 알찬 결실을 재촉 합니다.

우리 웅진문화원도 일한 과실을 웅진문화 2호에 담아내려는 의욕에 자축의 마음 앞서면서도, 웅진문화원의 소임을 성찰 해 봅니다. 향토문화 진흥에서 옛 것들의 발굴과 보전, 향유와 지역 문화 창달에 족족히 알차게 영글고 있는지, 성찰 하면서 그간의 땀방울을 담아 보립니다.

문화는 한 공동체의 가치 체계를 새롭게 창출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 하고 누리면서 같이 기뻐하며 모두에게 내재된 활력 에너지를 북돋워 일상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가 질 좋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밤길에 횃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실체를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것인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답은 독서를 통하든,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강연을 경청 하든, 여럿이 모여 환담을 하든, 그 말 속에 “그래, 그렇지.. 아 - 그랬구나, 그렇게 해야지 ..” 등 공감과 실천 의지 속에 길이 열린다면 행복의 실체는 당신 것이 됩니다. 행복의 지름길은 사물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이라도 달리 해 보면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행운의 길이 웅진문화 2호에 숨어 있습니다. 웅진문화는 섬과 섬, 너와 나, 이곳과 저곳, 이 마음 저 마음을 웅진문화의 글 속에 오롯이 담아 서로가 공감 하고, 소통하고, 유대 하는 마음을 문장으로 공유하면서 어우러지는 가치창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소통의 광장입니다.

내 이름 석 자로 된 문장 하나는 내 삶의 꽃입니다. 삶의 전성기를 구가 하는 내 삶의 꽃에는 인향(人香)의 가치가 무량(無量) 합니다.

웅진문화원장 태 동 철



『웅진문화』 지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2019 「웅진문화」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역사·문화 발굴에 힘써 주시는 웅진문화원 태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옛 것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순간순간 쉽없이 지나가는 현재의 순간들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의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표상이 되고, 그것을 일반화 시키면 문화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순간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현재가 되어가고 있는 미래의 순간들이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곧 문화가 되는 것이고 보면, 문화원이 역사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급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웅진문화원은 2017년에 설립되어 비록 짧은 연혁이지만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웅진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연구하여 웅진의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웅진문화」지 발간사업을 통해 사료의 발굴과 연구 및 서적 출간이 그것이고, 웅진 문화유적 탐방사업을 통해 웅진의 뿌리를 찾는 연구에 정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예절학교 운영 등 이러한 노력들이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들에게 웅진군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게 하는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 「웅진문화」 지 발간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천혜의 자연보고
웅진군의 새로운 표상을 만들어 가는 유의미한 또 다른 첫 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과거를 또 다른 말로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옛 것이 구태의연(舊態依然) 하거나 진부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미래를 통찰
하고 슬기롭게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현재의 웅진군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근간(根幹)으로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웅진군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총괄하는 「웅진문화」는 웅진군의 고유성과 정체
성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
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어렵게 제작한 이 책자가 앞으로 웅진군의 향토사
료로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 연구·조사·보급을 위한 사업 또
한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문화자원 발굴에 힘써 주신 웅진문화원 관계자분들과 「웅진문화」
발간에 적극 협조해주신 웅진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조 복 순



포도가 영글 때면 더 그리운 어머니!

“시방도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 해야 심정이 편한데..., 하던 일이라 인이 박혔지.” 달콤한 포도향기가 진동하는 포도밭 근처 간이 그늘 막. 어머니(백순임)는 당장이라도 가위를 들고 나가 포도송이를 따고 싶지만, 건강 걱정하는 자식들 감시(?)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앉았다. 14살에 결혼한 뒤 아홉 남매를 기르느라 손마디가 무르고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했건만 늘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셨다. “그동안 일한 거는 말도 못해. 그래도 힘이 들지 않았어. 저희들이 잘 자라주고 부모 말 어길 줄 모르니까 힘이 났지. 애들 하나 둘 씩 학교에 보낼 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 15살 남편(아버지 신흥수)을 만나 작고할 때까지 내외는 함께 농사를 지었다. 올망졸망 어린 자식들과 6·25전쟁을 피해 잠시 영흥도에 갔다 왔던 것을 빼고는 고향 땅 대부도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소를 길러 팔아 한 뼤 한 뼤 땅을 장만하고, 그 땅에서 얻은 곡식과 포도를 내다 팔아 돈을 모았다. 새벽 첫 닭이 울 때 나가 진종일 일하고, 밤에는 보리 방아를 찧고, 광목천으로 아이들 옷을 짓는 것이 어머니의 일상이었다. “다리(시화방조제)가 생기기 전만 해도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물에 닿을 수 있었어. 곡식을 내다 팔러 가던 사람들이 배가 뒤집혀 바다에서 폐죽음을 당한 적도 있어. 나도 곡식, 채소, 과일 같은 걸 배에 싣고 나가 팔았지.” 글도, 셈법도 전혀 모르는 순박한 섬 아낙이었지만 어머니는 청량리장이나 동대문시장까지 나가 물건을 팔곤 했다. 많은 자식들을 기르려니 농한기도 쉴 수 없었다. 겨울바람 속에서 개펄에 나가 굴, 조개, 바지락을 주웠다.

새벽부터 일하는 부모 밑에서 아홉 남매는 자연히 ‘아침형 인간’이 됐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했다. 진학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인천에서 지낸 자식들은, 아홉 남매를 풍족하게 뒷바라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부모를 대신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공부를 했다. 먹을 것을 만들 때면 아예 넉넉히 준비해 이웃에 골고루 나눠주곤 하던 “어머니의 푸근한 심성을 닮아, 자식들은 배품에 익숙했다.” 50여 년간 부녀회 일을 했던 큰 딸 영애(전 웅진군 새마을부녀회장)는 새마을훈장을 탔을 만큼 일 잘하고 마음이 넓었다. 비록 과로로 순직해 어머니 가슴에 큰 응어리를 남겼지만, 장남 영하는 웅진군의 공무원으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둘째 아들 정웅은 간석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해서 곤충체험장을 운영한다. 셋째 아들 영주는 포도농사를 하고 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배를 타고 다니며 계란 장사를 하고, 닭을 팔고, 중동 바레인까지 가는 억척스런 인생을 살았던 넷째 영은은 인천시의회 4선 의원을 지냈다. 그는 10여년 넘게 국수공장을 직접 운영하여 인천의 각 구의 무료급식센터에 국수를 무료로 공급하기도 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 일했던 셋째 딸인 저는 농협에서 30여년 지점장 등으로 근무, 남보다 앞서가는 창의적인 봉사활동으로 농협전국부녀지도대상 제1회 최우수상, 자랑스러운 농협인상 등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웅진군의회 재선의원으로 복도면, 덕적면, 연평면을 지역구로 뒀고 있다. 그 4녀5남에서 얻은 자손들이 47명. 변호사·판사 부부로 잘 알려진 증손녀 딸 배민경을 비롯해 웨딩디자이너, 교사, 공무원, 약사, 회사원 등 3~4세대 역시 할머니처럼 묵묵히 제 길을 가고 있다. “장모님이요? 어린이같이 순수하신 분이셨어요. 씨 뿌리고 가꾸는 일을 최고로 알고 사신 욕심이 없는 분이시죠. 자연 그 자체라고 할까요.” 셋째 사위인 추연화 전 제물포고 교장은 1주일에 두세 번 찾아 뵈던 장모님을 추억한다. 평생 일군 고향 땅을 자식들에게 각각 나눠주고는 인천에 있는 막내딸과 살던 어머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가 있는데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딸과 살아가는 막내는 언제나 가장 애처롭게 여기셨다. 아들들이 서로 같이 살자고 하지만, 어머니는 마다하고 몸 약한 막내딸을 지키며 살다가 하늘 소풍을 떠나셨다. “이젠 죽어 야지, 죽을 때가 됐지” 하시면서도 포도밭에 나가시면 ‘내년엔 밭 한 귀퉁이에 호박을 심을까, 파를 심을까’ 하시며 이듬해를 기대하곤 하셨던 어머니가 오늘 따라 더 보고 싶다. 평생 소식(小食)하시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낙천적으로 사시는 것이 장수비결인 듯~ 4년 전 102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부디 천상영복을 누리소서!

웅진군의회의원 신 영 희



소중한 땅 옹진군 섬

아름다운 섬은 경관이 좋고 먹을거리가 많아 험한 뱃길을 마다하지 않고 관광길에 오른다. 소중한 섬은 아름다움에 안보까지 떠안은 곳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아름답고 소중한 옹진군 관내 섬을 사랑하고 섬을 지켜준 옹진군 주민께 감사한다.

태동철 옹진군문화원장을 통해 관내에는 168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고 그중 23개 섬에는 2만 1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동안 인천문인협회 섬 문학기행을 통해 자주 접했던 곳이기에 친근감을 느낀다.

옹진군을 상징하는 나무는 해송, 꽃은 해당화, 새는 갈매기다. 옹진군민의 노래 가사를 열어보면 애국심에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된다.

「서해에 널려 있는 수많은 섬들/ 파도와 싸우면서 나라 지키네/ 푸른 섬을 거느린 옹진군민아/ 우리는 빛이 되자 등대가 되자.」

요즘 강화군 함박도로 인해 시끄럽다.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으로 돼 있다. 헌데 지금은 북한 군사 시설이 들어서 있다고 한다. ‘눈뜨고도 코를 베이는 세상’ 이라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낸 6.25전쟁을 겪으며 확보한 우리 땅을 쥐도 새도 모르게 북한에 빼앗겼다.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남에 있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했다. 남의 땅을 우리 영토로 착각하고 관리·점검해온 것은 행정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965년 10월 29일 발생한 북한의 우리 어민 납치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는 함박도가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어느 날 정부는 함박도를 그린벨트로 묶어 우리 어민의 출입을 금지했고 그 사이 북한군이 상륙해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한다. 군사시설이 남한을 향하지 않아 납치 위험이 없다

는 국방부의 궤변을 신문 기사를 통해 보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26일까지 다음 포털 카카오지도에 있었던 ‘함박도’ 표기마저 사라졌다. NLL 표기 선 아래에 서해 5도인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와 함께 함박도 섬 형태는 지도에 남아 있는데 갑자기 무명도가 된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고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전사 2명과 부상 16명, 민간인은 사망 2명과 부상 3명의 피해를 봤다.

포격으로 쑥대밭이 된 슈퍼를 방문한 어느 정치인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바닥에 나뒹구는 소주병을 들고 웃으며 “이것이 바로 폭탄주!”라고 해 필자는 이들을 비난한 칼럼을 쓴 적도 있었다.

당시 연평도 주민들은 인천으로 피난을 왔다. 우리는 언제 북한으로 부터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섬으로 주민들이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주민들이 연평도를 포기한다면 결국엔 북한의 영토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그러나 그들은 귀향할 날을 손꼽다가 돌아가 지금까지 연평도를 지키고 있다. 아니 조국을 사수하고 있다.

영화「인천상륙작전」엔 영흥도가 등장한다.

9월 14일 0시, 북한군이 갑자기 영흥도를 공격해 맥아더 장군의 9·15 인천상륙작전을 방해하려 하자 임병욱 소위와 홍시욱 병조는 철수 명령을 받고도 총격전을 벌이다가 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고문 도중 작전 비밀을 털어놓을까 봐 동료들을 탈출시킨 후 자결을 선택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1년이 되던 해, 영화 ‘NLL-연평해전’ 제작 후원을 위한 특별 상영회가 2013년 6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윤영하 소령의 모교이며 필자의 모교이기도 한 송도고등학교에서는 최창은 학생회장이 참석해 “먼저 인간이 되라는 교훈을 실천한 선배님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추모 편지를 낭독했다.

상영회를 마친 2부 순서에서 김학순 감독, 최순조 작가, 부상자 권기형 씨가 단상에 올라 영화 제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올 로케 촬영으로 얼굴이 햇볕에 검게 탄 김학순 감독은 내 가족의 이야기 같았고 고귀한 희생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그리고 반공 영화가 아닌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6년 전부터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했다.

그는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해 출연료를 받지 않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촬영에



협조해 주는 120여 명의 배우와 스태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또한 영화를 시작하며 눈물이 다 마른 줄 알았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보내온 5천 원짜리 상품권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보내온 돼지저금통을 받고 또 눈물이 나왔으며 그때의 감동과 책임감으로 촬영에 임한다며 감격에 벅찬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취재를 위해 현장에 들렀다는 최순조 작가는 조타장 한상국 중사에 관한 뒷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한상국 중사는 내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고 숨졌으면서도 배의 방향을 잡는 조타기를 꼭 움켜잡고 있었다.

그 덕분에 참수리 357호는 침몰하면서 북한의 영해로 넘어가지 않았고, 뒤집히거나 옆으로 기울지 않고 깊은 바닷속에 반듯하게 서 있어 한 치 앞을 가릴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연평도 앞바다 속에서도 인양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인양작업 중에는 굵은 날씨에 파도가 거칠었지만, 참수리호가 바다 위로 떠 오른 순간 햇빛이 나고 무지개가 떴다고 한다.

침몰한 배를 인양한 후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조타기를 움켜잡은 손가락을 펴지 않아 전우들이 “상국아! 이젠 배에서 내려 네 어머니에게 가자!”고 달래자 그제야 손가락이 펴졌다는 말엔 참석자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다.

용진군민 및 용진군문화원 회원 50여 명이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평화의 섬’ 연평도의 문화유적 탐방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참가자들은 연평안보수련원에 입교하여 평화안보 교육을 수강하고, 연평해전 및 연평포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전사자들의 위령탑에 헌화했으며 포격 사건의 현장인 안보교육장을 방문했다.

태동철 용진문화원장은 “안보 교육을 겸한 이번 문화탐방으로 참가자들이 자유 평화의 가치를 목숨으로 지켜낸 용사들의 애국정신을 본받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용진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용진 관내의 숨겨진 문화유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흥미롭고 의미 있는 체험이 가능한 탐방사업을 연 2회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자랑스러운 용진군 관내 섬을 방문할 때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국가 안보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선착장에 발을 딛는다.

인천문인협회장/수필가 김 사 연

문화원 총회 이모저모

문화원 정기 총회 2019년 2월 22일 개최

개회식 모습



총회 모습



문화원 총회 이모저모



기념 촬영



웅진 섬 민요집 발간

지방문화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고유문화 및 향토사 발굴·보존·전승·선양과 활용이다. 웅진문화원은 2019년 두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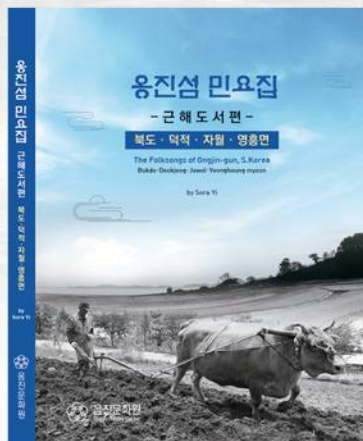
두 사업 모두 구두로 창작되고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요를 대상으로 하였다. 민요를 주제로 한 이유는 특성상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전수하지 못하고 잃을 수 있고, 가창자들의 사망으로 맥이 끊겨 영원히 발굴 할 수 없어 시급했다. 시대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웅진군 지역만의 특색 있는 민요를 책과 음원으로 제작함으로써 콘텐츠화 하고 보존, 선양 그리고 민요 계승발전의 풍부한 자료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웅진군의 민요는 1987년과 1988년 웅진군 토민들을 방문하여 사라져가는 전래민요를 녹음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충녹음과 연구를 계속 해온 민족음악연구소 대표 이소라 박사와 함께 민요집 발간을 작업하였다.

지방문화원진흥법 3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한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특성화 사업'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 받은 『웅진 섬 민요』- 서해5도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으로 『웅진 섬 민요』- 근해도서편 총 2권을 발간하였다.

민요집은 전해 내려오는 웅진군 토민의 어로요, 농요, 노동요, 동요, 유희요, 흥민요, 의식요를 발굴, 조사하여 악보, 가사,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근해도서편은 음원편집을 거친 후 CD로 같이 제작되었다.



『웅진섬 민요집 – 서해5도서 : 백령 · 대청 · 연평 편』

민요집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웅진섬 민요집 백령 · 대청 · 연평면 편』에서는 165개의 악보를 가창자들로부터 녹취하여 민요집에 담았다. 서해5도는 어업을 중심으로 인해 어로요가 풍부하다. 까나리와 조기가 주된 어획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농요로는 백령도에서 삼베를 많이 짜서 육지로 내보냈다 하여 물레노래가 백령도에서만 녹음되었다. 그 외에도 임경업장군 사당으로 가서 연평바다에 조기를 많이 잡아 도장원하게 해 달라 말하는 의식풍요로, 한번 응물어 콧소리를 내는 것이 독특한 가락인 수심가 등을 담고 있다.

▶ 웅진섬 민요집 中 가창자 모습



연평도_ 조희준



연평도_ 안창길



연평도 서부리 거주_ 정관석



연평도_ 황명익



연평도_ 김진순

공모사업



연평도 녹음장면(1988. 7. 10)



연평도 녹음장면



백령면 가을리에서_ 정응현(76세때, 시계), 장연주(69세때)



백령면 가창자_ 김병일(70세때)



대청면_ 가창자들



대청면 곱새치기 가창자들



백령면 연화1리_ 김태형(68세때, 안경), 김태욱(66세때)



백령면 진촌리에서 최성화



연평도 가창자 고상옥(당시81세)



백령면 가창자_ 안명삼(66세때)



연평도 배치기 녹음장면_ 정:권장성



백령면 가창자_ 이순덕(60세때)

『웅진섬 민요집 - 근해도서 : 북도 · 덕적 · 자월 · 영흥 편』

『웅진섬 민요집 - 근해도서편』에서는 148개의 악보를 가창자들로부터 녹취하여 민요 집에 담았다. 근해도서편은 어로요 비중보다 농요의 비중이 조금 더 커졌다. 필자는 <웅진군 영흥면 내4리 농요>는 비지정 무형문화재로 길이 보호 할 만하다고 했다. 내4리 농요는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 및 나무꾼 소리로 구성된다. 또한, 덕적도에서는 남성들은 배를 타는 경우가 많은 섬지방으로 여성들이 논도 매고 나무하러 지계를 지고 다니는 모습이 있다. 이때 부른 민요는 '논김매기 소리'이다.

▶ 가창자 모습



영흥면 내4리 가창자와 녹음협조자들(1987년) 좌측에서
이상원 면장, 김인환, 김지선 박상석, 김기순 총무계장



영흥면 내4리(1987년) 김인환(74세때 시계 찬 분)
김지선(62세때)



영흥 3인



북도면 신도리에서 김봉윤(모자 안쓴분),
라만석(밀짚모자), 최원석

공모사업



덕적면 소야리에서 배병윤(61세때)임배진 부면장



덕적면 소야리의 지계를 지고 호미를 든 녹음협조자



덕적면 소야리 배계출씨택에서
서재옥(68세때) 서윤예(73세때)



덕적면 서포2리에서 인권옥



덕적면 서포2리에서 문인예(키작은 분),
문분김(수건쓴 분),오정금



덕적면 북2리의 가창자문송준



덕적면에서 녹음협조자들



자월면 자월2리 동촌 가창자들 좌로부터
김영민 노인회장, 남진섭 천용우, 김도영

공모사업



자월면 동촌 자택앞에서 김요지(2019.4.12)



자월면 동촌회관에서 배춘난



자월면 이적리 출신 김화분



자월면 출신 강준여(여)



가창자들(김인화, 정귀진, 정인수)과 김경협 국장



승봉도의 여성 가창자들 왼쪽부터
강금숙, 강기열, 김월량(모자)



승봉도 마을회관에서(2019.9.18)
김인화 노인회



김월량



강기열

2019년 몽진 축제

- 몽진바다 해넘이, 제야행사
- 장봉도 벚꽃축제
- '미스트롯' 백령도 평화콘서트
- 서포리 축제
- 화합과 소통 '군민의 날' 개최



웅진바다 해넘이 축제

웅진바다 해넘이 축제에는 다양한 축하공연과 평화·희망의 비둘기 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웅진바다 제야 행사

웅진바다 제야 행사가 웅진군 영흥면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및 불꽃놀이가 이어졌다.

2019년 웅진축제



장봉도 벚꽃축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웅암해변에서 개최된 '제10회 장봉도 벚꽃축제'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과 자전거 트래킹 동호인 등이 참여해 장봉도의 빼어난 바다의 경치와 벚꽃의 향연을 만끽했다.



'미스트롯' 백령도 평화콘서트

웅진군 백령도에서 트롯 여신들과 관객이 함께 소통하는 무대의 연속으로 '미스트롯' 백령도 평화 무료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019년 웅진 축제



서포리 축제

웅진군은 덕적면 서포리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연 '2019 Again 서포리! 응답하라 덕적도!' 축제가 주민과 관광객 등 약 1,000여 명의 박수와 환호가 해변을 뜨겁게 달궜다.



웅진 군민의 날 (전야제)

웅진군이 군민의 날을 지역내에서 벗어나 웅진군민과 더불어 출향인사 및 인천시민과 함께 군민의 날을 기념했다.

2019년 웅진 축제



웅진 군민의 날 (기념식)

웅진 군민의 날을 맞아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 공연으로 시작한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문화체육, 사회봉사, 효행 등 분야별 웅진군 군민상과 인천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군민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웅진 군민의 날 (체육대회)

군민화합체육대회는 7개면 750여 명의 선수들이 11개 종목(축구 · 배구 · 테니스 · 게이트볼 · 줄다리기 등)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2019년 웅진 축제





문예마당

- 시
- 수필
- 독후감
- 자유 기고문
- 웅진사람들의 이야기
- 웅진 발전을 위한 제안
- 그림
- 서각
- 사진
- 화훼조형
- 웅진의 아름다운 풍경



“박꽃이 피었다고”



태 동 철

상, 상
 문학상 몇 번 받았다
 흐르는 구름 사이로 별빛 스치듯
 바람결에 박수소리
 헛배만 부르더라
 짹짹한 잔소리 곁들인 아내 밥상 받은
 당신
 상중에 상
 인생살이 대상이다
 꽃진 자리에 검버섯 필 때
 묶고 묶은 간 장녀를 아내로 맞은
 나
 매콤한 군소리 곁들인 밥상 받고 보니
 얼굴에 박꽃 피었다고
 흥부가 활짝 웃고 있다

안압지(雁鴨池) 야경



김수원

안압지에 거꾸로 선 불빛들
 웅장한 전각이 옥새의 서체처럼 찍혀 있고
 아름다리 소나무가 우듬지로 뿌리를 내린 듯
 산책하는 연인이 수면에 매달려 있다
 살아가는 매순간이 빛과 그림자의 교차로
 충천연색 환상이 물살에 흔들린다

천년을 살 것처럼 버둥거리는 생이
 물그림자로 음각되어 잠겨 있다
 지상에서 부는 바람결이 스치자
 순간 물결 이는 파문 속에
 이름 없는 환영으로 퍼져 나간다

땅을 딛고 선 두 발과
 물그림자가 두 발을 맞댄 사이
 차안과 피안의 경계가 뻗어 있다
 육신의 무게로 날지 못하는 오리가
 영혼의 날개를 편 기러기로
 불빛 찬란한 안압지를 비상한다

사랑은 지금

 김 근 호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만인 것을
 눈을 떠보면 하늘이 반기고
 눈을 감으면 그대의 사랑의 손길
 아름답게 살려면 사랑을 하자
 사랑하기 좋은 날
 행복해야 하는 날
 사랑의 시작은
 바로 지금 지금이야

웅진사랑



장 정 돈

웅진의 올바른 사고와 의식은
 웅진을 밝히는 등대가 된다
 웅진의 협치는
 웅진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다
 웅진의 주인의식은
 굳건한 도약을 할 것이다
 웅진을 사랑하자
 웅진이 풍요롭고, 평화로워 진다
 웅진을 위해 배려하자
 살맛나는 웅진, 살기 좋은 웅진이 될 것이다
 웅진을 위해 칭찬하자
 고래도 춤추고, 웅진도 춤 춘다
 웅진을 의한 청정운동은
 해양관광 1번지로 가는 길이다
 웅진교육의 관심은
 웅진의 비전이자 웅진의 미래이다
 웅진의 화합은
 웅진의 발전과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웅진의 존경과 존중은
 웅진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이 된다
 문무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의지처럼
 웅진을 지킨다

모래 산언덕

 광 윤 직

날마다 학교 길에
 모래 산을
 넘 노라면
 숨차서 헐떡이며
 모래 위에 주저앉아
 신기한 이산 내력
 역사처럼 알고 싶네
 수천 년 지켜오던
 주인은
 어디 가고
 지금은 모여모여
 모래 산이 지켜주네

겨울 문턱에서



최 원 선

가을 중반을 훌쩍 넘으니
 마당에 나뒹구는 낙엽은 계절을 탓하고
 천둥 앞세운 폭풍은 길동무하듯 함께 날아든다.
 바람은 산허리에 몰려 있는 산 식구들을
 큰 할퀴러 오가며 간지럽히고 때리니
 도토리, 밤, 소나무, 서나무, 참나무 잎새들
 이별 예고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낙엽이 된다.
 동서남북 검푸른 바다도
 광란하는 바람에 산 그림자 움켜잡고
 아이스크림 베어 문 듯 허연 거품으로
 속절없이 일렁거린다.
 우주가 깨질 듯한 굉음
 세상은 으르렁 소리로 꽉 찬 듯 했지만
 이 모두는 자연의 이치로 흐른다.
 산과 드넓은 바다는 스쳐가는 시간일 뿐
 바람 휘몰고 간 건너 국사봉은 땅거미 쉼터가 되고
 알곡을 거두어 낸 겨울녘 들판은
 논두렁 베게 삼아 땅 그림자 오기를 기다린다.
 하늘만한 앞마당은 여기 저기 나뒹구는
 검불들을 모아 불 냄새로 갈무리하니
 저무는 붉은 노을은 "섬 영흥"을 이끌고
 멀리 수평선 넘어 내일로 스러진다.
 세상사 갯고랑에 얹힌 낙엽처럼 복잡 분주하지만
 고단함의 붓짐은 겨울 문턱 한편으로 밀어 놓는다.

가을날

 김 옥 자

달콤한 산소 가득
 들국화 향기 그윽한, 내가 살고 있는 대청도
 어디를 가도
 함성이 절로 나는 명품 섬
 수많은 발자국을 품어주고
 솔향기에 취해 시간을 잊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나간다.
 다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다시 찾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 본다
 아- 나는 내 고향이 천국으로 아름다움을
 가슴 가득 안고 살아간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곳

해당화



송 영 옥

연평 섬마을 바닷가에
해당화가 고옴게 피었다

은은한 너의 향기가
코끝을 스칠 때면
한결 좋아지는 기분

수줍은 듯 수줍은 듯
향기 품은 너의 모습에
매료되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니
어느새 내 마음엔 평화가 찾아온다.

느낌

이 암 전

잔잔한 호숫가에
 둘은 나란히 앉았네
 아무 말 없이 침묵은 흐르고
 아 난 알았네
 마지막 일 줄을
 떨리던 그 입술도
 짰했던 순간을 애써 감추며
 왜 이제 그만이란 말이 힘들었나

억새 꽃 풀숲에서
 소쩍새도 울어 대니
 내 마음 둘 곳 없어
 그 모습 등 뒤하고 난 울고 말았네

바람은 차가운 데
 둘은 어깨를 기대고
 말없이 앉아 침묵만 지켰네
 아 난 알아요
 그 마음 슬픈 것을
 다시는 볼 수가 없다는 너를
 아 그 말이 하기가 힘들었나요

부엉이 서글프게
 울어주던 가을밤은
 왜 이리 처량한지
 얼굴을 감싸 쥐고 난 울기만 했네

아름다운 영흥도



이 돈 혜

빠알간 잘 익은 연시처럼 탐스러운 해를
 믿음직한 오빠산이 반갑게 아침을 맞이하고
 아스라히 멀어지는 저녁노을은 아쉬움을 담아
 아름다운 바다를 주홍빛 치마로 물들이네
 가을하늘 수놓으며 행진하는 기러기 떼
 귀한손님 맞으려 부지런히 날갯짓하고
 군데군데 흰구름들 응원하며 비켜주네
 예쁜 오솔길을 걷다 보면
 귀여운 들꽃들 눈인사하고
 소사나무 가족들 추억을 얘기하다
 어느덧 국사봉에 오르네
 길가엔 어느새 색색이 예쁜 옷을 뽐내며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나를 반기며 가을을 얘기 하네
 아~
 아름답고 소박한 이곳에서 자연을 닮은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라

기억속의 나



유 희 정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며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앞으로 나아 감에 있어 두려움 없이 행동하며
 같이 걸을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덜 익은 사과처럼 푸르른 나이지만
 같이 익어갈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오늘도 한걸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웅진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신규 농촌지도사로서 같이 땀 흘릴 것이며
 웅진군의 아름다운 섬과 함께 빛날 수 있도록 하소서
 농업인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흰 도화지 같은 사람이 되어
 정 많은 농촌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Beautiful tomorrow



김 회 승

어둡고 고요한 긴 밤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나에게
 작은 빛들이 보인다
 마치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바닥만 보고 걷던 난
 이제는 고개를 들고
 작은 빛들을 본다
 환하게 빛나고 있다
 나를 반기는 것처럼
 고독하고 쓸쓸했던 긴 밤이 지나고
 태양이 천천히 떠오른다
 작은 빛들은 점점 희미 해져 간다
 천천히 크게 떠오르는 태양은
 작은 빛들을 쉬게 하고
 큰 빛이 되어 환하게 비출 것이다
 그들이 날 반기던 그 빛처럼

그 숲에서

 김 연 아

사회라는 숲에 들어선다
언젠가 들어설 줄은 알았지만
빼곡한 낮숲과 막연한 두려움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

사회라는 숲을 거닐어본다
그저 어둠 뿐인 줄 알았지만
길을 지키는 풀잎과 속삭이는 나무들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사회라는 숲을 느껴본다
또 다른 굴레에 갇힌 것인 줄 알았지만
그 멀고먼 이상과 현실의 괴리
다리 위 시작점에 있는 것 같다

들어선 이 숲이 낮설지라도
거닐고 있는 이 숲이 어두울지라도
느끼고 있는 이 숲의 끝을 모를지라도
오늘도 나는 발걸음을 떼어본다

잃어버린 추억의 교정

 조 종 식

2014년 8월초 우리는 찌는 듯한 삼복더위를 피서 겸 고향인 백령도를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여정에 올랐다. 뱃길로 서북단을 향한 200킬로 남짓 달려 반나절만에 (약 4시간 반) 용기포 항구에 다다랐는데 옛날 용기포항이 아니고 그 북쪽 뒤편에 항구가 돼 있었고 준공한지 몇 년 안 된다고 하였다. 쪽 뻗은 아스팔트도로, 규모 있게 지어진 건축물! 내가 어린 시절 보냈던 백령도가 아니었다. 첫눈에 상당히 발전된 면모를 보이는 절해고도 “백령도” 정신 줄 놓으면 도회지에 와 있는 착각을 할 정도였다.

한편 우리 일행은 다름 아닌 백령도 남포1리에 자리한 백령남포초등학교를 졸업한 출신들 중 13회 졸업생들로 인천을 중심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몇몇이 모여 초교13회 동창회를 만들고 연락하고 주선하여 오늘에 이르는 남포초등학교 13회 졸업생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당시 몇 십년만에 저마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한사람 또 한사람..... 깨알 모으듯이 모집하여 고향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 고향방문단! 일행 명칭도 어느새 고향방문단이 되어 있었다.

당시 때 맞추어 30여년의 국적을 먹고 퇴임한 친구가 고향에서 전원주택을 새로 짓고 귀농에 열중한 시기에 마침 연락이 닿아 집들이 겸 축하도 하고 방문도 할겸 시기에 맞추어 들리다 보니 그 친구집에 여장을 풀게 되었다. 2박3일의 일정이어서 마음상으로 상당히 여유를 가졌으나 나중엔 필히 가 볼 곳도 각자 들려야 할 곳도 중구난방 두미없이 허둥대다 보니 짜임새 있는 여행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이래서 여행할 때엔 꼼꼼히 시간과 일정 경비들을 철저히 고려하여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구나 생각해 보았다. 도착한 날 바로 미리 예약해 두었던 낚시배를 희망자에 한하여 멀미하지 않는 사람으로 배에 태우는데 희망자는 여자들이 더 많았다. 푸른 물살을 가르고 달리는 기분은 개신장군이 이런 기분이었으랴! 얼마를 달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목적지라고 다다랐는데 거기가 그곳 같고 키를 쥔 선장만이 아는 곳인지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고기만 낚으면 되느니라. 물때가 좋아 잘 잡힐 것이라는 선장의 말대로 채비를 내리자 우럭과 놀래미가 연신 올라오는데 채비가 충

분하지 않아 여기서도 환호성으로 응원하는 구경꾼이 더 많아 환호성소리에 바다 한가운데가 난리도 아니었고 다른 배들 한테는 우리가 어느새 구경꾼들의 대상이 돼 있었다. 선장님은 고기 다 도망간다고 떠들지 말라고 하였으나 고기는 한 마디로 채비를 넣으면 올라왔다. 함성과 박수소리에 다 도망가고 멍청한 놈, 귀먹은 놈, 눈먼 놈만 남아 올라온다고 한바탕 배를 움켜잡고 웃기도 했다. 배는 크진 않아도 고속엔진이 달려 무척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고속엔진 아니면 물때도 맞추기 어렵고 경쟁에서도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우리 일행은 그날 저녁은 직접 잡은 자연산 우럭과 놀래미로 회를 뜨고 굽기도 하여 거나하게 한잔 할 수 있었고 나중엔 어업하시는 선주들과 지인분들이 보관해 두었던 대고동과 전복도 가져와 구워 먹는 체험과 맛을 볼 수 있었으며 우리 일행과 현지 사는 친구들 동네분들과 밤늦도록 밀린 얘기 옛날얘기로 담소를 나누며 취하는 밤이 되었고 힘은 들어 자고는 싶은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자정이 훨씬 넘어 취침을 할 수 있었다. '별을 헤이는 밤' 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되었다. 일가 친척이 있는 사람은 쉬러 가고 이곳에 여장을 풀 사람은 취침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곳이 바로 고향이구나 눈시울이 아려 왔다.

다음날 기상하여 친구집에서 아침을 먹고 다시 모여 현지 사는 친구들의 안내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목적지는 정해 놓고 차에 올랐지만 싱싱 달릴 수가 없었다. 차 타고 가다 보면 본인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 내려보다 추억이 어린 곳에 세워봐라 외치며 확인할 곳도 많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느라 진작 목적지를 다녀오는 데는 오후가 훨씬 넘어서야 되돌아 올 수 있었다.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여자들을 떼어놓고 가야한다고 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여자일행들이 박장대소를 했다. 사실 수십 년만에 들린 정든 고향이라 남녀가 따로 없었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수긍할 것이다. 오후 땅거미질 무렵 옛 초등학교 교정을 추억하며 어린동심들이 발동하여 6년의 추억이 서린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뿔사! 웬일인가! 교정 2개 동이 온데간데 보이질 않는 것이었다. 몇 년 전에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을 줄로 알았다. 어쨌! 없어진 건물은 펍 오래전 일 같았고 그 넓던 운동장은 조그만 자동차 운전면허코스장으로 바뀌어져 있고 주위는 다 침범되어 옛자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갑자기 뇌리에 스치는 것이 이런 걸 두고 '상전벽해' 라고 하는 말이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 박혀 서 있으려니 600여명의 학생들이 운집했던 배움의 터전에 교정의 스피커소리가 울려오는 듯.....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그 많던 학생들이 모두다 어디가

고 빈터만 남아있던 말인가?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교실이 되고 휘날리던 태극기, 바람 불면 찢랑되던 국기봉, 매 시간마다 울려오던 종소리 늙은 노간주나무, 봄이면 하얀 단장하던 목련..... 모두가 추억속으로 사라졌단 말인가!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졸업한지 훌쩍 반세기가 흘렀지만 이렇게 변했을 줄이야! 돌아서지 않는 발길을 돌리며 몇 번을 고개 돌려 쳐다봐도 어이가 없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인구정책 방향이 큰 과제이로구나. 비록 여기 이곳 뿐이 아닐진대 앞으로 이대로 가다 가는 인구문제에 관한 풀어야할 숙제가 아닐 수 없겠구나 생각되었다.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포초등학교는 북포초등학교로 사곶초등학교는 백령초등학교로 통합되었으며 폐교된 지역의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등·하교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2개교를 통합한 학교의 학생수가 북포초등학교인 경우도 100명도 채 안된다는 실정이니 장래가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짧은 여행시간이지만 어느 때 여행보다도 숙연해지는 하계여행이 되었으며 인천에서부터 먼 길 동행한 친구들과 고향에 살며 반겨 맞아준 현지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추억의 자취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 계기가 되어 내심 아쉬웠지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앞으로 남포초교 출신들은 물론 우리 13회 동창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비록학교는 없어졌으나 남포초교출신들이 이 땅에 중추를 넘어 다방면에서 선두역할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동문 졸업생들 모두 파이팅 하고 영원하길.....

급격하게 인구감소 추세에 사는 현 세대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손을 써야 하는 인구정책이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이 과제라 생각되어지며 이런저런 생각에 가슴 한 칸엔 씁쓸하고 허허한 바람만 밀려오는 듯하다.

2박3일의 여정을 마치고 망망대해에 몸을 실었다. 배 안에 인파가 많고 우리 일행들이 저마다의 고향방문이야기로 시끌벅적 하니 이 또한 살만 한 광경이 되어 쓸쓸했던 교정의 모습이 뇌리에서 밀려 언제 그랬냐는 듯 나도 모르게 무리에 합류되어 떠돌고 있었다.

요즘 엇그제도 뉴스시간에 10년 후에나 발표될 인구기준밀도가 무너져 10년 일찍 앞당겨 발표한다는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에 관한 뉴스를 보고 돈으로만 될 일이 아니구나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잃어버린 유년의 추억에 교정을 꿈길에서나마 되새겨 볼랍니다.

주사를 맞는 그 고통

 곽인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된다.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고통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웬만한 일은 참고 견딘다. 그런데 도무지 내성이 생기기는 커녕 항상 두렵고 나를 긴장 시키는 것은 바로 ‘주사를 맞는 일’이다.

난 지난 2006년도에 중국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귀국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10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다. 으레 그렇듯 병원에 오면 먼저 채혈을 하고 그 후에 해파빅 링거주사를 맞는다.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먹는 약 ‘프로그램’의 양(量)과 주사 맞는 주기가 정해진다.

몇 년 전의 일이다. 담당 의사는 다음에 올 때는 평소에 1시간 전에 하는 혈액검사 외에 컴퓨터 단층 촬영(이하 CT)을 하라고 하였다. 나는 손목에 굵은 주사바늘을 꽂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몹시 아프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었다. CT촬영은 다양한 각도에서 X선을 쏘아 인체 단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손목 혈관에 주사 바늘을 꽂은 채로 그 촬영대에 누워 사진을 찍다가 주사바늘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주사액이 온 몸에 퍼질 때 몸이 후끈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한 채로 촬영이 진행되곤 했다.

정해진 날에 병원에 왔다. 기본적인 검사를 위한 채혈을 마친 뒤 CT촬영을 위한 주사실에 갔다. 간호사는 손목의 혈관에 주사바늘을 꽂았다. 엄청나게 아팠다. 그런데 혈관에 주사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빼었다가 안쪽으로 더 깊숙이 꽂아 넣는다. 한 번도 겁이 나는데 두 번이나 주사바늘을 빼었다가 꽂으니 이럴 때가 제일 괴롭다. 간호사는 “혈관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에 그렇다”면서 “다른 간호사에게 한 번 더 하자”고 했지만 난 “그만 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의사와 통화를 해봐야 하니 외과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난 외과의 간호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나서 통화가 이루어지기를 내내 기다렸다. 이런 일을 살아있는 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프기도 하지만 서글프기도 하다. 물론 살아있기에, 이런 고통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지만 서러운 마음

이 가지지 않는다.

외과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오늘은 CT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 늦었지만 나도 hepatomegaly 주사를 맞고서 의사를 만났다. 다음엔 초음파 검사를 하자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쫘 가벼웠다. 며칠이 지났 어도 주사바늘이 꽂혔던 팔목 주변의 통증은 아직도 가지지 않는다.

다음엔 CT검사대신 고통이 없는 초음파검사를 받을 생각에 쫘 위안이 된다.

약 15년 전 수술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사를 맞고 있을 때였다. 어떤 때는 서툰 간호사가 놔주는 주사가 어찌나 아픈지 수간호사에게 주사를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분이 항상 외출 수는 없는 실정인 아닌가?

지금 맞는 정주용 hepatomegaly 주사가 나오기 전에 맞았던 근육 용 hepatomegaly 주사도 바늘이 굵다. 한 번에 안돼서 다시 찔려야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주사 한 번 맞으려면 최소한 3시간은 걸렸다. 게다가 어느 날은 주사의 부작용으로 온몸이 너무 춥고 떨려서 어찌할 줄 모를 때도 있었다. 약이 천천히 들어가도록 해도 고통은 멈추지 않아서 중단했다가 다시 맞은 적도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 가를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지금은 정주용 hepatomegaly 주사를 1시간 정도에 고통 없이 맞을 수 있으니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주사를 맞고서 담당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노 라면 병원진료를 마치고 급히 가야할 데가 있는데도 대기자 명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환자 진료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진료 외의 사사로운 일이나 병원일로 지체될 때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오늘, 정기검진 날이었다. hepatomegaly 주사를 맞으려고 주사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오늘따라 몹시 피곤해서 눈을 뜨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주사를 맞을 생각에 긴장이 됐다. 그때 내가 익히 아는 그 간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향해 들려왔다. 그 간호사는 아프지 않게 놓고 그 비싼 hepatomegaly 주사가 끝까지 들어가도록 알뜰하게 놓아준다. 매사가 이같이 친절하니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될 정도로 그 간호사의 심리료술(心理療術)이 뛰어나다. 그러기에 나는 ‘간호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된다.’고 말했더니 그 간호사는 “오늘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돌봐 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분이 ‘백의의 천사’가 아닐까?

누명 쓴 새 이야기

강도영

특별한 새가 있었다.

새 이야기를 하려니 무대(환경) 설명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다.

내 고향 자월도는 작은 섬이지만 산과 들엔 나무와 풀이 무성해서 새들이 살기에 좋은 여건이다. 특히 어류골 우리집은 마을의 동쪽 끝자락 외곽에 위치한데다 산에 인접하고 집 주위엔 복숭아·살구·감·배나무등 과수와 벚나무·느릅나무·참나무등 많은 나무가 있어 숲속이나 다름없이 항상 새들이 날아들어 지절거리고 마당 수돗가에 물을 받아 놓으면 녀석들이 목욕을 하기도 한다. 아랫마당 옛 집터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쇠 오색 딱따구리가 구멍을 파고 해마다 새끼를 치는데 묵은 구멍엔 속새와 박새가 세 들어 새끼를 키우곤 한다. 주위환경이 이러하니 섬에 자리를 잡은 텃새는 물론 수많은 철새들 대부분을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고 특히 봄이 한창일 때는 아침 늦잠을 자려 해도 잘 수 없을 정도다. 오늘은 그 중에도 유난히 소리가 크고 별난 녀석 애길 하려한다.

‘휘파람새’ 녀석의 정식 이름을 알게 된 것은 한 사십 여년 전이지만 내가 어릴 적에는 호로록새 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호로로로, 호로로로’ 하는 녀석의 울음소리 때문 이었다. 이 녀석은 이른 봄 누구보다 일찍 찾아와 여름을 나고 가는데 대부분의 새들이 높은 나뭇가지나 먹이를 찾아 땅에도 내려오는데 이 녀석은 마을근처 논·밭둑의 덩굴속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모습을 보기 어렵다. 크기는 할미새 정도에 깃털색이 화려하지도 않아서 관심을 갖고 찾아봐도 보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여기 토박이 주민들 중에도 녀석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게다.

이 새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긴 설명을 하는 데는 내 나름 이유가 있어 서다. 내 어린 시절 대부분 농·어촌이 그랬을 테지만 이 섬도 봄이면 춘궁기라 해서 더 배가 고팠다. 죽을 먹는 날이 많았고 터러는 죽도 못 먹고 때를 넘기는 집도 있었으니까. 이런 시절에 이 새의 울음 소리가 호로로로 호로로로 하고 들리니 흡사 멸건 죽을 먹을 때 내는 소리 같다 해서 흥년을 부르고 죽을 먹게 하는 소리를 낸다고 흥조로 낙인이 찍힌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할미

나는 녀석의 우는 소리만 들리면 “저놈의 새 저 망할 놈의 새” 하시면서 돌팔매질을 하시곤 했다. 곡식은 전혀 먹지 않고 벌레가 주식인 새이니 익조라고 칭찬을 들을 만하건만 울음소리 때문에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심한 욕을 먹은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내 할머니는 떠나시고 세상이 좋아져 배고픔을 모르고 춘궁기란 말도 사라져 먹을거리가 풍족한 지금 어느 누가 이 새의 곱고 낭랑한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죽 마시는 소리를 연상하겠는가? 녀석들은 지금도 봄이면 누구보다 먼저 이 섬을 찾아와 그때 그 목소리, 그 멜로디로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 사람들은 대부분 새가 운다고 표현을 하지만 나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래도, 울음도 아닌 그들만의 언어이겠지만 그 옛적 노랫소리 때문에 나쁜 새로 몰려 욕먹고 저주까지 받았던 녀석에게 그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우리 할머니를 이해하라고 할머니 대신 사과 하고 싶다. 녀석이 내 맘을 알지 못하고 이글을 읽지도 못하겠지만 올 8월 말경 어느 날 훌쩍 떠나 버린 녀석이 내년에도 이른 봄에 다시 와서 우리집 가까운 짙레 덩불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를 바래 본다. ‘휘파람새’ 그 이름대로 신나게 휘파람을 불어 나의 우정 어린 사과와 환영에 화답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9.10 자월도 어류골에서



그때가 오늘의 과거인 것을 몰랐다.



김 나 혜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머리가 휘청일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바다의 날씨를 떠올리고 만다. 오늘은 나의 고향 연평도에 풍랑주의보가 내렸으려나 지레 짐작을 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절반 이상을 섬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 시절에는 달에도 몇 번씩 배를 타야 했던 지라 학창시절에도 내 친구들은 안개나 바람을 보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곤 했다.

얼마 전 태풍이 들었을 때 내가 사는 아파트 앞 나무 몇 개는 그 두터운 몸통머리가 몹시 가냘파 보일만큼 무참히 부러진 채로 길바닥 위에 누웠다.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 딸린 공원은 흙바닥이 뒤집혀 처참한 꼴이었다. 과거 악명 높았던 태풍과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꼭 그날, 태풍이 인천 즈음을 지날 적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으므로 펍 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었다. 나는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을에 위치한 아르바이트생이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부모님은 더욱이 태풍의 영향이 더 했던지 고향에서는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다고 나에게 전하며 아르바이트를 가지 않으면 안되느냐고 물었지만 그것은 계약관계에 묶인 스물두살 아르바이트생이 요구하기엔 상당히 건방진 사안인지라 심드렁하게 걱정을 받아 넘겼다.

도심 속에 살면서 질퍽한 바닥을 맞이하기란 꽤나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 옆에는 생태공원이라는 게 있어 비가 올 때면 진흙 투성이의 척척한 바닥을 밟을 수 있었다. 해가 내리고 신발 앞 코에 말라붙은 흙 자국을 보면 역시 비포장도로는 싫다는 등의 불평 어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렸을 때는 내가 걷는 대부분의 길이 비포장 도로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아스팔트로 덮어버려 오히려 흙바닥인 곳을 찾기가 어려워 졌지만, 내가 살 적만 해도 아스팔트는 커녕 겨우 시멘트로 덮은 길 아니면 전부 흙 길이었다. 아르바이트를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웃긴 마음이 들었다. 괜한 청승이었다.

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편의점 전면 유리창 앞에는 커다란 식물이 있다. 역시나 태풍이 기승이라 바람이 얼마나 세차던지 그 큰 식물의 이파리가 유리창 전부를 쓸어 내리며 요란을 떨었다. 나는 오후타임이라 해질녘쯤엔 그 유리 너머로 골

목상가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주황빛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날은 그 거리가 썰렁했다. 그 와중에도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나 허리가 꼬부라져 발걸음을 재게 놀리는 할머니는 제 할 일을 했다. 엄마아빠의 유난 섞인 전화를 받고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랬을까, 그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다. 태풍이고 뭐고 일단 생업이 중요한 것이었다. 나에게나 저들에게나. 엄마도 아빠도 딸내미 걱정은 그렇게 해놓고 출근을 했을 터였다.

어릴 적 장마철이 떠올랐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 그 빗소리는 시끄럽게 거실을 울렸다. 으레 그 시절 내 또래 애들은 다 아는 그 파스텔핑크의 내복을 입고 지붕 위의 안테나가 돌아갔는지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 거실과 큰방 사이 문지방에 물이 똑똑 새던 것이 기억난다. 청록색 다라이와 기억도 나지 않는 운동회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수건을 대놓고 어린 동생과 경중경중 장애물 넘기를 하며 놀았다. 그 때의 시급은 얼마였을까. 나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는 나이였다. 지금은 8350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말이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는지 밤늦게 퇴근을 하며 본 거리는 펍 고요했다. 그 무시무시했던 바람이 지나간 자리라는 것을 대가 꺾여 버려진 우산이나 쓰러진 철제 쓰레기통이 증명하고 있었지만, 내가 걷는 그 길이 퇴근길이라는 사실이 기분을 꽤 괜찮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세찬 바람이 마냥 시원했다. 손에는 길거리에 차마 버려 둘 수 없었던 고장 난 민트색 우산을 들고 터벅터벅 밤길을 걸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적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의 공기와 비슷한 냄새가 났다. 가끔 나는 내가 스물두살인 것을 까먹었다. 나는 여전히 그 시절의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투를 썼기 때문이다. 태풍이 하늘의 구름까지 모조리 쓸어 가버렸는지 달이 유난하게 선명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때가 오늘의 과거인 것을 몰랐다.

오늘도 내일의 과거가 될 터였다.

나는 그날, 미웠던 일기를 썼다.

시금치 한 단에 대한 추억

 이 경 립

열 세 살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야기다. 지금은 아주 변화한 서울의 요지가 되었지만 그 때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빈촌이었던 연세대 부근 쌍굴다리 뒤에 우리 가족이 세들어 살던 집이 있었다. 나는 안동에서 중학교 일학년이 다니다가 모든 것에 실패한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왔던 것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두끼 정도만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언제나 죽이었다. 엄마는 커가는 우리들의 영양이 걱정되어서인지 그래도 콩나물이나 시금치, 근대 같은 나물들을 넣고 죽을 끓이셨다. 어느 날 엄마는 돈 오십 원을 주시며 창천동 시장에 가서 시금치 한 단을 사오라고 하셨다. 시장에서 나는 삼십 환인가 하는 시금치 한 단을 샀는데 채소가게 주인이 백 환을 낸 줄 알고 칠십 환을 거슬러 주었다.

지금이나 그 때나 돈에 대한 관념이 허술한 나는 세어 보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한참을 걸어오다 쌍굴다리를 다 지나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도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내일 아침 끼니 걱정을 하시던 엄마가 머리에 떠올라 머뭇거리며 그 돈을 만지작거리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짐짓 밝은 소리로

“엄마, 나 시금치 공짜로 샀어, 그러니까 그 돈으로 쌀 한 봉지 사!”

하고는 의기양양하게 칠십 환을 내놓으며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순간 나는 그 때까지 그렇게 참담한 엄마의 표정을 본적이 없었다. 엄마는

“너 이 돈 가지고 오며 수지맞았다고 생각했니?”

하고 조용히 물으셨다. 나는 하도 심각한 엄마의 표정에 질려

“그렇지는 않지만 엄마, 이걸로 내일 아침 끼리 사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다 주면 되잖아.”

하며 변명을 했다. 엄마는 저녁 지을 생각도 않고 말없이 한참을 부엌바닥에 앉아 계셨다. 돌아앉아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엄마가 우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애 야, 내일 아침 한 끼는 이 돈으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평생 시금치 도둑이 된다는 걸 왜 생각 못했니? 배고픈 것과 도둑이 되는 것 중 너는 어떤 쪽을 택하겠니?”

순간 나는 몸둘곳을 모를 만큼 부끄럽고 무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 때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 양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빨리 이 돈 돌려 드리고 오너라.”

조용했지만 너무나 단호한 엄마의 목소리에 놀려 나는 미처 대답도 못한 채 그 길고 툭툭한 쌍굴다리를 지나 시금치 장사에게 가서 돈을 돌려드렸던 기억이 있다.

그 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금치 한 단은 내 생의 가치기준이 되었고 나약한 것 같았지만 칼날같이 단호했던 엄마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의 표상이 되었다.

그 후 수십년이 지나가 그 때의 엄마의 나이를 훨씬 넘어 산 지금 세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하고 무너지지 말아야 할 인간의 가치 기준 역시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바뀌고 있다. 이따금 나는 시나브로 사라져가는 그 '시금치 한단'의 의미를 생각하며 씹쓸해 지곤 한다.



백령도에 그 따오기 아직 노래할까



이 서 연

고향이 아니어도 고향처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곳이 있다. 인연이 깊지 않아도 깊은 인연만큼 짝하게 가슴으로 생각하게 되는 곳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내가 더 가슴으로 새겨 두어야 한다 여기게 되는 곳이 있다. 내게 백령도는 그런 섬이다.

사람마다 백령도를 기억하는 게 다를 것이다. 나는 ‘따오기’로 백령도를 기억한다. 백령도에 따오기가 사는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따오기가 백령도에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또한 나와 백령도 인연은 깊지 않다. 다만 가 보지 못한 아버지 고향이 지척인 곳이 백령도일 뿐이고, 얼마 전 영혼이 고향으로 가신 아버지의 피난시절 잠시 추억이 깃든 섬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 중에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으로 시작하는 ‘따오기’ 노래가 있다. 아버지는 백령도 노래라고 하셨다. 어린 시절엔 백령도가 뭔지, 왜 아버지가 따오기 얘기를 하셨는지 알지 못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겨울 철새였으니 아버지의 어린시절 기억에 있는 새라서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그 따오기가 천연기념물이 될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야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가 아니고, 따오기가 흰 날개를 편 모습의 섬이라 하여 백령도라 하였다는 것과 아버지가 애상적인 그 노래를 몇 번 흥얼거리셨던 건 그 섬에서 있었던 작은 추억 때문임을 알았다.

황해도 벽성군 내성면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아버지는 내성적이시고 일만 부지런히 하였던 할아버지보다 마을 이장을 하시며 호탕한 성격으로 사셨던 할아버지의 손에서 더 많이 가르침을 받으셨다. 6.25 전쟁이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가족끼리 바리바리 짐을 챙겨 떠났으나 농사를 많이 짓던 어른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해 망설이셨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장손인 아버지만 1.4후퇴 때 잠시 몸을 피했다가 편해지면 오라며 쌀 한 말을 주고 피난을 보내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일가친척들이 이미 먼저 피난을 일찍 떠난 터라 여기저기 흩어진 피난민들을 따라 나오셔서 아무 연고도 없이 훌훌 단신 지낸 곳이 백령도였다고 한다. 16세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막막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어린 숨은 백령도 어느 모퉁이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숨어 잠을 청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무리 상상을 해

도 짐작할 수 없는 일이다.

하루는 피난민들이 모여서 잠을 자는 중에 어린 아이가 울자 어느 소녀가 조용히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하면서 따오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노래를 크게 부를 리 없었을 것이다. 피난민들에게 가장 큰 고역 중에 하나가 밤에 아기의 울음소리로 피난처가 들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많은 목숨이 걸린 일이라 피난 길 숨어서 자는 밤에 우는 아기를 달래지 못하면 숨을 막아야 했다고 한다. 그다음 날 그 부모가 통곡하고 울더라도 밤에 아기를 울게 할 수 없는 것이 피난민들이 겪는 고통이자 한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그 밤중에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따오기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날 밤 어린 동생을 데리고 나온 열두어 살 정도의 소녀가 피난 길에 엄마를 잃고 우는 어린 동생을 달래기 위해 나직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마 모두가 가슴으로 그 따오기를 따라부르며 마음으로 울지 않았을까 싶다.

그 얘기를 듣고서야 아버지는 백령도가 따오기가 날개를 편 모습의 섬이어서가 아니라 그 밤에 얼굴도 알지 못하고 어디선가 조용히 들려오는 따오기 노래소리를 기억하기에 ‘따오기 섬’이라 하셨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진 그곳에서 몇 밤을 보내고 인천 송도로 들어와 지내는 동안 쌀이 떨어지면 밤에 백령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백령도에 있으면 전쟁이 끝나자마자 고향에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겼었다고 한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가 더 이어지는 동안 야간에 몰래 고향을 다녀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서 포기하고 전쟁이 끝나길 막연히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인천 송도 큰길에서 서울로 가는 미군 트럭에 무작정 실려 서울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에 닿게 되었다. 그것이 미군부대로 배치할 청년들을 모으는 트럭인 줄 모르고 탔다가 그대로 아버지는 미군에서 지내시며 6.25 참전용사가 되셨다. 휴전 후 다시 정식으로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어 아버지는 다시 한국 군대에서 군복무를 마치셨는데 첫 직장인 서대문우체국이었다고 한다. 그곳서 마침 우편물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온 미국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미군부대에서 어린 나이에 복무할 때 잘 돌봐 준 장교였다고 한다. 그분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자 통일이 쉽게 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으로 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셨다고 한다. 당시 아버진 피난 후 몇 분의 당숙을 찾긴 했으나 모두 하루 벌어서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집안의 장손이 찾아와도 챙기질 않는 현실에 아주 난감하고 막막함이 컸었다고 한다. 아버진 든든한 연고자 없이 학업도 계속하기 어렵고, 거주지도 여기저기 옮기며 지내던 터라 아버진 미국서 공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 없냐는 그분의 제의에 모든 것을 접고 김포공항까지 가셨

단다. 그분이 출국 수속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공항 로비에서 짐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호외뉴스와 그 뉴스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는 것을 보면서 미국행을 포기하셨다고 한다. 그대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 다시는 고향을 갈 수 없고, 부모도 만날 수 없다는 마음이 황급히 들어 미국으로 떠났다가 휴전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비행기를 타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죽음을 눈앞에 둘 때까지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다시 부모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처지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말년에 투병하실 때 가족들과 혹은 나와 백령도까지는 가 보지 못해도 강화도는 자주 가셨다. 섬 어느 끝에서 멀리 보이는 황해도 능선을 보면서 “저기가 고향인데... 이렇게 가까운데...”하셨던 날들이 수두룩하다. 하루는

“아버지, 그때 미국을 가셨다면 아버지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여쭙 적이 있다.

“그랬겠지. 그때 미국으로 갔다면 인생이 완전히 지금과는 달랐겠지. 하지만 말이다. 그때 갔다면 너 같은 딸을 얻진 못했을 거다.”

“아~아버지!”

아버진 지난 5월 시인인 딸에게 시가 돈이 되지 않더라도 시가 되는 시인이 되려면 네 자신이 시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조용히 먼 길을 떠나셨다. 아마 백령도를 돌아 고향으로 영혼이 떠나셨으리라 본다.

지금은 이렇게 내 가슴을 흔들어 놓는 아버지의 사랑에 백령도 소식만 들어도 고향소식을 듣는 듯하다는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 백령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백령도에 혹시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따오기가 있을까? 자신의 날개를 편 모습을 닮은 백령도에 따오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줄시 하나 남기며 따오기 노래를 불러본다. 가슴에 품은 백령도의 모습처럼 천연기념물 따오기처럼 내 날개도 펴 보리라.

아버지 가슴으로 품은 고향 백령도
이제는 내 가슴속 고향으로 품으리라
따오기 날개를 편 듯 날아오를 나를 위해

- 줄시 '아버지와 백령도' -

자유인, 그리스인 조르바를 만나다.



김수원

2019년 6월에 계간문예에서 그리스 여행 중에 크레타 섬에 가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집필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과 그의 유품을 전시한 박물관을 들러 봤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감동을 안고 있던 참이라 여행의 발자취가 더욱 뜻 깊었다.

카잔차키스의 무덤은 크레타 섬의 외진 언덕 위 사각형 돌로 쌓아 만든 초라한 무덤 이었고 그리스 정교회에서 파문 당한 사람들의 무덤에만 쓰인다는 수수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워놓은 것이 유일한 표시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호인데 멋진 동상도 없고 화려한 치장도 없는 적막하고 쓸쓸한 마른 바람만이 맴돌다 가는 곳 이었다. 대신 진홍색 부겐베리아가 정열적으로 피어 무덤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모두 큰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념도 하고, 한국에서 가져간 소주를 한잔 씩 올리며 그의 문학적인 업적에 문인으로써 존경심과 예를 갖췄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쓰여 있었다.

생전에 자유 의지의 실천을 노래했던 조르바의 정신을 표현한 묘비문을 미리 써 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작가 소개 :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년)

그리스 크레타섬 이라클레이온에서 1883년에 출생했다. 당시 크레타 섬은 그리스 본토와는 달리 터키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곳에서 자라는 동안 터키로부터 독립하려는 전쟁에 휘말려 힘든 피난 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자기 해방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갖게 되었다. 여섯 살 때부터 터키의 압제를 피해 그리스의 피레에프스로 이사 했다가 다시 낙소스 섬으로 가서 카톨릭계 중학교에 다니며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배웠다. 그 뒤 고향인 이라클리온으로 돌아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테네 대학 법학부에 들어가 스물셋 되던 해에는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때부터 아테네에서 발행되는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글

을 발표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졸업 후 친구 시켈리아노스와 함께 그리스 곳곳을 여행하였다. 프랑스로 건너가 소본느 대학에서 베르그송과 니체의 철학을 공부했다. 이때 카잔차키스에게 사상적 변화를 가져 오는 시기였다.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니체의 표현대로 이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정신으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불교에 심취하여 부처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1912년 발칸전쟁이 일어나자 입대하였고 전쟁의 승리로 크레타는 독립을 쟁취하여 그리스로 편입되었다. 그의 조부와 부친은 터키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 것은 여행과 꿈 이였다고 말했다.

카잔차키스는 일흔넷의 나이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중국, 일본, 팔레스타인,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를 여행했다. 여행을 하면서 육체와 영혼의 대립이다든가 정신과 물질의 대립 속에서 조화로움을 찾으려고 애썼다.

이 무렵 카잔차키스는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중국을 거쳐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독일에서 1957년 일흔 네 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자전적 소설로서의 “그리스인 조르바”

1917년 카잔차키스는 스위스 여행 중 니체에 심취하게 되었고 스위스 취리히 그리스 영사인 스타브리다키의 집에 머문다. 1차 세계대전 후 공공복지장관에 임명되는데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캅카스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을 볼셰비키 치하에서 탈출 시켜 송환하는 것 이었다. 이때 스타브리다키와 구조팀을 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광부로 살면서 고생한 알렉시스 조르바스를 만나게 된다.

카잔차키스는 뒷날 이 경험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고 했다. 그 후 1934년 독일이 그리스 본토를 점령한 뒤 크레타를 침공하였다. 그는 독일군에 의해 감금당했다. 그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군에게 감금당해 있던 무렵 이었다.

카잔차키스는 세상 인연을 끊고 궁핍과 절망을 에너지 삼아 작품에 몰두했다. 그리고 현대의 고전으로 평가 받는 작품을 창작 했던 것이다.

1. 작품의 배경 : (그리스 크레타 지도 자료)

1889년 크레타 1차 민중 봉기(오스만 제국의 지배)

1897년 크레타 2차 민중 봉기(터키 몰아냄)

1912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 그리스 본토와 합병

1914년 세계 1차 대전 (영국, 프랑스, 그리스 상륙)

1919년 터키와의 전쟁 (그리스 패함)

1939년 세계 2차 대전 (무솔리니 침공, 독일 침공)

1946년 그리스 독립

등장인물 분석하기

나: 소설의 서술자, 그리스계 영국인, 금욕적인 불교신자, 이상주의적 지식인.

* 조르바: 주인공, 알렉시스 조르바스, 요르기오스 조르바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함, 마케도이나인, 카잔차키스와 조르바스는 영혼의 동반자.

* 오르탕스 부인: 조르바의 애인, 프랑스 여성, 아들렌 귀타르라는 프랑스여성을 모델로 함.

* 파블리: 미망인 소르멜리나에게 청혼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물에 빠져 죽음.

* 자하리아 수사: 수도원에 불을 지르고 도망침. 나중에 바위에 떨어져 자살함.

* 스타브리다키스: 사색보다 행동, 이론보다 실천에 무게를 둔 친구.

독후감

이 책을 읽고 조르바의 자유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며칠 동안 이 책에서 손을 놓지 못했다. 읽을 때마다 자유의 의미는 달랐고 최종은 영혼의 자유로움으로 나를 결론 냈다. 느닷없는 자유에 대한 망상 때문에 진지하고 심각 했었다.

내일 모레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유와 같은 철없는 단어는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에게서는 안정, 품위, 건강, 노후준비 뭐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러나 나는 자신에게 자문을 한다. 나는 자유롭냐고, 물론 자유롭다고 우기는 나에게 조르바는 이렇게 쏘아 붙인다. ‘아니요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당신이 묶인 줄은 다른 사람들이 묶인 줄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것 뿐이요, 당신은 긴 줄 끝에 묶여 있어요, 당신은 일상을 오고 가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줄을 잘라버리지 못해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는 ‘마음이 진실로 내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나’ 는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내 밥벌이가 되고 사회적 지위까지 얻으니 지위의 달콤함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느닷없이 다가온 '자유' 라는 조르바 식 질문에 혼란스러웠다. 얼마 전 나는 30여년을 독신으로 살다가 칠순을 앞둔 나이에 재혼을 했다.

나로서는 획기적인 인생의 일탈의 자유였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후회할 일이 생겼다. 내가 아파서 수술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입원약정서를 남편이 보증인으로 서야 해서 보호자인 남편의 얼굴에 들이대니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때 느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늙어가는 모습도 봐야 하고, 병들어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모습도 봐야하는 것이 문득 두려워졌다. 내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의식이 없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

'아니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늘그막에 재혼은 왜 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막막한 괴로운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는 나에게 조르바는 말한다.

'또 그런다, 그 따위 두려움은 '개나 물어가라지!' 다 잘 될 거야.

자 이제 나에게 질문을 시작한다. 무엇이 인생에 진정한 자유 인 거냐고...

자유와 억압은 동전의 앞 뒷면 같다고 했다. 자유는 모든 것에 자유를 말한다. 자기 몸과 애착이 자유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생, 노, 병, 사의 인생 본질의 안타까움. 인간적 애착과 죽음 앞에서 가장 애착하던 내 몸이 가장 먼저 나를 배신한다는 아득한 구속 앞에 나는 자유롭지가 못했다.

조르바는 본능에 따르라 고 한다. 조르바의 자유는 해탈이나 불교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마음의 공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인 크레타 인들은 외국인은 이방인이라고 한다. 조르바도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으로서 타지에서 막일을 하며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데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 이였을까?

조르바는 늘 인생의 화두가 질문 이였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지, 죽음은, 하느님의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화두 였다.

조르바는 자신에 대한 무한의 긍정 (아모르파티)의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친다. 아폴론적인 삶보다 디오니소스적인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 것 같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자유라고 말한다.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무한 긍정의 인간이었다.

조르바는 흥이 나면 산투르를 들고 흔들며 춤을 잘 춘다. 자기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춤을 춘다. 아무 생각도 미리 하지 말고, 생각을 없애고 순간을 즐기는

방법을 조르바는 춤으로 표현했다.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연과 삶이 하나가 되었다.

즐거리

지중해 남쪽에 자리 잡은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갈탄광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주인공 ‘나’와 마케도니아인인 조르바가 함께 지내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크레타 섬으로 가는 피라에우스라는 항구에서 화자인 ‘나’라는 인물이 항구도시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돈키호테형 인간인 조르바를 만나는 부분으로 시작 되었다. ‘나’는 소위 지식인의 부류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나는 이념과 사상에 갇혀서 살던 그런 인물이다. 매우 친했던 친구 스타브리다키스를 떠나 보내고 자신의 삶에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크레타로 갈탄사업을 투자를 하러 가는 길에 식당에서 강렬한 눈빛을 가진 조르바라는 남자를 만난다.

자유 분명한 조르바의 성격이 마음에 들게 된 주인공, 허풍 뿐인 65세 영감 인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는 조르바의 활력 넘치는 매력에 빠져간다. 둘은 크레타에서 갈탄광을 사들여 탄광산업을 함께하며 채굴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다. 크레타 섬에 도착해서 나이 많은 과부인 오르탕스 부인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거처를 잡고 사업구상에 들어간다. 그녀는 크레타 섬에 드나드는 수많은 선장들과 사귀어 왔던 여인이다. ‘나’는 낯선 곳에서 겉돌지만 조르바는 현란한 말솜씨와 능숙한 산투르 연주 솜씨로 여인숙 주인의 오르탕스 부인의 마음을 빼앗고 연인사이가 된다.

둘은 갈탄광을 개발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리라 계산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다. 조르바는 광산 개발 사업을 자기에게 맡겨 달라며 일체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나’와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조르바는 사사건건 충돌을 빚는다. 낮에도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차려 놓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춘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감성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조르바, 그리고 이와는 너무도 상반되게 이성적인 삶을 살고자 붓다를 읽고 나름의 자기 수행을 하고 있는 ‘나’가 점차 조르바의 사상에 조금씩 자극을 받는다. ‘나’는 조르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같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다가 빗속을 헤매는 아름다운 젊은 과부 소멜리나를 만난다. 그녀는 외모 때문에 마을의 사내들에게 구애가 끊이지 않는다. 마을 장로인 마브란도니의 아들인 파블리가 젊은 과부 소멜리나를 좋아한다. ‘나’도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갖는다. 조르바는 망설이지 말고 만나보라고 하지만 ‘나’는 적극적이지 못한다. 소멜리나는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조르바는 광산 케이블을 설치하러 필요한 장비를 사러 시내로 떠나고 그곳에서 술과 여자에 빠져 나(두목)의 사업자금을 탕진 한다 조르바는 나를 두목이라 부른다. 오르탕스는

조르바와 잠시 헤어지는 것도 아쉬워한다. 조르바에게 편지가 왔다는 소식에 ‘나’를 찾아와 편지 내용을 물어보나 ‘나’는 거짓말로 조르바가 오르탕스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한다고 위안삼아 말한다. 그 즈음 젊은 과부 소멜리나를 사랑하던 파블리가 그녀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후에 바다에 빠져 자살한다. 마을 사람들은 흥분하여 그녀를 위협한다. ‘나’는 그녀를 옹호 하지만 광분한 마을사람들 앞에 그녀를 지켜낼 용기가 없었다. 마침내 조르바가 돌아오고 케이블 설치를 위해 수도원장과 계약을 하러 수도원을 방문하고 하룻밤을 묵는데 의문의 총소리를 듣는다. 젊은 수련사가 간부급 신부에게 살해된 것이다. 부활절이다. 오르탕스 위해 파티준비를 하지만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는다. 조르바는 문병을 다녀오고 ‘나’는 소멜리나 과부를 만나 밤을 함께한다. 그 사실에 조르바는 ‘나’를 지켜세운다. ‘나’는 그녀를 만난 후 육신의 즐거움이 정신의 즐거움으로 변하는 경험을 한다. 영혼과 육체의 즐거움이 하나임을 체험한다. 마을 사람들은 소멜리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녀를 죽이려 한다. 조르바가 막았지만 파블리의 아버지가 소멜리아의 목을 잘라 죽인다. 오르탕스마저 병으로 죽는다. 마을 사람들은 몰려와서 그녀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몽땅 가져가고 조르바는 그녀의 임종을 지킨 후에 오르탕스가 아끼던 앵무새를 데려온다. 준공된 케이블의 기공식에 철탑이 현장가동 시험 중에 무너졌다. 광산사업이 망했다. 조르바는 낙담을 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춘다.

‘나’는 소설이 시작될 때 등장했던 스타브리다키 친구가 꿈에 나타나 그가 죽을 것을 예감한다. 폐렴으로 사망이라는 전보를 받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느끼고 ‘나’는 조르바에게 연장 등을 선물로 주고 각자의 길을 찾아 크레타 섬을 떠난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헤어진 지 5년 뒤 ‘나’는 조르바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는다. 조르바는 최후의 순간까지 ‘나’를 생각하고 분신처럼 아끼던 악기 ‘산투르’를 남긴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처음에 조르바에 대한 묘사를 보면 누구나 그의 행동과 모습에 놀라고 기인이라고 느낄 정도이다. 물레를 돌리는데 손가락이 걸리적거려서 직접 도끼로 잘라내었다는 그를 보면서 아마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책장을 넘길 때마다 조르바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식을 쌓는 지식인과 무식하고 단순한 조르바와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인생이야기가 흥미를 준다. 주인공과 조르바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둘의 대화는 마치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주인공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어 온 사람이다. 그는 책에서 그저 진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조르바는 자기 식으로 삶을 즐기면서 인생을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작품은 정 반대의 인물이 중첩되어 흘러간다. 이성적인 행동과 본능적인 행동, 고용주와 고용인, 젊은이와 노인으로 대비되는 삶이 유쾌하게, 때론 가슴 저미도록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20세기 초반, 크레타 섬,이라는 시공간 배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성찰하게 만드는 수작이다.

결론

1946년에 출간된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의 대표작이다.

카잔차키스는 소설11권, 서사시와 희곡22편, 수필집9권, 아동소설 및 기행문 등 많은 작품을 남기고 1957년 사망했다.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개체인 세계를 하나로 아우러 절대자유를 누리자는 불교사상은 그의 3단계 투쟁 중 마지막 단계였다. 그리스인 조르바, 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파문 당하기도 했다. 그는 그리스 정교회인 교황청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의 대표작 미칼레스 대장,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1951년과 1956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문학상 후보에 지명 되어 문학성을 인정받았으며 작품으로는 오디세이아,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성프란치스코 영혼의 자서전, 동족상잔이 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이 이처럼 초라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리스 정교회가 사수하려는 우상화 된 예수 때문 이었다.

위대한 영감을 가진 한 지성이 파문을 당해 세계를 유랑하며 낯선 나라에서 죽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카톨릭은 죽음 뒤까지 가만두질 못하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의 시신을 사랑하는 조국의 전통으로 장례까지도 치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을 지킨다는 점에서 파문 효과와 승리를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초라한 돌무덤으로 생색을 내며 챙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종교적 타부를 뛰어넘어 표현의 자유를 한껏 펼친 니코스의 자유로운 영혼은 웨스트민스터사원의 화려한 지하 묘보다 한적한 바닷가 동산에 자리한 초라한 그의 돌무덤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카톨릭에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정죄할 때 니코스가 말했다

“하나님을 법정에서 상소 하겠습니까” 라 외치던 당당한 자유인...

“사람은 심연에서 왔다가 심연으로 간다. 이 두 심연 사이를 우리는 인생이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르페 디엠”을 외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했다.

“나는 순간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도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명언이다.

그는 종교적 이기보다 영혼의 자유인 이였음을 그의 책 “영혼의 자서전”에서 여러 번 마주치게 된다. 스스로를 완성하고자 끝없이 방황하는 지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신부의 종부성사를 거부하고 신부에게 저주나 내려주고 가라고 유언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세상의 어떤 신 앞에서도 자유롭고 당당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고대 그리스의 민족시인 호메로스, 앙리베르그송의 자유의지, 프레드 니체의 초인주의, 부처의 무소유 사상이 작품 속에 녹아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사상의 기반을 이룬 소설이라고 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는

I hope fo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I fear fo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I am free. 나는 자유다. 라고 쓰여 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



라틴어 속에 담겨진 행복 찾기

 태 동 철

라틴어 =Latin language는 인도 유럽어족의 이탈리아 어족에 속하는 로마인의 언어로 B.C 1세기 이후 로마제국의 공용어로 통용 하였고, 로마 교회에서 종교 문헌과 학술어로 쓰여 왔다.

따라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영어 등 게르만 어족의 공용어로 쓰이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럽 언어의 기본적 어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라틴어의 어원은 뜻이 심오 하다 라틴어의 공부는 학술, 철학, 법률 의학등 전문용어로서 폭 넓게 쓰이고 있다.

금년 초에 한동일 교수가 지은 [라틴어 수업]을 읽었다.

그 속에서 “Beatitudo” = “베아티투도” 라는 단어 즉 “행복” 이라는 단어에 눈과 마음이 확 이끌려서 조심스레 새겨 읽었더니 숨이 머질듯 공감대가 깊었다. 그 문장은 아래와 같다.

“베아티투도= Beatitudo” 라는 라틴어가 있다 “행복” 을 뜻하는 단어인데 베오Beo 라는 동사와 아티투도=Attitudo 라는 명사의 합성어 입니다. 여기에 “비오” 는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라는 의미이고 “아티투도” 는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즉 베아티투도 라는 단어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복을 가져올 수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 라틴어 수업 — 에서 발췌

위 이 글귀를 몇 번 되풀이 읽고, 생각하고, 생각했다. 나,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다. 이 행복이 어떻게 나에게 안겨 있나?

[Atitudo]= [태도와 자세와 마음 가짐] 에서 나를 대입 해 본다

태도와 자세에서, 1950년대 초 가난에 허우적 대던 농촌에서 아버지 잘 만나 학업의 길 터 줄 때, 학구적이며, 의지력 강하게 마음 다잡은 자세에서 군 복무 중에 대학 마치고.. 학사 받으면서 공부 길 이어가니 행복하다

바른 자세의 몸과 마음 가짐에서 .. 옛 어르신들 말씀 속에

“머슴을 들으려면 마당 쓰는 자세” 를 보고 고용했다. 마당 쓰는 자세.. 실제 내가 실험

해 봤다. 비를 바짝 누이고 허리 굽혀 살짝 밀어내는 낮은 자세 이어야 함을 체험으로 안다. 허리 펴고 빗자루 세우면 ..마당 쓰는 자세가 아니다. 테니스 운동 할 때 기본 자세의 틀에서 부터 지적하고 코치 받는데 .. 허리 낮추고 무릎 굽히고 두 손 모아 라켓트 잡고 .. 어깨 힘 빼고, 목을 부드럽게 .. 자세가 바르게 살아야 공이 살아서 예쁘게 넘어가고.. 생업에 종사하던 건설현장에서 터득한 자세와 마음 갖음은.. 눈금 하나만 어긋나도 건물이 못 올라가는 그 정직함과 바른 자세, 건설현장의 기본이다... 해서 건설업자는 정직하면 안 망한다. 망한 건설업자는 자세 불량인 아닌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배움의 자세는 늘 독서에 게으르지 않았다. 내 자신 머리가 둔해서 배움의 활용이 더디니 출세에는 뒤지고 있지만 내공 다짐에 만족하고 행복하다 특히 고희의 나이에도 만학으로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의 이수생은 인문학의 접목으로 직관 능력의 제고는 시인의 무게를 더 한 행복의 출발선이다.

그뿐 아니라 생업의 현장에서도 처자식 배 고프지 않게 살게 하려는 마음 자세로 결혼 전에 논 마지기 장만하여 처자식 식량을 담보한 그 준비가 지금 열 자식 효도 부럽지 않다. 행복이다. 또한 젊어 열사의 중동에서 13년 인고의 세월, 그 땀방울이 지금 황금알이 되어 노후경제가 단단하니 이 또한 행복이다 직장 생활에서 수처작주=隋處作主의 자세와 마음 갖음은 정년 퇴직 후에도 10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져 늦은 나이에 직장에 있었다. 행복이다.

한참 젊은 시절 외화기운 싱싱 할 때 연애 눈짓 많았지만 한 눈 안 팔고 아내 사랑 극진한 그 자세가 지금 재혼을 성사시켜서 노후 삶이 행복하다 53년 같이 한 내자가 나의 바른 자세에서 자신이 마음 상하지 않고 살아서 행복했고 고맙다는 말 듣고 행복했다

내 삶의 태도와 자세는 이렇게 살아왔기에 지금 노후에 행복하다 그래서 [Beatitudo]는 나의 마음을 확 잡아들이고 있다. 공감 한다 그 뿐 아니라 “마음 가짐”은 어떠했던가? 인생 삶은 고해라 하면서 고해를 헤쳐나가는 정답을 찾아 두리 번 거리지만 인생살이 정답이 없기에 신(神)도 많고, 종교도 가지 가지며, 백인백색의 말 많은 것이 인생 살이지만, 방향성은 분명 있다. 그 방향성에서 나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 긍정적이며, 밝고 맑게 미래지향적 사고는 가치 창조의 밑거름으로 행복의 씨앗을 잘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여 행복하다. 살다 보면 서로 부딪칠 때가 있다. 한 발 물러선다, 관점을 달리 해본다. 테니스 경기에서 라인 근처에 떨어진 공, 죽었냐? 살았냐? Out? In?. 다툼에서 현재 이기고 있는 편에서 양보하는 후덕은 곧 미덕이 되어 행복하다. 등산 길에서 오름 막 시작 10분 내지 20분

사이에 가파른 오름에서 배낭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장단지는 굳어지고, 땀 흐름의 질척함에 더 오르고 싶지 않은 권태, 권태 되돌아 가고 싶은 충동 명분만 있으면 하산 하고 싶다. 참아라 포기는 패배다 움직여라 인내해라 내 안의 마음 갖음은 갈증 만큼이나 갈등에 권태로워지는 등산 길이었다. 등산 3년 만에 터득한 진리.. 산에 붙으면 내려 오더라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해도 일단 붙으면 내려 온다. 굽이 굽이 고개마루 넘나 들다 보면 곧 내려와서 발 쪽 벌은 그 편안 함, 개운함, 상쾌함이 인생 살이가 등산 길과 같지 않겠는가? 의지력과 긍정과 인내의 마음 가짐은 나를 건강 하게 하고 편안케 하며 행복하게 한다.

이를 미루어 보아 -Beatitudo = 행복은 평소의 태도와 언어습관 마음 갖음의 총 집합체다. .. 옳거니 ..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 하구나! 행복하다. 이 행복을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마음 가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라틴어 수업 다음 장을 열어본다.

De mea vita =데 메아 비타 =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시간 속에 Vive hodie = 비베 호디에 = 오늘을 살아라, 끊임없이 희망 하라, 너의 인생도 소중하다.

Desidero ergo sum =데지데로 에르고 쉼 =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 한다 끊임없이 가치 창조의 사념思念속에 관조의 능력을 채근하며 산다. 행복이다.

Dilige et fac quod vis = 딜리제 에트 팍 퀴드 비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Beatitudo을 라침판 같이 소중히 여기며 인생 향로를 가고 있다.

Desidero sed satisfacio = 데지데로 세드 사티스파치오.....

욕망한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인간들은 현실에 존재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어떤 욕구의 그림을 상상력으로 그려 가면서 이를 현실화 하려는 사유와 능력,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상상력 속에 그려지는 그 무엇, 실체가 언어가 되고 그 가상을 통하여 예술과 과학적 기술이 다채로운 삶을 체험 하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 행복’ 이라고 하는 것, 만질 수도 없고 도달 할 수도 없는 그 상상의 그림자에 매달려 행복을 갈구하는 그 목마름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겠다. 하여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하고 그 것을 통하여 성취와 만족을 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이 행복 추구에 성공한 일본의 최고 경영자 [이나모리 가즈오] 님이 경영철학으로 쓴 [카르마 경영]에서 그가 실행한 행복 추구의 성과물을 살펴본다.

일이 성과물 = 행복창출 = 인생의 결과물 = 사고방식*능력*열정

이 공식에서 핵심요소는 사고방식과 곱셈이다. 사고방식의 기본은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사념(思念)이 업(業)을 만든다.]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 되며, 그 결과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펼쳐지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일이 없음을 [우주의 법칙]이라 말한다.

-카르마 경영에서 발췌-

[교세라] 그룹을 창업하여 세계100대 기업으로 일궈낸 후 거리의 탁발 승으로 돌아간 성공한 기업가가 들려주는 삶과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내 삶의 흔적들을 이 공식에 대입해 보았다. 사고 방식의 방향이 인생의 모든 방향을 결정 한다. 내 사고방식은 긍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이고 밝음에서 방향성은 옳았는데 열정에서 미진 했다. 컵라면도 100℃에서 끓은 물이래야 음식으로 존재 함을 명심해야 했다. 잠재능력 개발은 두고두고 개발해야 할 가치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곱셈이다. 마이너스에 곱하면 결과는 마이너스다. 사고방식이 나쁘면 아무리 큰 열정과 재능이라도 결과는 낭패 실패다. 복 비가 내리고있다. 그릇 따라 복비는 쌓이고 넘치고 흐른다. 따라서 바른 꿈, 생각을 크게 가지고 열정을 높여 그릇을 크게 만들면 복비는 저수지에 물 고이듯 당신의 삶에 넘실넘실 행복은 넘치리!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행복하다. 행복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본다.

행복의 의미를 점점 하고픈 사람은 한동일 교수가 쓴 [라틴어 수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카르마 경영]을 읽기를 권합니다.

[인생은 사람이 생각한 것의 결과다] - 카르마 경영 P41

가정환경의 위기, 예견되었거나 자초한 문제



김 홍 규

I

식물에게는 뿌리가 옮겨 지거나 씨앗이 떨어진 곳이 곧 삶의 터전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가정환경은 식물에게 있어서의 토양과 같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부모의 문화 수준만큼 가정환경의 토양이 천차만별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문화적·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으로 자극 받고, 생각하면서 노력한 만큼 성장·발달·성숙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국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변화의 격랑(激浪)에 휩쓸리어 국가사회의 건강성 문제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성숙의 지표요 인품의 자질로 서의 경로효친 사상, 위계질서로 서의 연장자 및 상사에 대한 예우를 중요시한 가정문화는 우리만의 자랑스런 토착 문화였다. 선진국 가족관계 학자들도 이같은 가정문화를 높게 평가했으며, 200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서구사회 노년층이 한국의 가족관계 문화를 부러워 한다는 언론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그런데 사회변화의 병리적 역기능으로 가정환경의 건강성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인간의 제1교실인 가정교육이 약화·부실한 상태이며 가훈(家訓)은 사라진 지 오래다.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나라로 고속 질주 중이다. 이같은 현실에 주목하여 가정환경의 문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까 한다.

II

첫째, 우리의 가정환경이 건강했던 것은 '한국적 미풍양속(美風良俗)'때문이었다.

"부부가 위로는 조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도로, 부부 상호간은 사랑과 존중으로, 아이들에게는 너그러움과 인자한 자세로 최상의 자애(慈愛)를 베풀면서 양육했다. 그것을 아들과 며느리는 도리와 사명감으로 받아 들였고, 남편과 아내는 본분과 역할로, 사위와 출가한 딸은 당연한 윤리와 책임감으로 생각하면서 각 자가 최선을 다 했다. 그 같은 부모들의 모습

을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보고 들으며 가족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인간화, 사회화, 문화화의 기초”(김홍규, 2017: 155)를 닦았던 것이 우리 한국인이다.

이같은 한국적 미풍양속은 노인과 연장자가 가정의 버팀목이었고, 문제가 발생하고 역경에 처할수록 가족이 단결하여 공동 대처하였다. 그러나 가정 민주화(?)에 따른 부부들의 행복 추구권이 우선시 되고 가족관계가 자녀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제는 가족갈등과 경제위기가 곧 가족위기, 가족해체로 쉽게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대두되고, 자녀들은 거의 방목(放牧)상태이며, 가족들의 삶은 분절(分節)·개별화 상태이고, 심각한 세대차와 사소한 의견차가 언쟁과 가정갈등으로 분쟁화 되고 있다.

급기야 쉽게 가정 해체로 악화되는가 하면, 가정 스스로 자정 능력이 약화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실종된 가정 분위기는 다양한 해체적 문제, 탈선적 문제, 구조적 문제를 양산하게 되자 서둘러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2004. 2)하고, 그 법이 시행 중(2005. 1. 1~)에 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쳤고 진단도 대처도 엉뚱하다.

둘째, 사회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변화해야 할 것이 있고, 핵심가치는 고수하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덕목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핵가족 시대를 지나 가족해체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혼율은 OECD국가 중 9위, 아시아 국가들 중 부동의 1위다. 신혼 이혼에서부터 황혼 이혼까지 전 연령대 이혼이 급증한다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런 사회 병리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공급의 사이클 형성으로 나타나 너도 나도 ‘이혼전문 베테랑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로펌’ 등의 광고 홍수 사회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

① 그 많은 이혼사건에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재판을 통해 ‘서로의 계산과 이익 쟁취’ 때문에 어제의 애정 파트너가 원수가 되고, 가족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어 그 아픔이 그대로 ‘사회적 공해’로 쌓이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당황스런 것은 ‘부부의 연’을 끊게 되는 결정적 이혼의 이유가 생뚱맞 게 ‘성격 차이 때문이다’라고 한다. 성격 차이가 문제라면, 두 사람이 ‘똑같은 나’이기를 기대했던 말인가.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격동의 사회 변혁을 체험했다. 다양한 성장·발달·성숙 환경을 겪었다. 각기 다른 부모 환경과 양육, 교육 및 문화적 체험, 역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종교적 환경을 경험하면서 성장·발달·성숙했기 때문에 양육과정의 격차, 성장·발달과정의 격차, 교육의 격차, 문화의 격차, 역사인식의 격차, 생활태도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성격과 품격, 그리고 가치관은 가정 문화의 산물이 아닌가.

② 더욱이 성(性, sex)의 원리로 결합·출발하여 자녀를 가지면서 피(血, blood)의 원리로 형성된 원초적, 운명적 집단이 가족이다. 조상·핏줄이라는 씨줄과 후손·자녀라는 날줄로 연결, 수직-수평의 인간관계가 가족인데, 내 생각과 의도대로 안 된다고 무조건 '성격 궤도 이탈하는 현상'의 급증은 우려스러운 병리현상이다. 인생이 '뷔페식당'도 아니고 부부 만남이 동호회 MT 야유회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과 언행들을 이해한다는 자세에서 출발, 받아 들일 것은 수용하고 타협·절충하며 사는 게 적응이며 성숙인의 모습이다. 돈이 좀 많고 호기심과 충동이 발동한다고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욕구와 본능에 따라 재클린과 결혼하여 후회하는 선박 왕 오나시스의 삶에서 시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지금은 국가와 국경을 초월해서 모두가 개성과 창의성 경쟁을 하는 시대이므로 다양한 사회적 표상들을 눈 여겨 보는 자질을 키워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의 언행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경쟁력이다.

-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어떤 분야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갖는가.
- 어떤 생활태도를 갖고 있는가. 의사 결정 패턴이 어떤가.
- 감각적인 사람인가 직관적인 사람인가. 느끼는 사람인가 생각하는 사람인가.
- 인식하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사람인가.
- 편향된 시각을 가진 미성숙한 사람인가 균형감각을 중시하는 성숙한 사람인가.

이렇듯 모두 제 각각이다. 아직도 획일화 평준화를 주장하는 낯 뜨거운 군상들이 좌충 우돌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① 프랑스 혁명도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그 해석이 다섯 가지나 되고(김영진, 2004:15), 그 오래된 사상가나 선각자의 한 마디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논문으로 공방을 이어 오지 않는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역사적 사건에 대해 흑백 논리에 의해 한 가지 시각만을 강요하고 있다. 다른 시각과 해석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고창(高唱)한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인구 5천 160만 명 중 210만 명이 외국인이다. 즉 국민 25명 중 1명이 외국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작년(2018)에 태어난 아기 중 다문화가정 2세가

2만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를 차지했다. 이런 시대에 단일 핏줄과 단일민족을 거론하고, 특정 지역 출신이 국가의 중요 직책을 독식하는 것은 코미디다.

② 시대는 세계인의 올림픽 경기장으로 변모했는데 우리의 정치와 사회 분위기, 교육은 동네 축구경기장에서 획일화·규격화·표준화·평준화·단색화(monochrome)에 고착되어 있다. 그러면서 구호는 개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외치고 있다. 말 그대로 언행이 따로 노니 정신병동이 아닌가.

눈을 들어 주변을 보라.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아파트의 건물 양식과 구조, 외양의 색깔과 건물의 방향,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가구, 행동방식과 취향 등이 다 제각각이다. 숙박 업소 및 같은 업종의 상호 간판이나 자가용 선택의 선호도가 개성과 다양성을 맘껏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치인이나 극소수 인간들은 70년대 청소년기 운동권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그 시기에서 성숙이 멈추어 서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독일의 제조업 특히 ‘벤츠’자동차가 왜 세계를 석권했는가. 자동차 색깔이 76가지, 내장이 697종류나 됨으로써, 그네들이 팔고 있는 상품은 자동차라기 보다는 ‘선택의 자유와 개성미’ ‘차별성과 다양성’인 것이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의 ‘시야 제로’인 그 시선의 지평이 언제 넓어질지 답답하다. 차라리 짐 리브스의 ‘먼곳의 드럼소리(Distant drum)’를 듣는 게 속 편할 것 같은 현실이다.

넷째,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도덕지능(Moral Intelligence),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위기대처 능력(Adversity Quotient)의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수영을 필수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재(人災)’라면서 위기대처능력(AQ)의 함양에 대해 생각조차 않는 교육당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①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성숙과 성적·정신적 건강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언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바른 처신이며 사악한 언행은 어떤 것들인가 등의 선(善)과 악(惡), 정(正)과 사(邪), 선후(先後)·경중(輕重)의 분별과 변별능력을 함양하는 데 비중을 두자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이다.

- “좋은 인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행동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옳은 행동으로 살아 가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 “출생 후 7살까지는 의지력을 길러 주어야 하고, 8~ 14살까지는 감정발달(EQ개발)을 시켜야 하며, 15~21살까지는 사고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슈나이더).
- “어려서는 겸손하여라, 젊어서는 온화하여라, 장년이 되면 공정해야 하고, 늙어서는 신중하라”(소크라테스의 인생 4단계론). 가정·학교·사회에서 가야할 방향이요 교육 목표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암기와 시험준비, 입시준비와 정형화된 문제 풀이의 반복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이걸 교육열도 학구열도 아닌 일종의 ‘중증 중독증’이다. 그러니 ‘학교가 학원화 되고 학원이 학교화’ 되는 코미디 국가가 되었다. 지금 지식의 수명이 2년이고 대학졸업 후 5년 지나면 졸업장은 무효가 되는 지식 반감기가 아닌가.

② 요즘 젊은 엄마들의 영아 교육열은 뜨겁다. 태교의 중요성에 힘입은 마케팅 전략의 영향이 클 것이다. 개인 차가 있지만, 태아기 때 엄마의 헤드 셋을 통해 300번 내외의 클래식 태교 음악, 시(詩), 동화 등을 들려 준다고 한다. 특히 태아의 뇌세포가 조직화되면서 시각과 청각의 반응을 보이는 임신 26주 이후는 태교 음악의 지침에 따라 바하의 바이올린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제2악장 ‘아다지오, 아리아, 라르고’,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무지크’ 태교 음악을 많이 들려 준다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로부터 약 2,000번 내외의 ‘사랑의 속삭임’(동요, 자장가, 동화)을 듣게 된다고 한다. 또한 다른 자료에 보면 최소한 2만 1,900번 정도의 “사랑한다” “예쁘다” “잘 생겼다” 라는 말을 엄마에게서 듣는다.

엄마는 약 1만 7,520번 정도 ‘뽀뽀’해 주고 약 11만 6,800번 토닥거려 주었으며, 4만 6,720번 껴안아 줌(신의진, 2002)으로써 극진한 모성애를 만끽하도록 키운다. 산술적 숫자의 진위(眞僞) 여부를 떠나 엄마의 자녀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한국의 여성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으로 박수를 보낸다.

다섯째, 가정교육의 핵심은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인격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인격과 도덕을 갖추게 할 만한 사회적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정에서 잘 가르치었다 해도 편향된 정치인, 교육행정가, 특정 이념의 교원, 저급의 미디어 등이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즉 믿음직하고 본받을 만한 정치지도자, 교육 행정가, 균형 잡힌 시각과 건전한 가치관을 갖춘 교육자, 개성과 다양성에 맞게 배려된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에서 평생 아이들을 따라 다니며 일일이 챙기고 사사

건진 감시하며 사감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고 습관은 배신하지 않으며’(공병호, 2011: 6~9), 습관을 보면 개인의 생각과 마음, 정신과 뇌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고 그 개인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얻게 된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매일 반복되는 대부분의 선택이 습관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의 삶은 습관 덩어리이며(William James, 1905), 매일 행하는 의사 결정 행동의 40%가 습관 때문이다(Duke대학 연구진, 2006)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옛 습관, 잘못된 습관이 개인과 조직을 망치게 만든다지 않는가(Charles Duhigg, 2012: 122~126; 221~236).

그래서 습관을 보면 매너리즘·개인이 보이고, 습관을 알면 인간·문화·민족들을 알 수 있다(Peter Collett, 1998; 2006)고도 한다.

반듯한 생각, 품격 있는 언행, 발전 지향적 시각, 성숙된 처신,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의 습관이 중요하다. 결국 인생은 습관을 다스리느냐, 습관의 지배를 받느냐의 게임이다.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곽금주, 2007: 4~47)라는 말이 설득력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 도덕 정서, 도덕적 판단 능력과 휴머니티, 정직성, 공정성, 성실성, 사회성 등 남들이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데 역점을 두자.

② 교육개혁은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고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며,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벌써 잊었는가? GNP 10,000달러니, OECD가입이니 하면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것인 양 거드름을 펼 때, 미국의 저명 교수에게 면박을 당한 일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한데 선진화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Michael Porter)고 오죽해야 직격탄을 날렸겠는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도, 신흥 시장 경제에 정통한 세계적 투자가 반 악트마엘도 모두 한결같이 ‘교육개혁’을 주문했다(유종일, 2007). 특히 국가 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IMD) 피터 로랑지(Peter Lorange) 총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성적표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의 훌륭한 자산은 바로 사람인데, 획일적 교육체제가 창의력을 못 키우고, 오히려 교육이 망쳐 놓는다. 사람은 뛰어난데 키우지는 못하고, ‘행동의 속도’는 빠른

데 ‘생각의 속도’ 느리고... 한국정부의 속도는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특하면 파업하는 노동 분야가 개선돼야 한다” 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빠져 정치인이 교육정책(장관)을 주관하고 일부 교육감들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으며, 학교 현장에선 특정 노조들의 활동이 힘을 얻고 있다.

③ 교육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지금의 초·중고생들이 204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주역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이며, 어떤 자질을 갖춘 인간상이 요구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정책당국자나 교육감들은 정신없이 연구·공부할 때이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나 진영논리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지금 노조활동 하면서 ‘털털리’ 할 때인가.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4차 산업의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선진사회를 위한 학생들의 자질 함양에 눈을 돌릴 때이다.

여섯째, 가정의 민주화 운동과 ‘여성학 강좌’ 에서 교육적 시사를 받아야 한다.

가정의 민주화와 남녀 평등권 쟁취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것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①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탁월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동안 가부장적 분위기의 사회에서 짓눌려 산 데 대한 반작용으로 ‘정체성 찾기’와 ‘전문성 개발’, 그리고 ‘열심히, 당당히, 하고 싶은 대로’ 개성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좋은 변화인가.

가정의 민주화 요구가 여권 강화와 남녀 평등권 쟁취로 나타났고, 결국 호주제 폐지(2005. 3. 2)와 신분 등록제 시행(2008)으로 마무리 되자 여권신장론자들은 “이제야 진정한 양성 평등, 부부 평등에 입각한 가족 제도를 갖게 될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하였다(김홍규, 2017: 15~ 23).

② 간과해선 안 될 덕목은 인간 성숙의 분명한 지표(clear indication)요 인간다워짐의 자질로서의 효(孝)와 연장자 우대정신이다. 이는 구성적 도덕의 핵(核)이요 인간다워짐을 배우는 방향과 실천적 지침(Weiming, 2005)이고, 협의(狹義)의 의미에서는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생(生)의 존중(小川晴久, 2005)이다. 그러나 ‘구시대의 잔재’라는 누명과 함께 우리의 가정문화에서 유실(流失)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케 되는 게 네 가지다..

- 20대 이상의 한국인들은 ‘효’ 및 연장자 우대 생각은 풍요하나, 그 실천은 ‘빈곤’ 그 자체다.
- 마음 따로 몸 따로 인 ‘이중적·분열적인 효 및 연장자 공경의식’을 갖고 있다.
- 헌신적으로 올인해서 키운 자식들, 노후에 그들에게서 효도를 기대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 흔들리는 동방예의지국, 실례·무례·결례·비례가 일상·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게 우리 가정과 사회의 현주소이다(김홍규, 2017: 17).

③ 매사에 음양이 공존하고 정기능과 역기능이 있듯이 가정의 민주화 운동과 여권운동의 후유증(?)으로 흔들리는 가정환경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은 ‘자초한 것’ 들이며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한 가지 예로, ‘여성의 의식화와 인간화를 위한 교육’이란 성격의 ‘여성학’이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1977)되어 석사과정(1982)까지 개설되면서 90년대 각 대학의 여성학 부흥기를 맞았다. 여성이 특별히 우수한 한국적 현실에서 주목을 했다. 그러나 2013년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여성학과가 폐지된 것은 단순히 인문학의 위기와 맞물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여성학보다는 ‘가정건강학 특강’ ‘선진사회학 특강’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경쟁력인가’ 등의 과목이 남녀 대학생들의 공통 필수 교양과목으로 설강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도 이 생각은 유효하다.

④ 올바른 가치관과 반듯한 사고, 객관적으로 사물 현상을 보는 시각을 길러 주기 위한 과목(문화심리학, 문화가 경쟁력이다)이 설강됐어야 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다양하고 필요한 자질은 복합적이다. 역사를 보는 눈, 이성을 보는 철학의 눈,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종교를 보는 눈, 기업과 노조를 보는 눈, 자연을 보는 눈(물리학), 생명·유전자를 보는 눈(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의학), 디지털 혁명을 보는 눈, 컴퓨터·인터넷의 발달을 보는 눈, 논리적·합리적 사고와 함께 계량적·수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의 눈, 사회 변화를 읽는 눈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 현상을 멀리 보는 역사적 안목, 과장과 왜곡함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과학적 안목, 넓고 도량 있게 보려는 통찰적 시각이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반쪽 역사관으로는 교육자도 될 수 없고 타인의 상담역도 곤란하다, 하물며 지도자가 된다면 그 자체가 비극이다.

예컨대 “한국 현대사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얼마나 옳고 얼마나 그른 가. 무엇이

성취되었고, 무엇이 좌절됐는가.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역대 대통령을 포함한 지난 현대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너무 과(過)에 기울면서 공(功)을 놓친 것은 아닌지”(월간중앙, 2004. 11).

일부의 과(過)로 엄청난 공(功)을 덮는 어리석은 운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청소년기 또는 학생운동권 시기에 가졌던 편협한 시각과 가치관, 프레임에 갇혀 변화와 성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III

우리는 이웃을 잘 못 만났다. 한 쪽에는 음흉·철저한 계산, 꾀 속 말로 상대를 믿게 만들고 잇속을 챙기는 탐욕스런 장사꾼의 대국, 다른 한 쪽엔 겉으로는 국화 꽃 표정을 지으며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마음에는 칼을 품은 전형적인 소비니즘 국가를 만나게 되어 기나긴 역경의 시대를 살았다.

그들로부터 961회의 침략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고, 일본이 714회의 침략(육사 사학과 편, 한민족전쟁사총론)을 했고, 중국으로부터 439회(김용운, 1994), 또는 600여 회의 침략을 받았다(김정배, 2015)는 기록도 있다.

그렇다면 총 1,314번의 침략을 당했다는 계산이다. 그 중 피해가 많았던 932번의 침략 횟수를 일반적으로 거론한다. 즉, 중국으로부터는 삼국 이전시대에 11번, 삼국시대에 110번, 고려시대 125번, 조선시대 192번, 1950년대 초(6.25 참전) 1번 등 총 439회의 침범을 당했다. 해양으로부터는 삼국시대에 33번, 고려시대 292번, 조선시대 168번 등 총 493번의 침범을 당했는데 대부분이 일본의 침략이다. 말하자면, 삼국시대에는 거의 2년에 한 번 꼴이었고, 고려시대에는 1.09년마다 1회, 즉 연중행사와 같은 큰 불행을 겪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정겨운 이웃과는 거리가 멀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웃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사회를 일컫는 키워드는 30가지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병리적 분위기가 무엇인지 시사 받게 된다.

즉, 범죄 부추기는 사회(시사뉴스, 1989), 성 폭력 세계1위(뉴스메이커, 1992), 가족해체의 시대(뉴스플러스, 1997), 폭력 공화국(뉴스플러스, 1999), 때리고 부수고 막가는 주먹사회(주간동아, 2000), 공권력 추락, 나라 꼴이 기가 막혀(한겨레21, 2000), 단속사회, 피로사회, 과로사회, 잉여사회, 탈신뢰사회, 위험사회, 절벽사회, 대리사회, 열정절벽, 위협사회와 위협 인식, 병목사회, 은퇴사회, 중독사회, 투명사회, 불신사회, 저신뢰사회, 배

신사회, 좌충우돌사회(주간한국, 1875호, 2001), 나쁜 여자 전성시대(한겨레21, 2003), 이념과잉사회, 이념공방에 포위된 사회(주간한국 2051호, 2004), 절제의 나사가 빠진 사회(최정호, 2006), 불면 권하는 사회(한겨레21, 805호, 2010), '정치 키오스크(KIOSK)시대'(중앙일보, 2011), 팔꿈치 사회(강수돌, 2013), 고슴도치사회, 서로 감시·염탐하는 사이버공안시대(파놉티콘사회/시놉티콘사회), 음모·괴담·헛소문 부추기는 사회 등 부정적 기사 제목 끝이 없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도덕지능, 정서지능, 사회지능, 위기대처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함정(늪)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선동에 쉽게 동조·영합(밴드웨건 효과)하지 않을 것이며, 속물근성(백로효과)에서 벗어나게 되고, 불필요한 과시욕(베블렌효과)에서 자유로워 지고, 쓸데없는 대열에서 빠져나오고(언더 독효과), 저급한 정치꾼들의 이벤트(컨벤션 효과)에 놀아나지 않고, 소비 욕구의 포로(디드로 효과)에서 자유로워져서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국가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가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집단(대학, 직장, 정당 등)에 이익이 되는가, 끝으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겠다(Lennick & Kiel, 2006: 6)는 자세, 이것이 성숙인의 자세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지성인의 모습이다.

친구가 좋은 점



정 영 민

친구가 좋은 점. 친구는 우정을 쌓는 것이다.

친구는 모든 면에서 나의 스승이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俗)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벽(偏僻)됨을 깨트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固陋)함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俗)기를 떨쳐 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사치 스러워져 가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친구는 모든 면에서 나의 스승이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보자.
 오늘도 멋진 친구, 멋진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자.
 친구여! 항상 함께여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친구란?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럼없이 나에게 바른말 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해주며 서로의 단점은 같이 고쳐주고
 장점은 서로 칭찬해 주면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친구이야기.

노요지마력(路遼知馬力), 일구견인심(日久見人心)
 먼 길을 가봐야 그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노요와 마력은 좋은 친구였다.

노요의 부친은 부자였고, 마력의 아버지는 그 집 종 이었다. 비록 두 사람은 주종 관계였지만 사이가 좋아 같이 공부하고 놀곤 했는데, 어느 듯 두 사람은 장성하여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노요는 재산과 세력이 있어 배필을 얻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으나 마력은 너무 빈곤하여 낙담하고 있던 차에 색시감을 소개 받았지만 예물을 구할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마력은 같이 공부한 노요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노요는 돈을 빌려 주는 대신에 신혼방에서 자신이 마력대신 3일 밤을 지내게 해달라고 하였다.

마력은 화가나 어쩔 줄 몰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응락하고 말았다. 마침내 좋은 날을 택하여 결혼식을 올렸고 마력은 고통의 3일을 보냈다.

4일째 되는 날 날이 어두워지자 신혼방에 들었으나 너무나 고뇌에 차서 베개를 끌어안고 바로 잠자리 하였다. 그런데 신부가 말하기를 “서방님, 어찌하여 처음 사흘은 밤새 앉아서 책만 보시더니 오늘은 홀로 잠 드시려 하십니까?”

마력은 그제서야 노요가 한바탕 장난을 친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후 마력은 친구에게 신세 진 것을 갚기 위해 밤을 낮 삼아 공부하여 마침내 도성에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이 아주 높게 되었다.

노요는 사람이 호탕하여 배필기를 좋아하여 결국은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들어지자 옛적에 도와준 친구, 마력을 생각하고는 부인과 의논한 후 도성으로 마력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마력은 노요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한 잔 또, 한잔을 권하며 노요가 사정설명을 하여도 듣는 척도 아니 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노요형, 형수님이 기다리시니 집으로 가야지요” 하며 노요를 집으로 돌려 보냈다. 노요는 기가 막혔지만 어찌할 도리없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동네입구를 들어서는데 자기 집 쪽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나는 게 아닌가? 부랴부랴 집으로 가니 부인이 관 하나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노요를 본 가족들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마력이 사람을 시켜 관을 보내며 노요가 급병을 얻어 약도 못쓰고 죽었다는 것이다. 웬일인가 하여 관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였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노요형이 우리 신혼3일을 지켰으니 나도 형수님을 한바탕 울게 하였소”

참 아름다운 우정이네요

한 평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훌륭한 인생이겠지요.

‘Mrs. 장봉입니다

 이 순 덕

누구의 딸로, 엄마로, 아내로 불리며 살아온 육십 두어 해,
 한학을 꽤나 하신 내 조부는 오매불망 손주를 기다리시다 손녀를 보시자 실망을 하셨던
 지 내이름을 ‘순덕으로 지어주셨고, 촌스럽게 지었다고 불평하는 내게 “논어에도 있는 순리
 에 맞고 덕스럽게 자라라는 큰 뜻이 담긴 이름이다!”라고 항변하셨다.

이렇듯 5~60년대 우리 친구, 언니, 동생들의 흔한 이름들은 순자, 명자, 영희 등이었다.
 되돌아보면 그 시절 우리의 생활은 이름이 주는 어감만큼이나 소박하고도 소박한 삶이
 아니었는가 싶고 그래서 촌스럽다 기보단 정겹기까지 한 그런 이름들이다.

또한 우리들의 전세대의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는 고유이 이름 대신 살았던 곳이나 남편
 의 고향등 지역이나 마을 이름을 앞에 붙여 ‘○○댁’으로 불려졌던 세대였었다.

이 또한 그 시대의 정서에 맞는 정겨운 호칭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누군가 내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불려줬던 호칭 ‘장봉댁’엔 거부감이 없다.
 너무도 내 어릴 적 살았던 고향을 닮은 이곳 장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년여 세월을 살고 자칭 ‘장봉댁’이라고 하면 여기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인
 정을 받지 못할까 싶어서 트릭을 써서 불러보는, 자칭 ‘Mrs. 장봉’이다.

이렇듯 난 제2의 고향 장봉을 사랑한다.
 누군가 내게 어디서 살고 이름이 뭐냐 고 물으면 이렇게 날 소개할 것이다.
 ‘예~, Mrs. 장봉입니다’라고.

영흥도 버더(드)니 마을 이야기

 신 명 언

옛 주소로 인천 웅진군 영흥면 내4리를 ‘버드니’로 통칭해왔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버드나무가 많았던 마을로 버드나무마을을 줄여 ‘버드리(里)’에서 버드니로 바뀌어 불리어진 것이다.

버드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많고 바람이 적은 마을임을 말해주고 있다. 버드나무는 양기가 강하다고 하여 귀신이 싫어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영흥도는 영(靈)신이 흥(興)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다. 많은 귀신을 쫓기 위해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인지 높은 산 정상마다 ‘당고사’를 지내던 소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기도 했다.

이처럼 버드니는 국사봉과 망태산, 노적봉에 둘러싸여 있는 동네로 이들 산에서 흐르는 물들이 버드니 마을을 지나가기에 물맛 좋은 우물도 많았고, 중앙교 아래로 냇가가 형성되어 흐르고 있다. 지금은 이 냇가로 한 개의 마을이 내, 외4리 두 개의 마을로 분리되었다.

버드니의 각 고을의 지명 또한 특이하다. 태나골, 탑골, 중박골, 절골, 당제골, 버드니, 터골, 강낭골, 백력골, 붉은노리 등 그 고을 별로 건물과 시설, 제례, 생산물, 고을 생김새 등으로 명명되어 졌다.

또한 버드니에는 60년대말 면사무소가 화재로 소실되기 전까지 소재해 있었고, 국민학교와 지서, 보건소, 우체국 등 영흥면의 중심부로 기능해왔다.

특히 본 고를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70년대 초부터 매년 8.15 광복절을 맞아 마을 잔치를 겸해 체육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출향민들로 구성된 ‘버더니가족회’와의 친선 교류는 영흥도의 다른 마을(里)향우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네 큰잔치’에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남녀노소가 초등학교 교정에서 뛰고 먹고 흥겹게 한 가족이 되어 하루를 즐긴다. 가족회에서 준비해온 타올을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고을별로 준비한 각양각색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 낚시대회 등은 잔치 한마당이 백미를 이룬다.

지금은 버드니 마을에 새로이 아사 온 분들이 많아져서 시들해졌는데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버드니가족회 임원들은 연례적으로 70대 동네 어르신들에게 내복을 선물하기도 했다.

〈추억의 카페 글〉

매년 8.15 광복절이 되면
그 뜨거운 피약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다름 아닌 영흥면 내4리 주민체육대회이다



금년으로 37년째를 맞이하는데
영흥에 거주하는 내4리 주민과 출향민이 참여하여
반대향 축구대회와 여성 노인 아이들이 참여하는
미니올림픽 경기가 진행된다

몇 년전 KBS 내 고향 6시 프로에도 소개됐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행사이다.
심신을 단련하는 것도 있지만 반별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도 함께 나누고 정감어린 대화와 춤과 노래 등..

2008년 8월 12일



1992년 8월 20일 버드니가족회 준비위원회가 꾸러지고 그해 9월10일에 가족회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고 초대 회장으로 임정일씨가 취임했다. 그리고 2대 회장으로 태동철(웅진군 문화원장)씨가 취임했고 이후 15대까지 후배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가족회 이름이 말해주듯이 한 가족처럼 만나면 정겹고 옛날 추억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추억은 명절 때에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다니던 시절 이야기가 가장 많다.

그래서인지 다시 여객선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된다. 벌써 상상 속에는 갈매기 떼가 안내하는 뱃길을 따라 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갑판에서 팔미도를 바라보고 있다.

소청도

 이 은 철

이곳 소청도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소암도(小岩島) 라고 하였다가 그 이후 대청도와 가까운 작은 섬이라는 뜻으로 소청도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일찍이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1960년대 말까지도 흰쌀밥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명절 또는 생일 때나 먹어볼 정도로 배고픈 시절이었다. 주식이 주로 고구마·홍합·깍죽이 해초류 등이었다. 당시 천주교 백령본당 신부로 미국에서 건너온 부영발 신부가 학교 동창 친구인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구호물자 지원 요청으로 입을 것, 먹을 것을 지원받아 허기를 달래였으며 신자 수 또한 많이 늘었다. 소청도 천주교 뒤의 동산을 보면 동백나무 군락지인(수령 약200년)당산에 우리나라 초대 신부인 김대건(세례명 안드레아)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당산 이라고 불리어 지는 이곳은 옛날 조상 님들께서 정월 대보름이면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지냈는데 1960년대 까지도 행하여 왔다. 당시 어업은 주로 홍어 잡이를 많이 하였는데 저장 방법이 없어 홍어 내장을 제거하고 바닷가 자갈밭을 파헤치고 벧 집으로 짠 쌀 가마니를 깔고 그 속에 홍어를 차곡차곡 넣은 후 쌀가마니를 덮고 자갈을 덮은 뒤 5~6일 정도 지난 후 파헤치면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눈·코를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것을 바닷물에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여러 배의 것을 모아 큰 배 한척에 모두 실어 전라도 법성포 또는 고평 등지에 가서 보리쌀·좁쌀·타이어고무신·비누·성냥 등을 물물 교환하여 왕복 약 30~40여 일이 걸려 오랜 기다림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리고 조상 님들께서는 지혜롭게 홍어 애(홍어 간)를 가마솥에 끓여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다.

이곳 소청도는 오랜 세월 밥을 짓거나 빨감으로 풀 나무를 베어 사용 하였기에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다. 1980년대 연탄(19공탄)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나무를 베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으로 소나무를 심어 지금은 산속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성하다.

언제부터인가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중·고등학교를 육지로 보내게 되고 졸업 후 직장도 갖게 되면서 점차 생활이 나아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어 의·식·주와 기반시설, 교통수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

소청도는 서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1908년)등대가 있으며 2018년에 준공이 된 국가철새 연구센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약 8억년) 화석 지구 최초 생명체인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 활동에 의해 생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석회암이 있어 지난 6월 28일 국가지질 공원으로 승인되어 지질학과 학생은 물론 사진작가, 탐사가 등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소중한 자연 유산을 잘 보전하며 관광 산업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웅진군 산악연맹

김 현 기



2011년 6월 창립한 영흥국사봉산악회가 벌써 8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납부로 자격을 득한다.

2011년 103명, 2012년 130명, 2013년 178명, 2014년 118명, 2015년 105명,

2016년 115명, 2017년 143명, 2018년 186명, 2019년 181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매월 정기산행과 매년 1회 특별산행 등 100회 이상 산행을 진행하였고 (주)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산악회와 연합으로 연합 산행도 4회 실시했으며 2018년에는 두 산악회가 연맹을 구성하여 웅진군 산악연맹을 창립하여 (사)대한산악연맹 인천시산악연맹에 정식 등록하였으며 웅진군체육회에도 등록했다.



웅진군 산악연맹으로 발전하면서 매월 정기산행을 타지역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산악회를 우리 지역 웅진군 영흥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영흥도 알리기 등산대회를 2018년 1회 등산대회로 실시하였다.

처음계획은 150명 정도로 간단히 하려고 했으나 호응이 좋아서 250명의 산악인이

참여하였다.

2019년은 영흥발전본부 산악회의 도움으로 발전소 내 운동장과 벚꽃축제 형식으로 제2회 영흥도 알리기 한마음 등산대회를 진행하여 예상인원 500명으로 시작했으나



65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잘 진행됐다.

이 모든 행사에 재능기부로 도와 주신 지역 주민과 기부금과 물품으로 후원하여 주신 소상공인 및 유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또한 온몸으로 봉사하신 산악회 회원 및 임원진에게도 감사드린다.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행사가 된다고 본다.



내년에도 제3회 등산대회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는 각 면을 돌면서 등산대회를 하여 용진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6개면에도 산악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영흥국사봉산악회와 영흥발전본부산악회 발전을 기원하며

용진군 산악연맹 파이팅~~~~

제2회 웅진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진대회 “대상”

박 용 만



2019년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웅진군 청 효심관에서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동아리 경진대회의 열기로 효심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참여한 프로그램은 난타(1) 풍물(5) 연주 (3) 댄스(1) 합창(1) 7개면 12개팀 이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 공연이 끝나고 최종 대상 발표 시간 모두는 진행자의 멘트에 귀를 기울이고 적막이 흐른다.

“제2회 웅진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진대회 대상은 두~두~두~둥둥 와 와 와 “60초 후에 공개 하겠습니다”

“네 공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은 백령도 풍물단 백령도 웃다리 풍물단 입니다” “모두가 대상입니다 웅진 군수님께서 트로피와 꽃다발을 수여 하겠습니다”

와 와 우리 백령도 풍물단 회원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격려하며 오늘의 대상을 축하 하였다.”

2019년 6월 17일 경진대회에 참석하기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같이 동행하기로 하고 18일 오후여객선을 예약하였는데 염려하였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기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18일 오후 출항이 어렵다.

안개도끼고 바람도 불고 곰곰이 생각해도 오후에 출항이 안 되면 모두가 수포로 돌아간다. 방법은 일단 아침배편 예매상황을 보니 여석이 많았다.

아침에 기상이 나빠 대기하다 오후에 가는 것을 전제하고 총무님께 비상연락 토록 하고 모두 연락확인하고(3명은 오전불가) 나도 간단한 짐을 챙기고 한숨 쉬기로 했다.

2019년 6월 18일 용기포항에서 회원님들의 얼굴은 모두 긴장된듯하다. 아니 늦은 시간에 연락을 받고 짐 챙기랴 악기 챙기랴 잠을 못자서일까...

인원을 확인하고 손에 손에는 자기 짐 보따리와 장구, 북, 팽가리, 징, 징잡이는 플러스 북까지 챙겨 승선하였다. 여객선 화물칸에는 우리 악기로 가득 찼다.

승선을 모두 마치고 동녘의 여명을 바라보며 살포시 눈을 감아 본다. 쿵 쿵 연안부두에 도착하니 군청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감사. 차량 승차 후 리허설 참석키 위하여 군청 효심관에 도착하였다.

각 면 팀들이 참여한 리허설을 마치고 숙소로 합숙장소로 이동하였다.

리허설을 하는 동안 다행이도 오후 발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출항하여 오전에 같이 출발 못하였던 회원과 함께 합류 할 수가 있어 다행이었다.

저녁시간 모두는 숙소를 정하고 (총무님 고생하셨습니다. 숙소 잡느라 여기 저기 엄청 뛰어 땀 흘렸네요) 여장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정하여진 시간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정해진 시간 이래저래 모두 모이는 시간과 맞추었는데 예측하지 않은 빗 방울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산도 없고 준비된 우비도 없고 우리는 숙소와 가깝고 팀이 같이 식사 할 수 있는 곳 그 곳을 찾기 위해 고 고 씽

(짧은 시간 그 과정 나머지는 회원들만 알기로 하지요)

맛난 저녁을 먹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합창을 하고 숙소로 도착하여 편히 쉬기로 했다. 그런데 식당을 나오는데 여전히 비 내림은 더욱 세어지고 회원들 모두 비에 젖어 숙소로 돌아 왔다.

그리고 각자 배정된 호실에서 편히 쉬기로 하고 굿 밤 했는데 아침에 들리는 후문으로는 어느 곳에서는 더 늦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데, 그러게요.

날이 밝아오고 효심관으로 향하는 우리 회원 모두는 더 더욱 긴장된 모습이다.

군청에 도착하니 다른 팀들의 연습 모습이 보이고 멀리서도 연습 음향이 귀를 스친다.

우리는 이미 말했듯 “본게임 전 연습하지 말자” 우리가 연습을 본게임과 같이 준비 했듯이 본 게임은 연습하듯 하자고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탈의실로 향하여 준비를 시작하였다. 모두는 하나였다. 너 나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없이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온갖무시 얼굴 머리도 서로 보아가며 준비가 완료 되었다.

공연이 시작되고 관람석에 앉아 앞선 팀들의 공연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뇌리를 스쳐간다. 잘 될 거야라는 위안을 갖고면서 대기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짧은 농담도 하고 주머니에 준비한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 주며 긴장을 풀어 주려 했다.

기다리던 우리의 순서다.

“이번에 참가한 팀은 백령도 옷다리 풍물단을 소개 합니다.”



짜 잔 !

정열을 하고

점고로부터 시작된 백령도 풍물단의 공연은 크게 울려 퍼지는 합주와 징소리에 묻어 그렇게 우리의 공연은 끝이 났다.

관객은 환호하고 우리는 잘 마무리 했나 걱정스러웠는데 사회자의 멘트에 우리

의 긴장되었던 마음을 풀어주고 관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한마디.....

“잠시만요. 팽과리 상.부쇠님은 어떤 사이세요? 서로 싸운 듯 하면서도 어찌 그래 장단을 잘 맞추는지요?”

물론 상.부쇠님은 쭈뼛 쭈뼛다

이름을 타 분위기 반전 시키는 삼쇠님

“불륜 사이입니다” 와 와 와

그렇게 우리의 공연은 끝이 났다.

마치고 퇴장하는 우리 모두는 환한 웃음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였음을 눈빛으로 서로 서로 격려 하였다.

후문으로 들었지만 백령면사무소에서는 생중계되는 공연을 보면서 대상은 이미 예견하였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금번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주신 김창원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님, 이허겸 체육회장님 및 체육회위원님, 최대정사장님, 김진식사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백령도 풍물단은 2013년도 5월 1일 창단하여 김주완 지도강사님(1대 김성민, 2대

이윤구)을 모시고 필자가 회장(1대 최형묵), 부회장 이순복, 총무 오정희(1대 홍 복)을 포함하여 24명의 회원으로 이루어 운영되고 있다.(구성원 별도) 물론 그간에 각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입단하였다가 탈퇴 하신 분들이 많지만 회원소개는 현재 기준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름은 가.나.다 순]

정 : 강인석, 이주언

팽가리 : 강부철, 박용만, 이은실, 정옥실

장구 : 김지혜, 손선주, 이매화, 이명단, 이성범, 이승길, 유옥자, 정혜진, 허미경

북 : 김영식, 박영매, 이순복, 오정희, 이인순, 전옥화, 최선화, 최형묵, 홍 복

지금까지 백령도 풍물단이 참여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09.14. 제39회 웅진군민의 날 행사기념 (백령종합운동장)

2014.08.03. 2014년 인천아시아드 경기대회 백령도 승화봉송행사 (용기포신항, 심청각)

2014.09.05. 제41회 백령면민의 날 기념행사(백령종합운동장)

2015.05.09. 2015년 어버이 날 기념행사 (백령면사무소)

2015.09.22. 제42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행사 (덕적면종합운동장)

2015.07.30. 백령중.고 해송제 (백령중.고 해송관)

2016.10.05. 제43회 백령면민의 날 기념행사 (백령종합운동장)

2016.11.10. 백령면사무소 신청사 개청기념 (백령면사무소)

2016.11.11. 2016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6여단 흑룡관)

2017.05.18. 백령다목적실 실내체육관 착공기념 (백령종합운동장)

2017.06.05. 웅진훼밀리호 백령오전 취항기념 (용기포신항)

2017.07.27. 제1회 백령도 심청효 연꽃축제 (농촌 관광효 테마파크)

2017.08.12. 제6여단 하계 해양훈련 위로공연 (백령종합운동장)

2017.12.07. 하모니플라워 취항 5주년 기념행사 (백령중.고 해송관)

2017.12.12. 백령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주회 (백령중.고 해송관)

2018.10.11. 제45회 백령면민의 날 기념행사 (백령다목적 실내체육관)

2018.12.13. 백령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백령다목적 실내체육관)

2019.06.19. 제2회 웅진군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대상”(웅진군청 효심관)

2019.07.25. 백령도성당 설립 60주년 및 인천교구 순교 신심 순례지 선포

기념행사 (백령도성당 교육관 잔디구장)

2019.08.09. 제3회 백령 심청호 연꽃축제 (심청호 테마파크, 연꽃마을)

오늘도 백령도 회원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저녁 8시에 면사무소 대피소에 마련된 백령도 풍물단 연습장으로 모이고 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박웃음을 머금고 . . .

백령도 풍물단의 정기모임은 매주 월요일이다.

그러나 현재 가을 수확기임에도 우리는 매일 북치고 장구 치고다.

제15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가 2019년 10월 24일 인천시 청 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는데 (군.구) 웅진군 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좋은 성과를 바라며

바램은 백령도 풍물단이 꾸준히 노력하여 지역사회 문화 창달의 주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백령도 풍물단 파이팅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웅진 섬자랑 맛자랑 웅진7미(味)



113개의 보물섬으로 이루어진 웅진은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7개 면의 청정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웅진만의 특색 있는 7미(味) 메뉴를 개발하고 조리교육을 통하여 웅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꾸준한 메뉴 개발을 통해 웅진의 맛을 알리고 웅진의 아름다운 경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 지길 기대해 본다.



5종

- 콩밥
- 굴 경단 순두부찌개
- 인삼 쇠고기 편채와 인삼쌈장
- 초절임 다시마 숙두부보쌈
- 두부 샤브 샐러드



3종

- 홍합밥
- 홍합 콩나물찜
- 성게 알찜





4종

- 굴밥
- 우럭해산물 찜
- 꽃게 강정
- 더덕쉐이크



4종

- 기장밥
- 굴소스를 얹은 해삼요리
- 소라꼬치구이
- 곡물에너지바





3종

- 취나물밥
- 간재미탕
- 고사리짬아찌



4종

- 단호박밥
- 단호박 매콤갈비 해물찜
- 해물만두
- 단호박 컵케이크





4종

- 바지락 영양밥
- 바지락 수라들깨탕
- 바지락 초무침
- 바지락 버섯전



서해 최북단에 숨겨진 자연유산의 보고 백령도

김기룡

백령도는 우리나라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섬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약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白翎島)의 원래 이름은 섬 모양이고 니가 흰 날개를 펼치고 나는 모양을 닮아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백령도는 북방한계선(NNL)에 인접하고 북한의 웅진반도와 가까워 흔히 38선 이북에 있는 섬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38선 이남인 북위 37° 5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령도는 2006년 사곶과 화동 사이에 방조제가 준공됨에 따라 백령호수와 간척지가 생겨나 우리나라의 8번째 큰 섬이 되었습니다.

백령도는 국가지정 명승 제8호로 지정된 두무진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제391호 사곶해안, 제392호 콩돌 해안, 제393호 감람암 포획현무암, 제507호 남포리 습곡과 단층, 제331호 잔점박이 물범, 제521호 연화리 무궁화나무 등 천연기념물을 6개나 보유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물섬입니다.



백령도를 여행할 때는 물때를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간조 시간에는 해안가에 주로 노출된 자연유산(사곶 천연비행장, 콩돌해안, 남포리 습곡, 진촌리 감람암현무암, 잔점박이 물범 등)을, 만조 때에는 섬 안쪽에 있는 역사, 문화유산(진촌리 말등패총, 첨사비군, 심청각, 중화동교회, 연화리 무궁화나무, 동키부대 주둔지, 천안함 폭침 추모비등)을 살펴보기를 권장합니다.

1. 서해의 해금강 두무진

백령도 북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두무진은 지금으로부터 10억 년에 모래가 퇴적에 형성된 사암이 긴 지질시대를 흐르면서 변성되어 만들어진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적 당시의 한결한결 쌓여서 생긴 층리, 빨래판을 모는 듯한 물결무늬구조, 층리사이에 경사진 소규모 층리인 사층리 등을 간직하고 있어 얇은 수심의 환경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무진 관광의 백미는 유람선을 타고 두무진의 전체 모습을 해상에서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해질 무렵 두무진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모습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룹니다. 간조 때는 두무진 정상부에 설치된 통일기원비를 넘어 산책로를 따라 두무진 서쪽 해안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해식동굴, 시 아치, 시 스택 등과 같은 해식지형과 물결무늬구조, 사층리, 둔덕사층리 등과 같은 퇴적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해의 해금강’으로 알려진 두무진 풍경

2. 백령도를 상징하는 해양포유동물 점박이 물범

천연기념물 제 331호로 지정된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고래를 제외하면 서해안의 유일한 해양포유동물입니다. 점박이 물범을 주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하늬바다의 물범바위, 두무진 형제 바위 앞 너럭바위, 연봉바위로 간조 때 바위 위에 올라와서 쉬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12월에 서해연안을 따라 발해만 까지 북상하여 지내다가 4월에 다시 백령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마다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늬바다 물범바위 원경



점박이 물범

3. 지구내부의 비밀을 간직한- 진촌현무암

진촌현무암은 섬의 북동쪽 진촌리 마을을 중심으로 북동해안까지 분포합니다. 진촌현무암에는 직경이 5-10cm 크기의 감람암이 포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감람암은 마그마가 분출될 때 맨틀의 일부분이 포획된 것으로 맨틀의 구성 물질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진촌현무암은 천연기념물 제39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람암포획현무암



현무암에 포획된 감람암

4. 한국전쟁 때 천연비행장으로 사용했던 사곶해안

사곶해안은 규암이 풍화 침식을 받아 생성된 고운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해안으로 한국전쟁 때에 비행기가 착륙할 정도로 단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곶해안이 이처럼 단단한 것은 밀물 때 조류가 강해 모래가 운반되어 다져지고 조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해 점토는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연비행장으로 사용한 해안은 나폴리 해안과 백령도 사곶해안 밖에 없어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간척공사로 백령둑과 백령대교가 건설된 이후 조류의 변화로 점토가 먼 바다로 이동하지 못하고 해안의 모래와 섞여 점차 바닥이 물러져 자동차가 빠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곶 해변 원경

5. 공기놀이하기 좋은 조약돌로 구성된 콩돌해안

오군포 해안가에 발달된 콩돌해안의 규모는 길이 1,500m, 폭이 50m 정도로 콩알처럼 작은 자갈부터 비교적 큰 조약돌과 같은 자갈로 구성되어 있고 그 표면이 매끈하고 다양한 색을 띠어 아름답기 그지없어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의 자갈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 단서는 콩돌해안 양쪽에 끝에 노출된 암석에서 찾을 있습니다. 콩돌해안가에 노출된 암석에는 지각변동을 받아 갈라진 틈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틈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점점 커져 틈 사이에 있는 작은 암석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후 각진 작은 자갈들이 파도에 의해 수많이 굴러 표면이 마모되어 매끈한 콩돌로 바뀌게 된 것 입니다.



콩돌해안 원경



콩돌의 모습

6. 대규모로 휘어지고 끊어진 남포리 습곡과 단층

천연기념물 제507호로 지정된 남포리 습곡은 동아시아 일대에 광범위하게 일어난 고생 대말에서 중생대 초의 커다란 지각변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큰 규모의 습곡과 단층은 매우 드문 것으로 그 형성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남포리습곡



남포리 습곡내 습곡

7.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화리 무궁화나무

천연기념물 제521호로 지정된 연화리 무궁화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중화동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6.3m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으로 그 수령은 100여 년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바람에 의해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 결국 고사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화리 무궁화나무



연화리무궁화나무 꽃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 볼만한 곳으로는 용기포 등대해안의 해식동굴과 창바위, 사곶 천연비행장, 백령호는 물론 화동염전과 멀리 북쪽으로 용기원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곶 전망대를 추천합니다.



용기포 등대해안



용기포 등대해안 해식동굴



엄지바위와 창바위



화동염전 원경

백령도에는 심청전의 배경이 되는 섬으로 심청전에 나온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두무진과 장산곶 사이의 인당수, 심청이 환생했다는 연봉바위, 연꽃마을이라는 연화리, 뽕덕어미가 살았던 장춘 등이 있고 진촌 북서쪽 구릉에는 심청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심청각과 인당수와 북한의 웅진반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조성해 놓았다. 또한 백령도 중화동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중화동 교회와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령 기독교역사관이 마련되어 있어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순례 차 많이 방문합니다.



심청각



인당수 원경



연봉바위 원경



연꽃마을



중화동교회



백령기독교역사관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역사, 문화유산도 좋지만 먹거리도 중요합니다. 필자는 20여 차례 백령도에 방문한 결과, 백령도에서는 먹어 볼만한 메뉴로는 장떡으로 알려진 짬지떡, 자연산 굴과 메이로 만든 메밀칼국수, 비빔냉면과 물냉면을 반반씩 합쳐서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반냉면 등을 추천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 섬 역사문화 자원의 문화관광 활용 방안

- 장봉도의 인어 전설 -

차 광 윤

웅
진
문
화

인천 웅진군 장봉도에는 인어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최 씨 성을 가진 어부가 있었다. 최 씨는 장봉도 날가지 어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였는데, 어느 때 부터 인지는 몰라도 흥어가 계속되고 매일같이 그물을 올려보지만 잡히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물을 끌어올리던 최 씨 어부는 그물이 올려지는 느낌이 아주 큰 고기가 걸린 듯하였다. 묵직한 그물을 끌어올린 어부는 기절초풍을 하는데, 그물 안에 걸린 것의 뒷몸이 완전한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록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살려 달라는 애원하듯 바라보는 그 사람물고기가 무척 불쌍하게 보여 최 씨 어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바다로 되돌려 보내준다. 그리고 이튿날도 언제나 그렇듯 그물을 올린 어부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 가득히 들어있는 것이었다. 현대,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뿐 아니라 그 다음날, 다음날도 계속 ...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는 것이었다. 최 씨 어부는 필시 놓아준 인어가 자신을 살려준 보답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해준 것이라 생각하였다.”



장봉도의 청동 인어상



스타벅스 로고

C
U
L
T
U
R
E
O
F
O
N
G
J
I
N

어느 지역이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역사가 깃든 문화 자원들이 있기 마련이다. 전설, 유적, 인물, 자연 자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것들이 잘 정비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인천 섬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 문화 자원 정비의 필요성과 북도면 장봉도의 인어 전설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역사문화자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

역사문화 자원이 관광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 진다면 관광객들에게 문화 관광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소득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펜션, 음식점이나 해상 운송 사업자 등과 관련된 사업이나 지역을 찾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화 관광이 활성화 되면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인천 섬들을 투자 혹은 새로운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인 장소로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왜 장봉도의 인어 전설에 주목하는가?

동아시아에서 인어에 대한 다양한 전설이 있다.

중국에는 태평광기(太平廣記), 수신기(搜神記), 박물지(博物誌), 산해경(山海經), 술이기(述異記)에 따르면 인어는 원시 사회 생물의 한 종류로서 능어(陵漁), 교인(蛟人), 저인(口人), 해인어(海人漁) 등으로 불렸다. 또한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記), 일본의 인어상(日本の人漁像) 등에 인어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며, 특히 야오비구니 전설에서는 인어 고기를 먹으면 장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의 어우야담(於于野談), 백운필(白雲筆),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등의 문헌과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의 구비자료에 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인간과 가까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여수의 신지끼, 김담령 설화, 남웅 설화, 사도 설화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서양의 덴마크 안데르센의 [인어 공주]를 아동 문학 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뮤지컬, 발레,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테마 파크, 축제 등의 문화 콘텐츠로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역사 문화자원 중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전설이 문화 콘텐츠로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동양에서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소외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인어 이야기가 있다. 인어 이야기는 동양과 서양에 골고루 존재하는 세계 공통의 서사로서 무한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인천 섬에는 장봉도에 인어 전설이 있다.

3. 동양과 서양과 인어 전설 비교

위에서 보았듯이 인어에 대한 전설이 서양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인어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의 변천과 인어 전설의 문화 콘텐츠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먼저 인어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자. 동양의 전설에 따르면 인어는 얼굴이 사람과 비슷하고 비늘이 없이 흰 피부를 하고 있고 머리카락은 말꼬리와 비슷하다. 부산 동백섬의 황옥공주 인어상, 여수 거문도 인어 신지끼, 인천 장봉도 인어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어의 눈물은 진주가 된다. 가수 이미자의

노래에도 “눈물이 진주라면”이라는 노래가 있다. 또한 성금련의 가야금 독주에 “눈물이 진주라면”이라는 곡도 있다.

나아가 인어는 어느 때든 비단을 짜는데, 물 밖으로 나와 인간에 머물면서 비단을 팔기도 한다. 이 비단은 찢지 않고 찢어지지 않으며 용사(龍紗)로 불린다. 동양에서 인어의 이미지는 인간과 친밀하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과부나 홀아비가 교접을 하기도 하고 왜구를 물리친 통영 수우도의 인어 장군이 나오기도 한다. 동양에서 인간과 같은 보통의 존재로서 여자 인어 뿐만 아니라 남자 인어도 있다. 인어가 사는 곳은 바다 속이고, 주로 용사궁에 있다.

한편 서양에서의 인어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적대적 존재이다. 아시리아의 아타르가티스,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테살로니케, 세이렌(Siren), 독일 신화의 로렐라이, 바르샤바 요술과 노래로 어부 홀리고 고통 주는 것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이어서 인어에 대한 이미지의 변천을 살펴보자. 동양에서는 인어가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로 그들 나름의 사회를 꾸리고 영위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오늘날 그 존재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인어가 돌연변이적 존재, 부정적 신화, 인간의 삶에 기

생 방해되는 존재에서 중성적 이미지로 변화되어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에는 환상적 이미지, 연약하고 예쁜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다음으로 동양과 서양의 인어 전설의 문화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자.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주성치의 코미디 영화 [미인어] 2016년 개봉했다. 일본에서는 2009년 개봉 애니메이션 [벼랑위의 포뇨]가 미야자키 하야오판 인어공주로 불린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녹스 게임즈 웹 게임에 '미인어', 거문도 인어 해양 공원, 2012년 여수 엑스포 프랑스 샤를 드로 감독 3D 홀로그래픽 사운드에 활용된 [신지께 여 인어이야기], 2016년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이 있으며, 대체로 지역의 공간마다 인어 동상을 전시하고 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어 전설을 문화 콘텐츠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코펜하겐의 청동상과 안테르센의 인어공주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폴란드에서는 수호신 이미지로서 바르샤바에서는 택시와 버스, 가로등, 건물 벽화, 쓰레기통 등에 인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899년 작곡된 드뷔시의 여성합창곡 <Trois Nocturnes> 세 번째 파트에 '사이렌' 있으며, 미국 뉴욕의 코니아일랜드에서는 1983년 이후 매년 여름 인어 페레이드 축제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에서는 세이렌 인어의 유혹 이미지를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4. 장봉도의 인어 전설의 문화 관광 자원화 방안들

장봉도의 인어 전설은 재미있는 이야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특성과 대중성이 높은 콘텐츠로의 개발할 수 있으며 특히 인어가 바다에 살기에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여 문화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이다..

먼저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이 가능 하다.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인어의 눈물로 만든 구슬, 인어가 만든 비단 활용,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용기 있는 인어상으로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영상물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 분야에서는 국악, 정통 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K-pop 가사로 인어 전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어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봉도의 인어 전설을 주제로 하여 인천의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에서 공연을 한 사례도 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레이저 쇼처럼 인어 전설의 요소 중에 풍어를 돕고, 비단을 짜면서 용궁에 살며, 눈물이 보석이 되는 인어 등의 테마로 환상적인 쇼를 제작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지역 공간을 관광 콘텐츠 화할 수도 있다. 인어 서사 테마로 지역 축제 기획 (인어 변장, 인어 수영대회, 물고기 잡기 체험, 인어 비단 짜기, 인어 구슬 모으기 등), 특산물과 기념품 등 개발, 테마파크 조성 (도쿄 디즈니랜드 인어공주 모티브로 조성), 지역 브랜드화, 인어 비단과 구슬 등 다양한 인어의 물건을 매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어와 용사궁(龍紗宮)을 바다 속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썰물 때 볼 수 있도록 하여 그 신비로움을 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봉도를 '동양의 인어 섬'으로 관광 브랜드화 하여 외국 인어 설화 지역 교류, 인천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 등을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문화 경제학 (데이비드 트로스비 지음 성제환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4)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 방안
(문화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6)
동아시아 인어의 이미지와 서사를 통한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역할
(강민경, 道敎文化研究 제49집, 2018)
인어 설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 '신안' 지역을 대상으로 -
(정혜정, 남도민속연구 제37집, 2018)
말문 馬門에서 시작하는 장봉도 이야기 (정중근, 웨스트비전, 2006)
웅진군청 홈페이지 <http://www.ongjin.go.kr>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istarbucks.co.kr>

섬 농업의 '참' 가치

 이 병 현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흔히 의, 식, 주를 꼽는다. 이 세 가지 중 우선 순위를 매겨 본다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매겨 지겠지만 필자 그리고 대부분의 혹자들은 '식(食)'을 최우선이라 생각 할 것이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이론 모형에 따르면 가장 하위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생리적 욕구인 식욕, 수면욕, 성욕 중 다시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겠는가. 필자는 여기서도 '식욕'을 최우선이라고 본다. 즉, 태초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난 시점부터 모든 생명체는 '생리적 욕구' 중 '식욕'을 바탕으로 존재했으며 이 가장 하위욕구를 충족시킨 후 욕구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 해왔다. 인간 역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까지 진화해 왔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필자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딱히 '식욕'에 대한 결핍은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식(食)'은 욕구 충족을 넘어 '유희(遊戱)'의 대상으로서 이용 되고 있다. 요리사들은 같은 음식이라도 우리의 미각을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각종 TV 예능프로그램들은 식(食)을 주제로 하여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므로 식(食)이 우리에게 유희거리로서 비춰지는데 일조하고 있다.

때문에 현시대 우리는 '식(食)'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존재의 이유는 '번식' 즉,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는 것이다. 때문에 '식(食)'의 본질은 '번식을 위한 발판'이라고 본다.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난에 허덕이며 이 본질이 위협 받고 있다.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과업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농업의 '참' 가치가 있다. 농업기술은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현재가 풍요롭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풍요롭다는 보장은 없음을 명심해야 한

다. 미래에는 어떤 요소가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할지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다. 여기서 필자는 ‘섬’ 농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의 ‘섬’ 농업은 대부분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 형식 이였기 때문에 농업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섬은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즉 내륙지방의 기술을 얼마든지 섬에 도입할 수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으며 그 생산물을 육지로 운반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백령도의 간척 사업을 들 수 있겠다. 현재 백령도는 간척사업으로 많은 농지를 확보 하여 엄청난 규모의 벼 재배지를 보유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어지간한 내륙지방 못지않다. 내륙지방의 기술이 도서지역에 도입되어 식량생산을 극대화 시킨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섬은 지리학적 특성상 이미 대륙 또는 본토에서 절멸해 버린 종이 보존되기도 하고, 신종의 발생, 변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공해 시설이 내륙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수한 토양질과 공기질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 내륙지방 못지않은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섬의 단위면적당 인구는 내륙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구대비 단위면적당 식량 생산은 섬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즉, ‘효율’ 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섬’ 농업이 내륙지방의 농업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말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효율’ 의 중요성은 크다. 지구 역시 한정된 공간이며 내륙지방과 섬 역시 한정된 공간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섬은 내륙지방에 비해 농업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륙지방보다 농업적 효율이 뛰어나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섬들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이용 할 수 있는 토지, 자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섬의 공간은 우리에게 있어 기회의 땅인 셈이다. 섬 농업의 가치는 단순히 식량 생산에만 국한 되지 않고 먼 미래에도 인간이라는 종(種)을 지구상에 존재하게 해줄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섬 농업의 ‘참’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웅진군’, 이 기회의 땅 웅진군에서 농촌지도사로서 일하고 있는 점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필자는 한 명의 농촌지도사로서 웅진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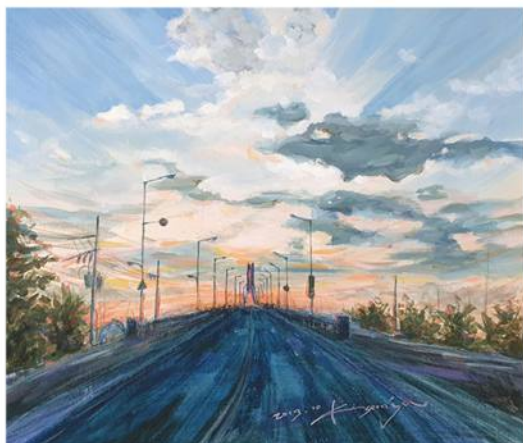
십리포 해변(2018) - 권순범



영흥대교가 보이는 풍경(2018) - 권순범



영흥대교가 보이는 풍경(2019) - 권순범



희망을 품은 영흥대교 - 김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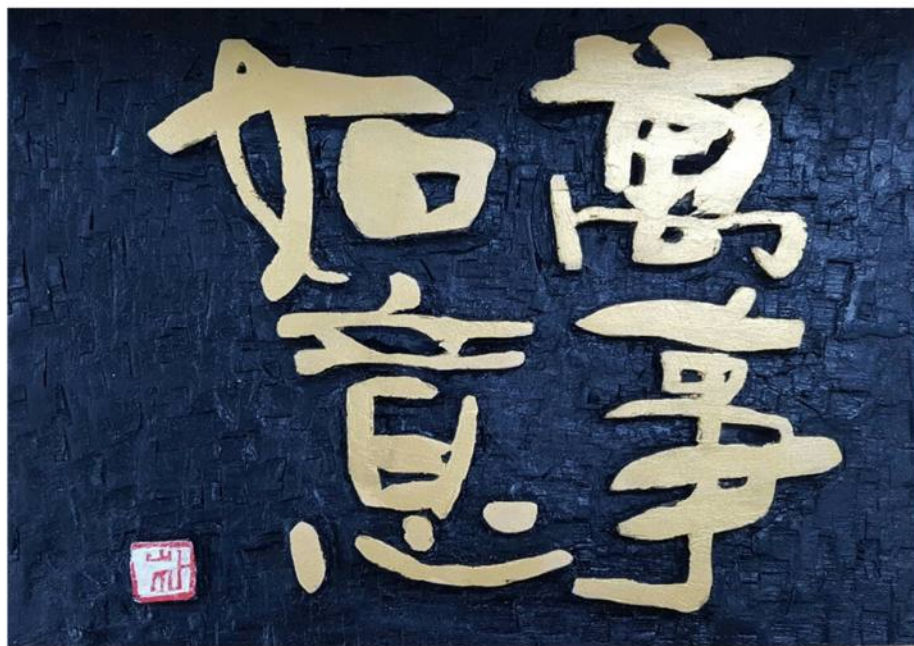
목섬 풍경 - 유명조



아름다운 영흥도 - 서미경



선 : 박용만



만사여의 - 박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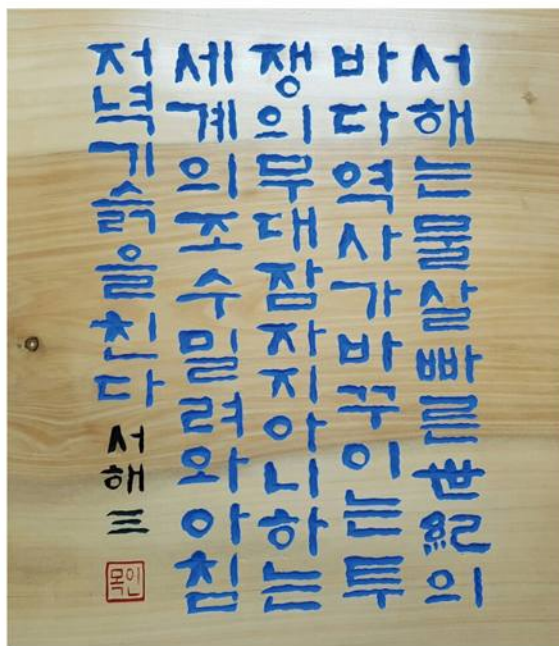
소욕 - 이성범



안선 - 이성범



신심 - 이성범



서해3 - 이성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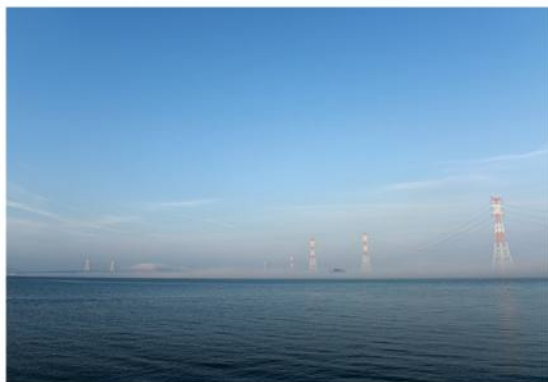
한영수



포구의 아침(영흥면 선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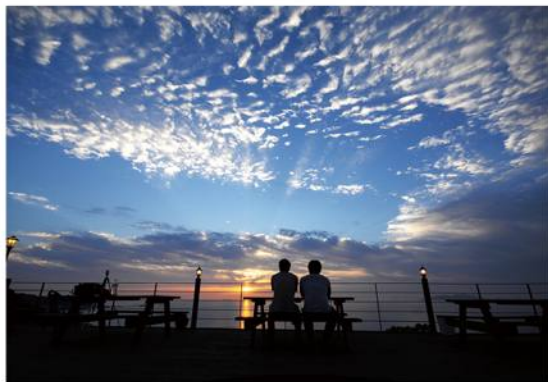
등대(영흥면 진두항)



영흥대교(영흥면 용담리)



소사나무 군락(영흥면 십리포해변)



일몰(영흥면 팬션단지)



진두항(영흥면 내5리)

아름다운 십자가



서 옥 선

죽음과 종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십자가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표현.

다양한 크기의 원형에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색을 입혀 예수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인간 사랑을 표현



모세십자가



서 옥 선

모세가 뿔뿔을 매달은 지팡이를 상징하며 예언, 예수의 재림, 구약의 십자가, 그리고 예고
십자가의 의미를 지닌 T자형의 십자가에 뱀 모양이 곁들여진 것을 표현



북도면 장봉도 벚꽃



북도면 노랑부리백로
(천연기념물)



연평면 소연평도 얼굴바위



백령면 백령도 보리밭



대청면 소청도 분바위



덕적면 덕적도 서포리 해변 해당화



덕적면 덕적도 서포리 소나무숲 웰빙산책로



자월면 소이작도 손가락바위



영흥면 선재도 목섬





최첨단화되기까지의 섬 교통 이야기

• [1부] 초쾌속 이전의 섬 교통(1990년말)



[1부] 초쾌속 이전의 섬 교통(1990년말)

 박 용 운

친구야 어제 밤엔 술을 많이 마셨단다. 그리곤 이렇게 아픈 속을 달래며 또 하루 술 마실 꺼리를 걱정하고 있지. 이게 백령도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의 입장이야.

글쎄 뭔가 허전한 마음속에서 눈군가에게 버림받은 듯한 소외감 때문인지 아무튼 우리는 많은 술을 마시곤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리고 모든것 에 만족해 버리려는데 잘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른단다.

친구야! 얼마전 나에게 전화하였지 “올 새해에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자고, 그리곤 올여름 백령도엘 꼭 오고 싶는데 선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나의 대답에 네가 한말을 기억하니? “뭘 날이 좋아야 3박4일 지난 여름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 갔다왔는데 그곳도 우리나라 땅이냐?” “그래 우리나라 땅이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그 어려운 교통 이야기를 좀 하고 싶구나.

너에겐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섬에 사는 우리에게겐 이게 바로 생존 이란다. 우리의 역사는 태고로 부터의 시작 이란다. 돌도끼와 돌 칼이 발견 되었고 원시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에서 엄청난 패총이 발견 되는 등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단다.

수없이 많은 세월속에 역시 우리와 같은 해상 교통난을 겪으면서 살아 왔겠지.

그래도 조상들은 물때 잘 만나고 바람 잘 맞고 장정 몇이 마음 잘 맞아서 물 따라 바람 따라 역선 팔로 노저으면 한나절 안에 육지에 닿을 수 있었을거야. 그런데 이 섬의 교통이 이토록 엉망이 된 것은 그 늬의 38선 때문 이라네. 통째로 먹었던 늬들은 도망가고 또 다른 늬이 내려와 찢라 먹고, 사상이다, 이념이다,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강토는 폐허화 되고 그래서 덕본늬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였든 피해자는 선량한 백성 뿐 일세. 40년 이전으로 돌아간 교통난 어디 이게 사람사는 경우인 것 같은가?

전쟁 직후엔 조일호라는 화물선이 인천과 운항을 시작했다네. 연평도를 거치고 대·소청을 경유하며 날씨가 나쁘면 4~5일 만에 도착 되는등, 그것도 배 한 척이 왕복하였으니 육지에 한번 나갔다 오려면 한 달 째은 걸렸을거야.

그 다음은 100여톤급 백령호가 수년을 다니고 그후 남해 한려수도를 운항하던 퇴역선 같은 목선 한려호가 정기 여객선으로 취항하게 되었지. 운항도중 파도가 치면 배 밑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으니 불안 하기가 끝이 있었겠나.

그때엔 오후 1시에 출항해서 다음날 새벽에 도착되었지.

그후 최초로 정부에서 건조한 은하호(철선)가 취항 되었는데 그때 나는 학생이었지. 주민과 학생들이 부두에 나가 있고 첫 취항하는 은하호는 오색 깃발을 달고 고동을 울리며 입항했고 뒤이어 취항식을 하였는데 누구 였는지 모르지만 연로한 분이 나가서 만세 삼창을 선창하였는데 나도 힘껏 어깨가 빠지라 하고 만세를 불렀던 일이 기억이 나네. 당시 오죽 배편이 나쁘면 뭇 모르고 면회 온 아가씨가 남의 집 사랑방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아기를 업고서야 친정엘 갔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그후 황진호가 취항 되었고 지금은 웅진호와 경기호가 운항중이라네. 하지만 1년에 1번 정기 수리에 들어가면 3~4개월은 또 한대가 운항되고 그때 날짜 잘못 맞추면 일주일 열흘은 아무것도 아니지. 78년 11월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보름이나 묵고 갔으니 말이 필요 하겠나!

어떻게 되는 건진 몰라도 일요일이면 출항이 안되고 북한의 해상 활동에 따라 기후적 조건에 따라 차떼고, 포떼면 어디 출항 할 날 얼마 되겠나! 지금부터 내가 이곳을 떠나 다시 이곳 백령도까지 돌아오는 여행을 하여 보겠네.

때는 2월7일 여동생 결혼식이라 어차피 육지에 나가야 하는데 7일전으로 가장 가까이 운항 할 수 있는 날이 5일 그런데 겨울날씨 가는 날 1일 빼고, 1일의 여유를 두고 큰일 치루러 간다면 이곳에서는 바보짓이다. 어쩔 수 없이 1일 배로 떠나야 하는데 1일전에 선표를 구입 하여야지, 전날 면사무소 소재지로 하루 나들이를 떠난다. 혹시 정원이 초과 될까 봐 아침 일찍 떠나 매표소 들러 선박여행 신고서를 들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행선지, 직업등을 기록하고 파출소에 가면 경찰관이 확인을 하고 검인 도장을 찍어준다.

어디 국경을 넘는 절차인 듯 도로에 수십 명씩 줄서 있다. 9시가 되어야 판매 되는데 어쩔땐 새벽부터 난리 친다. 7,000여원의 돈을 내고 주민등록증과 여행신고서를 보이고 배표를 산다. 버스 시간등을 맞추다 보니 이력저력 점심 한끼 핑계 킴에 때운다. 이래서 벌써 점심 선표 차비등 돈만원이 없어진다.

지금부터 지출도 시작된다. 다음날 아침7시 연락선은 출항한다. 어디 육상교통이라고 시원하겠는가? 어떤 이는 버스로, 어떤 이는 마을 화물트럭으로, 어떤 이는 경운기로 고구마,

콩, 팥, 가시리 더병이 보파리와 함께 춤디추운 새벽길을 달린다. 어차피 떠나는 배라면 일찍 좀 검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가. 먼 곳에 살고 마음 착한 부녀가 노약자 순이 보편화되어 줄을 서 있다. 조금이라도 일찍 배를 타서 자리를 잡을 마음으로 내 앞으로 3~40명 정도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다. 그런데 검문이 시작되고 개찰이 시작되자 옆으로 옆으로 새어 들어 간다. 사람은 철망 밖으로 부두가 메어 빠져 들어 가는데 착하게 줄 선 사람들은 그대로이다. 400여명이 다 빠져 나갔을때 40번 쯤에 서있던 사람은 300여번 쯤에 배를 탔을 것이다. 그래도 백령에서 육지로 갈 때는 계절풍을 뒤로하니 순항을 계속하여 오후 5시에 연안부두에 도착 되었다고 한다. 점심은 오후 5시 때웠으니 저녁은 먹어야지. 늦게 서울에 가서 저녁 달라고 할 수 없고 배에서 제일 먹고 싶은 김치와 뜨거운 국물이라도 먹고 나니 든든하다.

그러나 아직도 뱃 여독은 남아있는데... 뭘 섬 놈이 길을 아나 오로지 택시다. “어디까지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집 저집 전전하며 행사 치르고 돌아 오련다. 7일 행사를 마치고 8일 선편은 있는데 선표가 매진 되었는지 알 수가 있나 우선 인천으로 내려가 보자. 밤늦게 인천 연안부두에 도착 하였다. 여인숙으로 들어가면 4~5천원 짜긴하데 누워서 천정만 보느니 나가서 술 한잔 하게 되고 차라리 여관에 죽치고 TV나 보면 그게 싸게 먹힐 것 같다.

짐을 풀고 원광해운에 전화를 하여보니 다행이도 선표가 몇 장 남아 있단다. 그래! 기가 막히게 고맙다. 앉아서 돈10만원은 번듯하다. 잠이 올리가 있나 여럿이 인사가 똑같다. “내일 배가 갈 수 있을 것 갔습니까?” “글쎄요” 바람이 나는 것 같은데 창문을 열어보니 옥상에 TV안테나가 살살 흔들린다. 심상치 않다. 9시 뉴스가 끝나고 일기 예보가 나온다. 웬일이냐 날씨가 별로다. 서해상의 파고는 3~4m란다. 그 놈의 2짜 까지는 괜찮은데 3자는 매우 불안하다.

새벽부터 전화다. “원광해운이죠?” “오늘 배 갑니까?” “예정입니다.” 물어 보나마나 무조건 예정 이란다. 새벽 5시가 넘으면 전화도 계속 통화중이다.

세수하고 짐 정리하면 연안부두를 이따금씩 달리는 택시 소리만이 요란 할뿐 바람소리와 함께 적막함과 서글픔만 을 느낄뿐이다. 6시가 훨씬 지나서야 전화가 되어 물어보니 24시간 연기 되었단다. 서해해상 겨울바람은 불면 꼭 72시간이 지나 불지. 날씨는 점차 악화되는데 무조건 24시간 연기란다.

뻘하다. 출항이 되면 복잡하여야 할 터미널이 조용하다. 선원들에게 직접 물어본다. “내일은 배가 떠나게 될까요?” “글쎄요 2~3일 간은 힘들것 같은데요.” 선표부터 사고 보자.

떠난다고 친척 집에서 인사하고 나와 다시 갈수도 없고 또 내일이라도 배가 갈지 모르고 어차피 연안부두에서 죽치고 있는거다.

야금야금 여비는 줄어들고 누구 만날까봐 겁이 난다. 백령도 돈은 뭐 지푸라기인지 저녁에 계산하면 꼭 잃어버린 듯하다. 섬 놈의 돈이 뭐 제구실을 할리가 있나. 움직이면 큰 일이다. 조용히 자고 먹고 그래야 1일 2만원.

드디어 12일 월요일에야 배가 출항을 한단다. 그래도 불안하다. 여비는 달랑달랑 새벽부터 차소리가 요란하고 북적거리기 시작한다. 짐을 챙기고 골목 식당에서 해장국 한그릇을 해치우고 줄을 선다. 김밥장수 아줌마들도 나란히 앉아 김밥을 판다. 배가 며칠 못 가서 인지 사람이 많다. 선표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은 태워주는 모양이다.

배에 오르니 움직일 자리가 없다. 갯 비린내를 포함한 객선 특유의 냄새는 코를 찌르고 어디 다리 하나 들여 놓을 칸이 없다. 원래 배에서는 어른도 아이도 지위도 체면도 없이 큰 대자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일 인가. 맨 아랫칸 칸막이 복도에 걸터 앉아 출항을 기다린다. 고동소리가 울리는듯 하더니 배가 움직인다.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는 없고 나이 어린 아이들만이 매점을 드나들며 뭔가를 먹기 시작한다. 밖을 나가본다. 선장이 조타실 문 밖에서 선원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한다.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다. 사람 1~3명을 태우고 모범택시 기사도 정모를 쓰고 4~50명 정도를 태우는 고속버스 운전사도 안내양도 정복과 정장을 하는데 선장의 복장이 웬말이나. 그냥 작업복 차림에 파란 모자만이 전부다. 5~6백여명의 생명과 수십억의 선체 수천만원의 화물을 적재한 여객선 선장의 복장이 너무 남루하다. 운항중 선체의 가장 책임자이며 어른인데 선장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더러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까만 정복에 흰 정모를 쓰고 곱게 맨 벅타이에 위엄 있는 선장의 모습을 그려본다.

예인정과 바지선, 거대한 무역선들을 뒤로하며 덕적도를 접한다. 외로운 남 기슭에 하얀 등대가 외롭다. 바닷가에서 꼬불꼬불 등대로 올라가는 작은 길에 정감이 간다. 바람은 불어오고 작은 파도들이 띄워 놓은 어구들을 흔들어 댄다. 몇몇 젊은 여성들이 여객선 난간에 나와 목에 손을 넣는다.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너 왜 오니? 군인간 애인을 보러 오니? 고향의 어머니님 환갑이라도 되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떠났니? 하는 애처로운 마음이 든다. 흐트러진 머리, 지워진 화장, 처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옥-옥- 걸쭉한 위액을 토해낸다. 작대기 하나를 단 해병들이 움직인다. 그래도 젊은이들이라 컵라면을 먹고 있다. 훈련을 마치고 임지로

떠나는 모양이다. 20년전 나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고향으로 오는 입장이고 이 젊은이들은 타향살이 그 고된 3년의 해병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배를 탔으니 측은한 생각이 든다.

이따금씩 앞이 쏙 빠진 중형 어선들이 보일 뿐 육지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제부터는 허허 바다다. 인천의 연안 섬들도 웅진의 반도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점점 원해로 빠지면서 파도는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한시간 정도 되니까 드디어 바다가 광기를 시작한다. 마의 구토고개 소청도를 두어 시간 앞두고 통과해야 하는 위험한 해역이다.

어디 앉을 자리도 시원치 않고 서 있기도 피로하고 파도는 배를 때리고 2층 지저분한 오물들을 쓸어간다. 배는 하늘을 오를 듯 파도를 타고 평하며 뱃머리에 부딪친다. 물보라가 온 배를 적시고 또다시 바다 속으로라도 들어 갈 양 뱃머리가 고개를 숙일 때는 온 내장이 다 밑으로 내려앉을 듯한 느낌이 든다. 멀미에 강한 나 자신도 구역질이 난다. 한 겨울 이게 웬일인가. 배를 넘치는 바닷물에 왕 까나리가 갑판위에서 퍼득인다. 겨울 바다에 까나리가 있다니. 모래바닥속을 뒤엎자 겨울 잠자던 모래속의 까나리가 파도에 휩쓸려 올라온 모양이다.

선원들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종용한다.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제일 멀미를 덜하게 되는 가운데 맨 아랫칸으로. 이건 또 무엇인가. '2차대전 당시 독일의 가스실인가, 여기 저기 가날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 몇몇 아이들의 울음소리, 구토를 하며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아주머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 버렸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로 세로 제각기의 자세로 굳어 버렸다. 알 수 없는 냄새는 코를 찌르고 아비규환의 뒷모습이다. 이게 사람사는 것일까? 이게 섬사람들의 고통이며 숙명이란 말인가? 짹! 짹! 뱃창을 때리는 파도소리와 함께 이 배가 항로를 돌려 인천으로 돌아 가지나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이대로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 못 나온다면 우리는 모두 통조림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와중에도 나이 드신 뱃선원이 비를 들고 비틀거리며 복도의 오물을 치운다. 이들은 또 배를 탈까? 이 고생을 하면서도 배를 타야 하나? 탈것이다. 이들은 한 두시간 후면 지금의 이 고통을 까마득히 잊어 버릴 것이다. 기가 막히게 이 고통에 잘 숙련되고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밖으로 나온다. 숙달된 매점의 젊은 총각도 판매대에 두 손을 올려놓고 엎디어 있다. 몹시도 고통스러운 모양이다. 오늘 같은 날 매점은 헛 탕이다. 언제 부터인지 모르게 파도는 점차 수그러지고 보일 듯 말듯 소청도가 시야에 들어온다. 그 놈의 육지 섬이 보이기만 하여도 희망이 있는데 선원들과 모두의 고충이 새삼 느껴진다. 언제 그랫던가 하고 파도는 잔

잔 해지고 객선을 미끄러지듯 바다를 가른다.

소청도가 보인다. 다 왔다. 이제 2시간이면 용기포 항구에 내리게 되겠지. 갈매기가 보인다. 반갑다. 어디한번 아랫층엘 내려가 볼까? 거참! 신기하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시계를 보는 사람 매점에서 소주를 사가는 사람들 움직임이 보인다. 소청도가 가까워지자 몇몇 여자들이 짐을 챙긴다. 그리고 손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고친다. 이제 사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나보다. 여자는 여자다. 소청을 지나 대청도에서 손님을 풀고 나니까 띄엄띄엄 자리가 나기 시작한다. 신문지 조각으로 대강 바닥을 덮고 한번 자리에 앉아 보았다.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11시간 넘는 항해 끝에 용기포 부두에 내렸다. 마중 나온 차량, 사람 사람. 활기찬 백령도의 모습니 보인다. 저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몇 시간 전의 모습을 그려본다. 저들은 또 배를 탈까?

친구야! 거 뿐인줄 아니 한이 없단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육지에 예물을 하러 갔다가 배편이 없어 결혼식을 연기 하는 일, 아버님 어머님 환갑이나 진갑시 (칠순) 자식들이 들어오지 못해 차려 놓은 음식 버릴 수 없어 자식 없는 잔치를 치루는 일, 부모 인종 못 보고 장례 다 끝나고 입도하여 천추에 불효하고 한 맺혀 떠나는 자식들, 군대 보낸 이들 면회 온 노부부 여비 떨어져 알거지 되어 떠나는 일, 응급환자가 있어도 배편이 없어 죽어가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환자들, 선편이 원활치 못 할 때, 육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생필품이 단절, 육지에서 선편이 없으면 먼 친척이나 친구집에 눈칫밥 얻어먹으며 겪어야 하는 고충, 육지에 있는 자식을 찾아보지 못하고, 찾아 오지 못하여 그리움에 젖어 눈 못 감고 돌아가시는 늙은 우리의 부모님들.

친구야! 지금이 어느 시대냐? 국민소득 4,000여불이 넘어서고 국내 여행이다 외국여행이다 이제 그런대로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네말대로 3박4일이면 대만도 여행하고 일본도 구라파도 여행하는 시대에 한 민족 한 식구인 백령도 사람들만 이렇게 1주일 생활권에서 살고 있다. 이게 웬말이나 대한항공의 KAL 여객기가 중국 소련을 거쳐 구라파로 나르고 얼마후면 인천의 내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대형 여객선이 취항 되고 국내만 해도 그렇다 웬만한 도서는 교각이다, 연륙교다, 다 붙어 버리고 그나마 먼 곳은 (제주, 울릉, 흑산, 홍도) 초 고속화되어 1일 생활권내로 돌입되었는데, 이 섬도 이 백령도도 우리땅 우리의 형제 일진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 북한과의 긴장이 아직도 팽배해 있고 먼 거리에 있다하여 교통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어찌 휴전선에서 얼마 멀지 않

은 비행기로는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김포 비행장에 수많은 이착륙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김포에서 방향만 바꾸면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강릉간의 비행기는 날을 수 있단 말이나?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어디한번 된다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생각들을 해 보았겠는가?

70년대 북한의 도발이 한창이었고 웅진반도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북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군함을 배치시켜 얼음장을 놓을 때도 우리 백령, 대청, 소청사람들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그 배를 타고 다녔으며 80년대 수 차례 걸쳐 북한의 MIG21R기가 백령도 상공을 선회하며 공갈을 칠때도 우린 한사람의 겁쟁이 없이 이 섬을 지켰단다.

엄연한 우리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엄연한 우리 바다. 우리가 다니는 일에 왜 그리 겁들만 내고 있는지. 엄연한 우리 국민임에도 이렇게 교통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육지를 남의 나라 땅 인양 보고 있어야 하는지.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반문하고 싶단다. 그렇다고 일만여 가난한 섬 사람들이 수십억의 이상의 돈을 만들어 배를 지을 수도 없고, 철도청이 흑자를 보고 철도를 운영하겠나?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개도서(정전협전상 유엔군 통제구역) 이는 곳 현실적으로 서해의 보루이며 안보의 요충지 일진데 이는 국가적이며 민족적이지 “너희를 누가 그곳에 살라고 했느냐?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었으면 되었지 어떻게 하란 말이나” 등의 관념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면 이는 바로 국가와 민족 장래에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친구야! 잘못된 일도 잘한 일도 많은 한시대의 대통령 박정희 그분이 백령도에 가장 관심이 많을 때, 한 각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각하 그 조그마한 섬에 그렇게 투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 사람아 그곳도 우리땅이야 우리는 백령도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 주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 해야지” 글썽 그분은 왜 그렇게 이 조그마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섬에 사랑을 심었을까? 아마도 모르긴해도 이곳 백령도 사람들도 모두 우리나라 울타리 안에 같은 형제이기 때문 일거야.

친구야! 이제 백령도 사람들도 많이 참아 왔단다. 다같이 어려웠던 시절 우린 더욱 어렵게 살아왔단다. 그러나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만이 옛날의 그대로 안주 하라고하면 너 같으면 하겠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어려운 해상교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정부에서 눈 딱 감고 예산이야 어디서 사용 하든지 간에 3-4백 톤급 쾌속선 2척 정도 지어주어 인천과 백령도에서 매일 운항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 누군가 반대 할 사람 있겠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구책을 강구

하고 정부의 뒷받침을 얻어 이 어려운 해상교통을 해소하는데 있단다. 우리 모두는 실행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희생이 닥칠지라도 해내고 말거야. 그래서 이 땅도 대한민국 땅임을 실감 할거야. 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엄숙한 기로에 서게 되겠지.

친구야!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1개 회사의 기득권만을 향상시키는 일이 되거나 한두 사람의 이익이 되게 된다면 안되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친구야! 우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노력 할 게. 머지않은 장래에 자네가 목장일 며칠 미루고 여유 있게 이 섬을 방문하기를 기대하네.

그때에 내가 교통만 해결되면 이 섬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느끼게 해주지.

자네의 눈과 입과 마음을 풍만하게 말이야. 자네와 고양군 낙농인들의 발전을 비네.

고맙네.



농촌지도 성공담

- 최북단 백령도의 딸기
-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 해당화는 강한 향기를 내뿜어 곤충들을 불러 들인다



최북단 백령도의 딸기

 김을남

농사를 시작한지 약 5년밖에 안되었지만 저만의 농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통하여 농업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의 권유와 해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으로 농업에 농자도 모르던 저는 한참을 고민 후 한국농수산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에 무지했던 저는 농대를 들어가 보니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부족함을 알기에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함을 느꼈습니다.

농업에도 수많은 분야와 종류, 다양한 기술과 심도 깊은 학문에 감탄했고, 학교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견학, 체험, 실습을 통해 여러 사례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농업으로 성공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욕심이 생겼고 청년실업 시대에 농업은 틈새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기 중 2학년 실습을 해외로 나가게 되었고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화훼 회사에서 인턴십 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습했던 농장은 미국에서 2번째로 큰 화훼 회사였고 짧고도 긴 1년의 시간동안 큰 농업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체계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딸기농장

그러던 중 저는 우연한 기회로 미국의 한 딸기 농장에 방문하게 되었고 몇 만평은 되어 보이는 노지에 딸기를 키우며 한켠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를 활용하여 딸기 셰이크와 딸기 케이크를 팔고, 갓 딴 신선한 딸기들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셰이크와 케익을 맛보고 저는 자동적으로 딸기를 박스로 구매하면서 이것을 접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떠올린 아이디어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직접 키운 딸기로 만든 음료를 판매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딸기를 살 수 있게 한다면 좋은 판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딸기 전공도 아니었고 주변에 아는 지인도, 백령도에서 딸기를 키우는 사람은 본적도 없었기에 이게 백령도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가능한 일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기에 미래를 남겨둔 채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 후 부모님의 가업을 도와 함께 지내던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하우스 보조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며 들뜬 마음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딸기 고설하우스는 300평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저에겐 부담이 되었고, 이 작물이 백령도에 적합한지 확신이 없었기에 100평만 실험해보자는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으로 토경재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경재배 시작 전 농업 기술센터 직원들, 딸기작목반분들과 함께 인천과 논산에서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딸기에 대한 지식과 아는 것이 많이 없었기에 아무리 좋은 강사님에 좋은 강의 내용도 처음에는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액아가 무엇이고 화방이 어쨌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딸기를 시작함에 앞서 두둑을 쌓아 딸기 묘를 심자 꽃이 피고, 벌들이 수정을 하여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떤 날은 난로가 그 을음을 내어 딸기가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온도가 떨어져 딸기가 다 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벌레가 있을 다 흡즙해 버리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이쁘게 딸기가 자라는 모습과 누가 딸기를 먹고 맛있다는 말 한마디면 그간의 고생이 눈 녹 듯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딸기 농사에 심취하여 고랑에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꽃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KT직원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 KT기가 아일랜드 사업에서 스마트 팜 보조 사업에 선정되어 백령도 지역 내 최초로 스마트 팜 운영을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스마트 팜 300평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어 현재는 총 600평의 스마트 팜을 운영중입니다.

서해최북단인 백령도에서 유일하게 딸기농장에 스마트 팜을 접목시켰다는 이유로 뉴스와 티비 등 각종 매체에도 나오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령도는 물류 운송하는 선박이 12시간 소요되다 보니 육지에서 들여오는 딸기가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이 먹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상태가 무르고 썩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일이 귀한 섬에서 그날 판 딸기를 바로 먹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에 군납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끔 마주친 군 장병들이 부대에서 나온 딸기가 맛있다고 얘기해줄 때 가장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딸기를 군납, 도매, 직거래, 카페에서 전량 소비하고 있으며 상품가치가 없는 딸기는 급속 냉동하여 주스나 셰이크로 카페에서 판매하는데 군납 직거래 도매카페에서 가장 적은 양으로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4년간 딸기 농사를 직접해보니 단순히 1차 생각으로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부수 익을 창출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베리류 가공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딸기를 이용한 여러 가공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직접 재배한 딸기



체험 농장

남들이 하지 않는 작목을 선택하다 보니 딸기 전용 비료나 농약을 구하기 쉽지 않았고 딸기 수정을 위해 육지에서 벌 한통 들여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 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딸기농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농협에서 주최한 ‘올해의 청년농업인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자리에서 만난 다른 청년농업인들을 만나보니 ‘내가 힘들다고 한 게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남들은 육지에서 더 치열하게 값싼 수입산 농산물과 경쟁하고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 자리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며 존경심이 들었으며 저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진군이 육지와 멀다는 지역적 단점도 많지만 오히려 서해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이점을 잘 이용한다면 웅진군의 많은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 땅에서 자리 잡아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이 충 환



문갑도는 나의 고향이다. 문갑도에서 인천을 가려면 작은 배를 타고 덕적도까지 나가서 다시 여객선으로 갈아타야하는 교통이 아주 불편한 섬이다.

초등학교 6학년 초에 인천으로 전학을 가서 아버지 지인 집에 홀로 하숙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학생생활을 하고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2012년 퇴직하면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갑도로 귀농을 하였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추억이 많아서 그랬는지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통이 불편함에도 퇴직하기 5년 전부터 빈집을 얻어 주말이나 방학 때면 아내와 함께 늘 고향을 찾았고 그때부터 예비 농사꾼으로 초보적인 농사를 지으며 퇴직한 후의 영농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내가 이해하고 함께 동행해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고향에서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귀농을 하기 전에 인천시 농업대학에 다니면서 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익혔으며, 귀농을 한 후에도 웅진군 농업대학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농사 지식과 함께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쌓았다.

귀농하고 3년이 되었을 때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마을 일을 보면서 마을공동체영농조합을 만들었고 정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농사 작물을 찾던 중 블루베리는 맛이 좋고, 안토시아닌 색소와 식이섬유 폴리페놀 비타민 등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방지와 면역력 강화 그리고 눈 피로 개선 효과 등에 좋다고 하여 미국 타임지 선정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블루베리를 재배작목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웅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과원 조성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곳에 지원하였고 블루베리 재배 농가로 선정된 990㎡의 경사진 밭에 블루크롭, M7, 얼리블루 등 세 종류의 블루베리 묘목 300주를 심었다.

이렇게 3종류의 품종이 다른 것을 심는 이유는 수정이 잘 되게 함이라 한다.

블루베리 묘목은 심은 지 2년후 까지는 꽃이나 열매를 따주고, 전지 전정은 2년 후부터 과감하게 실시하며, 3년 후부터는 수확을 한다.

수확량은 한그루 당 3년부터는 2.5kg, 4년 후부터는 3kg이상 수확하게 되어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무더운 여름날 농사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섬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는 웅진군 포도가 달고 맛있듯이 해풍과 안개, 토질의 영향을 받아 껍질이 단단하고 맛이 좋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교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물류에 제약요건이 많다.

꼭 안개나 풍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블루베리 생과는 당일 배송을 하여야 하는데 특히 문갑도의 경우는 당일 우체국 배송이 가능한 덕적도에 가서 접수하려고 해도 배시간이 맞지 않아서 당일 배송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그나마 가까운 인천 연안부두 항동우체국까지 가서 배송접수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갈아타야 하고 오후 5시 30분의 마감시간에 쫓겨 매번 내달려야 하는 등 블루베리 생과 배송에 따른 애로사항은 말로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블루베리 생과 배송은 스티로폼 상자에 아이스팩을 넣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데 1~2kg 소단위 판매는 스티로폼 상자 개수가 많아 배송시 부피가 커서 주문을 받지 못하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판매단위를 1상자에 4kg 으로 정해놓고 주문을 받는다.

그럼에도 한번에 6상자, 아이스팩의 무게까지 30kg 이상을 손수레로 운반하기가 어려워 7월 블루베리가 수확될 때는 한 달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룬다.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7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피약벌 아래에서 하루 종일 한 알 한 알 열매를 따고 블루베리 나무 아래 풀을 매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수확의 기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블루베리 묘목을 심고 벌써 4년이 지나서 키도 훌쩍 자란 상태라 과감하게 전지 전정을 해 주고 열매 숙아주기도 잘 한다면 내년에는 보다 나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2019.7월 KBS 1TV의 6시 내고향에서 방영된 문갑도 해풍 블루베리 농장의 사진을 올려본다.



문갑도 해풍 블루베리 농장

우리나라 블루베리 재배는 2006년 한·칠레 FTA 체결이후 시설포도와 복숭아 참다래를 감축대상물로 선정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폐원을 결정함에 따라 대체 작물로 블

루베리가 급부상한 후 재배를 시작하여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블루베리의 다양하고 좋은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초기에 고가(高價)로 열매가 판매되어 2013년 재배 면적이 급속히 늘었고, 2015년 FTA 개방으로 블루베리가 수입되면서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2016년에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블루베리 재배는 그동안 시설포도의 대체 작물로 인기를 얻었으나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앞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바로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아로니아 재배가 수익성이 있었지만 너도나도 아로니아를 재배함으로써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올해는 수확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농업인으로서 더욱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새롭게 블루베리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의 폭락과 피트머스 등 전용토양을 사용하고 관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겠다.

2015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느낀 블루베리의 특성과 재배방법을 정리해 본다.

블루베리는 성목이 되어도 2m 내외 정도까지 자라고 추위와 병충해에 비교적 강하고 뿌리는 수염 같은 잔뿌리이며 수평으로 자라서 지표 가까이에 넓고 얇게 분포하므로 건조에 약해 2~3일에 1회 정도의 관수가 필요하다.

단단한 토양에서는 잘 자랄 수 없어 배수가 잘 되고 보습력이 좋은 곳에 높고 넓은 두둑을 만들어 흙구덩이를 파고 통기성이 좋고 산성(PH 4~5.5)을 띤 피트머스라는 전용 흙을 넣어 재배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처음 몇 년간은 생육이 좋고 열매도 잘 열리지만 세월이 갈수록 피트머스가 단단하게 굳어짐으로 인하여 나무의 활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약 100L 들이 용기에 피트머스를 넣어 재배하는데 용기에 재배하는 이유는 수년이 지난 후 블루베리 전용 토양인 피트머스가 단단하게 굳어 새로운 피트머스로 교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블루베리 재배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첫째, 경쟁력 있는 품종의 선택과 둘째, 과감한 전지 전정의 실시 셋째, 피트머스라는 전용 산성 토양의 교체다.

첫째, 좋은 품종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자의 입맛에 알맞은 열매가 크고, 달며, 맛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블루베리 품종은 추위에 강한 북부하이부쉬 계통과 비교적 따뜻한 제주도나 남해안에서 잘 자라는 남부하이부쉬계통이 있는데 웅진군은 겨울이 추우므로 추위에 강한 북부하이부쉬 계통의 품종을 선택하여 심는 것이 좋으며, 열매가 크고 맛이 좋은 경쟁력 있는 품종인 드래퍼, 휴론, 리버티 등이 유망하다고 하겠다.

둘째, 블루베리는 심은 지 2년 후 부터는 전지 전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과감한 전지 전정이 필요하며, 전정 후에도 적과(摘果)를 많이 실시하여 열매가 튼실하고 크게 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과 판로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셋째, 블루베리는 피트머스라는 전용 흙을 사용하여 재배한다. 흙 두둑에 구덩이를 파고 심은 경우 처음 몇 년간은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달리지만 7~8년 지난 후에는 주변 흙이 딱딱하게 굳게 되어 수평으로 자라서 지표 가까이에 넓고 얇게 분포된 블루베리 뿌리가 제대로 자랄 수 없어 나중에는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트머스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하므로 흙에 직접 심기 보다는 용기 재배가 더 용이하며 현재는 30% 정도 재배하지만 앞으로 용기재배가 늘어날 추세라고 한다.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블루베리 열매는 값이 비싸고 가장 인기 있는 작물로 농가에서 앞 다투어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나 과잉생산으로 값이 폭락하여 앞으로 농가에서 신규 재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블루베리의 다양한 효능 및 달고 좋은 맛과 꽃이 피었을 때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만큼 개별 가정에서는 2~5그루 정도의 블루베리 재배는 권장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해당화는 강한 향기를 내뿜어 곤충들을 불러들인다



오 현 석

Essay # 해당화는 청정 웅진섬에서 자라났다.

영흥도는 대교가 놓이기 전 바닷길로 2시간을 와야 하는 섬이었다. 크진 않지만 선명한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나는 바닷가에서 자연을 벗삼아 놀았던 것 같다. 그때의 나는 파도에 떠밀려온 누군가의 신발과 잡동사니를 보며 쓸모나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바다가 보내준 물건들을 보면서 전(前)주인의 심정을 짐작해 보는 놀이를 즐겨 하곤 했다. 아마 누군가는 실증이 나서 버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실수로 놓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재미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슬퍼서 울었을 것이다. 모래밭에서 건진 이러한 감정들은 나의 친구가 되고, 바다 건너 불빛은 즐거운 대화상대가 되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나는 성장 했고, 바다 건너 친구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ART FARM _NEOTENY | 아트팜 니오타니

유년시절 할머니의 칭찬으로 시작된 미술에 대한 호감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미술은 단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 하곤 하지만 동.서양 철학이 녹아있는 미술학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보다 큰 시야를 갖게 해주는, 정신적 수양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온기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냉소적인 산업을 포용하여 보다 따뜻한 신(新)사업을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농장의 이름은 ‘니오타니 곤충농장’이다. 농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생소한 이름 ‘NEOTENY’의 뜻이다. 니오타니란 생물학적 성장이 끝났음에도 어릴 적 감성과 장난치기, 호기심을 지니고 있는 어른을 지칭하는 용어로 예술가들이 노년에 까지 작업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정신적 모태사상이다. 농부와 예



술가는 정년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이 있다면 나만의 멋진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우리는 순수했던 어릴적 감성을 유지하며 식지않는 열정으로 곤충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곤충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어릴 적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존재일 것이다. 그렇게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듯 곤충이 갖고 있는 잠재성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곤충농장을 운영하며 교육과 체험을 통해 곤충의 우수성을 알리고 식용곤충에게 갖는 혐오감을 없애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식용곤충의 대중화에 일조를하기를 바란다.

INSECT FARM _NEOTENY | 니오타니 곤충농장

2016년 웅진군 농업기술센터의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으로 산업곤충 전문 농장인 니오타니팜이 시작되었다. 사업초기에는 곤충사육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전문적인 사육기술을 터득했고, 곤충사육의 역사가 깊은 중국의 산업곤충 사육기술 논문과 연구지를 살펴보고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안정된 산업화를 진행하기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고 한국의 산업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니오타니팜은 식용곤충을 기반으로하여 산업곤충의 심도 있는 콘텐츠 개발을 인정받아 2018 농림축산식품부와 2019 농촌진흥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성장했다. 최근 '2019 인천 국제 식품박람회'와 '2019 부산 국제 음식박람회'에 초청되어 경쟁력

있는 웅진군 농업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남농업기술원의 박사님들로부터 곤충을 활용한 특허기술을 이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INSECT_VISION

식용곤충은 누에, 백강잠, 벼메뚜기 3종을 비롯해 2016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4종이 일반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며 큰 이슈가 되었고 국가 주도적인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곤충사육에 관심을 보였다. 오늘날 노동임금 상승과 부가가치가 큰 기술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사양 산업이 되었고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은 점점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면역체계가 복잡한 가축들이 환경오염과 질병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현재상황을 우려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식용곤충을 미래식량으로서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곤충농장이 필요한 이유는 식용곤충에 국한되지 않는다. 곤충은 식약용, 정서, 애완, 환경정화, 물질이용, 화분매개, 천적등 산업곤충이라는 더 큰 범위에서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이는 농식품, 비농식품, 융복합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동애 등에 애벌레를 이용한 음식물처리 시스템 해외 수출 사례, 수정벌을 대체할 등애의 사육과 보급, 정서곤충을 활용한 치유 농장 조성 사업, 거미와 슈퍼밀웜의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천적곤충을 활용한 해충방역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곤충은 덩치가 큰 일반가축에 비해 이산화가스 배출이 적으며, 곤충 오일은 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팜유를 대체할 중요한 자원으로서 환경적인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



식용곤충 갈색거저리



곤충으로 만든 아기과자

니오타니팜은 앞서 언급한 우수한 곤충자원을 기반으로 전문성 있는 단기/장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문화곤충을 접목하여 차별화하고 있다. 2016년 1차 사업계획이었던 산업곤충 인공사육장을 준공하였고, 2017년에 가공·유통을 위한 식품제조 가공시설 건립을 완료하였다. 현재는 니오타니 곤충 박물관 (Neoteny Insect Museum) 개소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기 계획으로는 니오타니팜 소유의 1만평 부지를 활용해 곤충치유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곤충을 테마로 살거리, 불거리, 즐길거리, 알거리, 먹거리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웅진군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농촌형 프리미엄 곤충 농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웅진군의 해당화는 강한 향기를 내뿜어 도시의 곤충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IV

발굴·선양해야 할 향토사료

- 북도면편

장봉궁(長峯宮)과 장봉신궁(長峯新宮)

- 연평면편

연평도 조기와 임경업(林慶業) 사당(祠堂)

- 백령면편

백령진 토성(白翎鎭 土城)

- 대청면편

대청도(大靑島)와 원순제(元順帝)

- 덕적면편

덕적도의 3.1 독립만세 운동

- 자월면편

당고사(當告祀)와 해산막(解産幕)

- 영흥면편

삼별초(三別抄)의 항몽기지(抗蒙供地)였던 영흥도

※참고문헌 : 발굴·선양해야 할 향토사료는 인천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보고서」(2000년) 원본의 일부입니다.

장봉궁(長峰宮)과 장봉신궁(長峰新宮)

고려 고종 18년(1231)에 몽고(蒙古-元)가 초려를 침입하자 고려는 다음 해인 고종 19년(1232)에 왕도(王都) 개경(開京-松都)을 버리고 강화도로 왕도를 옮겼던 것이다.

당시의 몽고는 동정서벌(東征西伐)로 아세아와 유럽을 석권했던 대원제국(大元帝國)을 이루었던 최대강국(最大強國)으로서 어떤 나라와도 전쟁으로서는 상대할 수가 없는 몽고였지만 불굴(不屈)의 민족정신으로 무장된 고려무인(高麗武人)들은 호국정신(護國精神)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강국이지만 수전(水戰)에 약한 몽고군과의 장기전(長期戰)을 결의하고 천연의 요새(要塞)인 강화도로 도읍(都邑)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장봉궁터로 추정되는 장소

이 때 고려는 강화도를 강도(江都)라 칭하고 많은 궁전(宮殿)과 관아(官衙)를 지었는데 건물 형태를 모두 개경에 있는 형태를 모방하여 지었으며 1234년(고종 22)까지 그와 같은 건물이 거의 완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고려의 태도에 대하여 몽고에서는 이것은 몽고(元)에 대한 적의표현(敵意表現)임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장 28년간을 7차에 걸친 대공세(大攻勢)로 몽고병이 이르는 곳마다 잿더미가 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으니 국토는 초토화(焦土化)되고 백성은 도탄(塗炭)에 빠져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慘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狀況)에 이르자 할 수 없이 고려는 굴복(屈服)을 하고 원종(元宗) 11년(1270) 개경 환도까지는 40년간이었으니 그 동안의 고려 백성의 고통이야말로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강화도 환도에 따라 개경에서 강화도로 함께 갔던 왕족과 친인척(親姻戚)들, 귀족(貴族)들 중에는 오히려 개경에서 보다 더 호화사치를 누리는 망국적(亡國的) 행위를 했다는데 대하여는 지금 생각해도 통탄(痛歎)하여 마지않으며 분노(憤怒)의 피가 솟는 것을 느끼게 한다.

고려 정부는 이 때 강도(江都-강화도)에 궁전(宮殿), 사찰(寺刹), 궁문(宮門)에 이르기까

지 송도의 것을 모방하여 새로 지었는데 강화사(江華史)에서 강도시대(江都時代)의 유물, 유적편에 의하면 연경궁(延慶宮), 려정궁(麗正宮), 수창궁(壽昌宮), 용암궁(龍巖宮), 궐서궁(闕西宮), 장봉궁(長峯宮) 등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봉궁터로 추정되는 장소

이중에 장봉궁은 웅진군 북도면 장봉2리(坪村-평촌)에 지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별궁(別宮)으로 만약(萬若)에 몽고군(蒙古軍)이 강화도를 침공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왕의 제2의 피난처로 지었던 궁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사 역문(高麗史 譯文) 제2책(冊) 725쪽에 의하면 “원종 2년(1261) 4월에 왕이 장봉궁에 이어(移御) 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어 어떤 사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강화도 본궁(本宮)으로부터 장봉궁으로 거처를 얼마동안 인지는 몰라도 옮겼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년 6월에 장봉궁에 환어(還御)하여 경내(境內)에 이죄이하(二罪以下)를 사면(赦免)하였다 라는 기록은 임금이 강화도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갔다가 장봉궁으로 돌아와 감옥(監獄)에 있는 죄수중(罪囚中) 두 가지 죄 이하로 갇혔던 죄수를 풀어 주었다 라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 장봉궁에 상당히 오랜 기간 거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감옥터라고 전해져 오는 곳.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 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지 20년 후인 1290년(충렬왕16년)에는 원(元-몽고)의 반적(反賊)인 합단(哈丹)이 또 고려를 침공하였다. 이때 충렬왕은 역시 강화도로 피난을 하였던 것이니 이를 대동지지(大東地志) 강화부편(江華府編) (48쪽) 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원(元)나라의 반적(反賊)인 합단(哈丹)이 고려를 침입하여 국사(國史)와 문적(文籍), 궁인(宮人), 부녀(婦女), 노약자(老弱者) 등을 강화도로 옮기고 임금(충렬왕)도 함께 피난하여 선원사(禪源寺)에 머물러 있으면서 왕비와 장봉신궁에 행차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충렬왕 십육년 이합단입관이국사 문적급 관인 부인 노약우 강화왕피병입 우 강화어 선원사 왕여공주(왕자비 원공주) 행장봉궁 설연 고려사 역문(高麗史 譯文) 제3책 (135쪽)에 서도 충렬왕 16년(1290)에 왕이 공주(元의 공주)와 더불어 장봉신궁(長峯新宮)에 행차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기록과 “공자의 병환으로 장봉신궁에 환어(還御)하였다.”라는 기록 등을 볼 수 있는데 충렬왕 때에는 반드시 신궁(新宮)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부왕(父王)인 원종(元宗)때의 장봉궁은 철거하고 1290년(충렬왕 16) 합단(哈丹)이 침입(侵入)하자 강화도 선원사로 피난 와서 거처하면서 장봉궁에다 지난 항몽전(抗蒙戰)때에 부조왕(父祖王)인 고종원종(高宗元宗)이 별궁(別宮)을 지었던 곳에다 새로 지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충렬왕도 1292년(충렬왕18) 개경환도(開京還都) 할 때까지 장봉신궁에 오랫동안 거처한 것을 기록으로 짐작하게 된다.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 원종(元宗)과 또 합단(哈丹)의 침입으로 충렬왕이 모두 장봉도에 제2의 피난처인 궁궐을 지어놓고 강화도 본궁(本宮)에서 오가며 거처한 사실을 문헌(文獻)에서 볼 수 있어 당시의 장봉도의 상황을 추측하게 하고 있으나 장봉궁이나 장봉신궁을 지었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踏査)하여 장봉도 향토사에 관심이 있는 원로(元老)이신 김성옥(金成玉)옹과 정병화(鄭秉化)옹에게 옛 장봉궁지(長峯宮地)를 알아보았으나 오랜 옛날의 일이라 그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봉2리 면출장소 뒤 쪽인 서북쪽 절터골과 옥당머리 중간쯤이라고 한다.

그리고 절터골 근방에서는 지금도 와편(瓦片)이 보이는데 혹시 궁궐이 있었던 흔적인지 절터의 흔적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고 절터골이라하여 절이 있던 곳으로만 알고 있을 뿐 언제 어느때 절이 있었는지도 모르며 고려말이나 조선조 초경이 아니겠나 하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궁(宮)터라고 하는 위치는 해안까지 5~600m 거리의 구석진 곳으로 700여 년 전에는 이곳까지 조수(潮水)가 드나들었고 궁전(宮殿) 앞에까지 수십 척의 병선(兵船)이 정박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큰 만(灣)을 이루고 있었고 또한 먼 밖에는 두루꾸지와 야달뿌리가 에워싸고 있어 지나가는 배들에게 노출이 안 되는 U자형 포곡(浦曲)을 이루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고명(高明)한 풍수학자(風水學者)들의 의견을 모아 별궁(別宮)을 지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때 장봉궁의 주위는 수백 년 자란 거목(巨木)들과 사방은 산봉(山峰)으로 둘러 싸였으

며 주위에는 해학(諧謔)들과 갖가지 새들의 천국(天國)으로 마치 맑은 호수와 같았을 것으로 그야말로仙境지계(仙境之界)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된다.

그러나 이제는 옛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궁전(宮殿) 옛터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궁 앞에까지의 개



당시 절터라고 전해져오는 곳

펄은 근래에 와서 간척사업으로 장봉도에서는 유일하게 넓은 논밭로서 경지정리까지 말끔히 된 장봉 주민의 곡창(穀倉)이 되었다.

그밖에는 장봉도의 중심일 뿐 아니라 북도면에서는 가장 큰 농어촌(農漁村)으로서 200여 호가 밀집되어 있는 면출장소 소재로서 면단위 유관기관(有關機關)과 장봉리 단위 기관 단체들이 집결된 곳이기도 하다. 마을 앞 해안은 어항(漁港)으로 각종 선박들의 입출항으로 전형적인 어촌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곳이 고려 강도시대(江都時代)에 장봉궁 또는 장봉신궁이었던 곳이라는 것을 예전으로부터 잘 아는 이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장봉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보아 고전문학(古典文學)을 할 수 있는 곳이 못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멀리 장봉도 국사봉이 보인다.

근래 향토사료 발굴조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헌(文獻)을 바탕으로 하여 알게 된 것은 내고장 향토사료연구(郷土史料研究)의 큰 수확이라고 확신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섬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문헌던 향토사를 세상에 밝힐 수 있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평도 조기와 임경업(林慶業) 사당(社堂)

연평도에는 조선조(朝鮮朝) 인조(仁祖)때의 명장(名將)인 임경업 장군(林慶業 將軍)의 사당(社堂)인 충민사(忠愍祠)가 있다.

장군의 시호(諡號)를 따서 충민사라 칭(稱)한 것이다.



연평면사무소 앞에서 면장과 현지원로와 대담

사당의 위치는 연평리 산 9-1번지로 서 연평중부리 마을 북쪽 면사무소 우측인 이른바 당산(堂山)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사당을 다녀간 외래객(外來客)이나 풍수학자(風水學者) 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명당(明堂)이라고 말한다.

이 사당은 현재 웅진군 향토유적(鄉土遺跡) 제1호로 지정되어 연평면장 책임하에 보존관리(保存管理)되고 있다.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구전(口傳)에 의하면 인조때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불화가 벌어진 일로 인하여 임경업장군이 관련되어 명나라로 피신할 때 선원(船員)들의 부식(副食)과 식수(食水)가 떨어져 더 이상의 항해(航海)가 곤란하다는 선장(船長)의 말을 듣자 장군은 연평도에 배를 대도록 명령하고 당섬(堂島) 앞의 군두란이 섬과 모이도(毛伊島) 사이의 갯골에다 쓸물 때 가시나무를 베어다 치게 하고 물이 들어왔다 나간 후 이 갯골에 나가보았더니 나무의 가시마다 큰 조기가 걸려 있어 이를 모두 거두어 배의 부식으로 하는 한편 소연평도 마을 앞 바다에서 식수를 구하여 싣고 다시 명나라로 항해를 계속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임경업 장군 사당인 충민사

이때 이 갯골(현재의 안목살)에다가 시나물 쳐서 그렇게 많은 조기를 잡을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이곳 주민들은 임장군의 높으신 선견지명(先見之明)과 명철(明哲)하신 지혜(知慧)에 감탄(感歎)을 금하지 못한채 추모(追慕)

하는 마음으로 서해조기의 수호신(守護神:서해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섬기고가 이곳에 사당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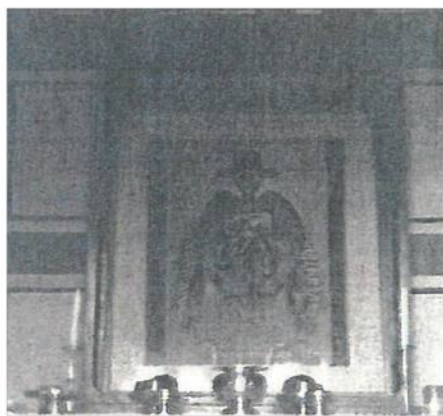
가시나무를 쳤다는 갯골



임경업장군의 사당 전경

그러나 이에 대한 유래(由來)는 구전으로만 이어져 왔을 뿐 문헌상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임장군 사당은 당초부터 현재와 같은 건물형태가 아니었고 유교적(儒敎的)인 제형의례(祭享儀禮)를 벗어나서 다만 풍어신앙(豐漁信仰)으로 무속적(巫俗的)이고 초라한 사당이었던 것은 추측할 수 있으나 건립된지는 상당히 오랜 것으로 전해지도 있다. 한편 조선조 후기(後期)



임경업장군 영정

에 들어서 건립되었다고 하나 고증(考證) 될만한 근거(根據)는 없고 1931년에 화재(火災)로 소실(消失)된 것을 어민(漁民)들과 이곳 주민들의 협조(協助)로 소실전(燒失前)의 사당(祠堂)보다 좀더 품위(品位)있게 지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보수(補修)를 하였지만 특히 1945년에 해병주둔부대가 선주(船主)들과 주민들의 협조를 중건개수(重建改修) 등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69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豫算)을 확보하고 역시 어민들의 협조 등으로 15평의 사당



밑에서 본 충민사

으로 개수(改修)한 것이 현존(現存)하고 있는 사당의 모습이라고 한다.

1950년대 초까지는 사당 올라가는 입구에 “제장(祭場)할아바니 집”이라고 하여 1.5평 정도의 기와를 올린 당진 모양의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은 임사당(林祠堂)에 고사(告祀)를 드리러 올라갈 때 술 한잔으로 신고를 하던 위병소격이었는데 언젠가 헐리고 말았다.



소사나무

사당 안에는 마루방에 제상(祭床)과 촛대, 향탁(香卓) 잔대등이 놓여있고 제상 정면 벽에는 임경업장군의 영정(影幀)이 모셔져 있다. 건물은 맞배지붕에 한식(韓式) 기와를 올린 흙치마 건물로서 정면은 7m 측면(側面)은 3.5m 의 규모이고 전면(前面) 7m는 한식방문(韓式房門)을 달았다. 사당 주위는 1.5m 높이의 담장을 쌓아 정면에는 큰 대문이있어 자물쇠를 달아 출입의 통제(統制)를 하게 되었다 대문 안에는 약10평(坪) 정도의 마당이 있어 제수(祭需)를 비롯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다놓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당 동쪽 담장 앞에는 200년 남짓한 수령(樹令)의 팽나무 한그루가 현재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으며 둘레가6~7m나 되는 거목(巨木)이다. 또 사당 담장 서편앞쪽에는 200여년의 수령으로 추측되는 거목의 소사나무 한그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토사유적인 충민사

지난달 6.25전쟁과 1.4 후퇴로 인하여 운집(雲集) 했던 3만여명의 피난민(避難民)들의 연료난(燃料難)으로 나무 뿌리까지 뽑아 떼고 연평도의 산 전체가 붉은 산으로 변했던 위기(危機)에서도 용하게 살아남은 것이다. 임장군 사당 옆에서 그간 사당을 지켜준 공이 큰 나

무였기 때문에 벌목(伐木)을 하러 왔다가도 임사당과 나무를 몇 번이고 쳐다보거나 만약에 이 나무를 베었다가 피난나온 몸이 후환(後患)이라도 생길까 두려워서 감히 도끼나 톱을 대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고향에 빨리 돌아가게 해 줄 것을 기원했으리라.

이 나무들의 수령(樹令)이 임경업 사당 건립연대와 거의 비슷한 수령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임경업사당의 건축년대는 1800년 전후(前後)인 정조(正祖) 순조대(純祖代)에 건립된 사당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곳 고로(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조말(朝鮮朝末)경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 거의 걸맞는 연대라고 생각된다.

충민사(忠愍祠)의 위치는 누가 보아도 첫눈에 과연 명당이라는 말이 나올만한 자리이다. 마치 인공적으로 조산(造山)한 형국(形局)이기 때문이다.

정남향인 연평항 밖으로는 임장군의 갯골에다 가시나물 쳐서 큰 조기때가 가시마다 걸린 것을 모두 거두어 배의 부식으로 하였다는 안목살(漁箭: 어전)과 그 밖으로 소연평도가 손에 잡힐 듯이 건너다 보인다. 또 그 밖으로는 멀리 덕적군도가 역시 한눈에 들어오게 잘 보이고 그중에서도 높이가 352m나 되는 선갑도(仙甲島-仙俠)는 더욱 유달리 잘 보인다.

연평도 성어기(盛漁期)때에 조기가 연평 어장(漁場)까지 산란기(産卵期)를 찾아 올라오는 경로를 살펴보면 겨울물을 한 동지나해 조기들은 우리나라 흑산도와 법성포(法聖浦) 앞바다를 거쳐 고군산도(高郡山島)와 격열비열도(격열비열도), 덕적도 등을 들러서 올라오는 동안 연평도에는 진달래 꽃필 무렵이 된다. 알이 뱃속에 가득찬 조기들은 이 때 연평도 근해(近海)에 당도하여 연평도를 중심으로 해주만(海州灣) 일대(一帶)와 웅진반도 일대를 회유(回遊)하면서 산란처(産卵處)를 찾는다.

이 조기떼를 찾아 따라온 수천척(2~3,000)의 어선(漁船)은 그물을 쳐서 한 물때에 많게는 80동에서 100동 그리고 30동에서 50동 적게는 10동에서 20동의 조기를 잡아내고 연평항으로 들어와 풀고 임사당에 고사를 드리고 또 출어를 하게 된다. 조기는 한동이 1,000마리(1,000尾)이다. 그야말로 황금어장(黃金漁場)에서 돈을 한배짐씩 물에서 퍼시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이때 조기 한배짐을 돈으로 따지면 당시의 시골 3~4백석 부자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큰돈이었다.

이때가 연평도에는 조기 파시(波市)가 이루어져 별유천지(別論天地)가 형성(形成)되는 것이다. 연평도 조기 파시의 실태는 실제로 현장을 본 사람들만이 서로 대화(對話)가 이루어질 뿐 그렇지 않고 이 조기파시를 못 본 사람들 하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의 그야말로 불가사의(不可思議)의 광경(光景)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2~3천척의 조기잡이 배는 연평도 앞 바다를 메우고 밤에는 휘황 찬란한 배의 등불과 또 하늘에는 크고 작은 억만개의 별빛과 그 별빛이 바다에 함께 비치는 가운데 멀리 수평선에서 서로 맞닿아 불야성(不夜城)의 조기 어장을 이루고 연평도 해안 일대에는 조기 파시의

등불이 또한 낮같이 밝아 역시 불야성을 이루고 연평도 서부 상가(商街)와 해안 전체를 점하고 있는 주점(酒店)에서는 작부(酌婦)와 어부들이 모두 뒤범벅이 되어 흥청망청대는 바람에 온 연평도가 들석들석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연평 앞바다

이렇게 연평 조기파시가 잘 이루어 지는 것이 모두가 임경장군의 혼신(魂神)에게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도 별이가 잘 안된 어선이나 상인들은 임장군사당을 잘 모시지 못하여 부정(不淨)타서 그렇다고 믿으며 다시 제물을 차려 정성들여 다시 고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작부(酌婦)들과 술에 빠져 정신없이 몰때도 모른체 마시다가 자기가 타는 배가 물 때가 되어 출어를 한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하다가 할 수 없이 고향으로 가버리는 선원들의 수도 많았었다고 한다.

또한 여기서 연평성어기에 임경업장군 사당에 고사 드리는 행렬 장면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광경이다.

어선이건 상고선(相賈船)이건 어떤 배라도 연평항에 들어왔던 배는 임경업 장군 사당에 고사를지내고 떠나는 것이 선원들의 신앙(信仰)이요, 생활 신조였다.

제물은 조기를 비롯한 간략한 차림으로 사당까지 올라가는데 워낙 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해안에서부터 임사당까지의 약 1Km 구간을 고사 행렬이 꼭 메우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임장군 기를 선두로 오색기와 징, 북을 치며 뱃 소리와 함께 춤을 추며 올라간다. 한편 고사가 끝나고 해안으로 내려가는 행렬 또한 임사당에서 해안까지 이어닿아 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우불꾸불한 형태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고사 행렬은 역시 장관이다.

임사당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차례가 안 되어서 기다리는 동안은 당산밑에 둥글게 둘러 서서 아기에 맞추어 춤을 추며 “연평도 앞바다에 깔린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 올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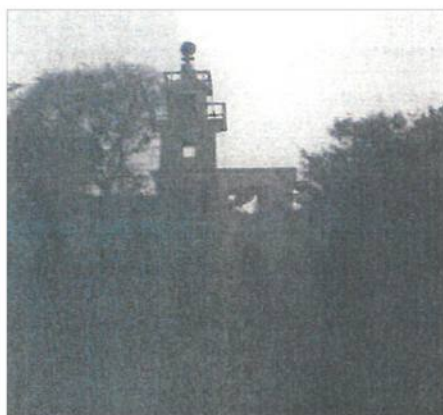
아, 아, 에헤 에헤아아--”의 뱃노래를 부르며 더욱 요란하게 징을 울린다. 이렇게 만선의 꿈을 꾸며 고사행렬이 오색기를 바람에 휘날리며 연평도가 떠나가라는 듯이 징과 북을 치는 광경은 마치 옛날 장수들을 중심으로한 전장(戰場)의 진영(陣營)에서 병사들의 출전의 고함소리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연평도 조기파시도 1960년대 후반부터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렇게 많은 조기들이 종족번식을 위하여 산란차 연평도 어장으로 몰리고 몰려 말 그대로 물반 조기 반의 황금어장이 30여년째 알벤조기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근래 안목살에서 작은 조기가 몇 마리씩 잡힌다는 기쁜 소식만이 들려온다.

이 고장의 기쁜 소식중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헌상에서 보면 연평도 근해에서는 세종대왕 때부터 맑은 조기를 그물로 잡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해주목조(世宗實錄 地理志 海州牧條)에 의하면 석수어산주남연평평(石首魚產州南延坪平)이라고 기록하고 그 밑에 주기(註記)



지금은 사용을 안하는 등대

하기를“春夏之交, 諸處漁船, 比會于此 網取之, 官收其稅, 以資國用(춘하지교, 제처어선, 비회우차 망취지, 관수기세, 이자국용)”이라고 하여 이를 풀이해 보면 “조기가 나는 곳이 해주 남쪽 연평도 바다인데 봄에서부터 초여름(4~5월) 사이에 각처의 고깃배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그물로 잡는다. 관에서는 그 배에서 세금을 거두어 나라의 비용으로 쓴다.”라는 내용인 것 같다. 세종실록 간행연대는 1454년으로 이때나 또는 그 이전부터 이곳에는 조기잡이가 성행했던 것으로 알게 된다.



조개(바지락)를 잡는 어민들

그러나 그렇게 많던 조기는 500여년 만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인가? 임경업장군 신령(神靈)만은 언젠가는 또다시 조기가 올라올 때를 알고 있을 것이다. 임경업장군 사당의 제향(祭享)도 그리고 풍어제도 앞으로 더욱 정성껏 지내보자고 하고 싶다.

임경업 장군은 우리나라의 명장일뿐 아니라 당시 청나라와 명나라에게도 용맹(勇猛)한 지략(지략)으로 도와주어 삼국충신(三國忠臣) 임경업 장군이라고 존칭(존칭)을 받는다. 임경업장군의 사당을 모시게 된 것이 이 고장의 영광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민이라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서해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섬긴다. 임장군의 신령(神靈)에 대하여는 하필미신(何必迷信)이나 무속적 신앙(巫俗的 信仰)이라기보다 수백년을 이어져 오는 연평도의 전통민속 행사이며 앞으로 잊혀져 가다 끊어질까 걱정이다. 이를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관계서 보다 관심 있는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백령진 토성(白翎鎭 土城)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志)에 의하면 고려는 곡도(鵠島)를 백령(白翎)이라 개명하여 진(鎭)을 설치하였으며 현종(顯宗) 9년(1068)에는 이곳에 진장(鎭將)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백령도란 섬 지명이 고려때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고려왕조는 황해 연안에 대한 방어를 일찍부터 중요시했기 때문에 군사상 중요거점인 백령도에 수군진(水軍鎭)을 설치하였고 이렇게 백령진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려사-7, 문종(문동) 5년 2월 경자조(庚子條)〉에 의하면 문종 5년(1051) 백령진에서 화재(火災)가 발생하여 성곽(城廓) 28간(間)이 불타게 되자 백령진장 최성도(崔成道)와 부장(副長) 최송망(崔崇望)을 처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토성으로 추측되는 일대

백령진 화재기록은 그 이전인 정종 9년(1043)에도 보이는데 이때에도 역시 성곽 등이 불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등은 백령진에 대하여는 황해바다 방어(防禦)거점이었기 때문에 성곽을 비롯한 일정한 방어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백령진지였던 현재의 천주교성당과 백령도 길병원(吉病院) 동북쪽으로는 석심토축(石心土築)의 토성지(土城地) 아주 완연하게 남아있고 그 주변 경작지(경작지)나 토성지 외벽(外壁)에서는 와편이나 토기들이 다량으로 흩어져 있는데 고려시대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진촌 토성지(鎭村土城地)의 연원(淵源)은 고려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곳이 백령진장이 거주하던 백령전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043년 정종때의 화재기록에 의하면 성문(城門) 200여간과 함께 창고 50간 민려 300간이 함께 탔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진성(鎭城)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도 진촌 노인층들은 진촌안에서 옛날 불리워지던 지명 그대로 “성밀에, 성뒤, 성안”

등으로 부르고 있어 옛날 백령진성의 위치에 대하여 짐작케 하기도 한다.

한편 1802경에 간행된 작자미상의 백령진지(白翎鎭志) 성지조(城址條)에서도 <토성(土城)의 옛터가 남아 있는데 그 장광(張廣)이 200보(1보(步)-주척(周尺)으로 6척(尺) 평가량) 가량인데 소구(小丘)를 둘러싼 것이 산성(山城)같다.

기유(기유-광해군 1) 설진절목(設鎭節目)에 결책(決策-울장) 입방(入防)한다 하였으니 고려때의 성 모양으로 수축(修築)을 못했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 내용은 고려때의 백령성지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유년(己酉年-光海君 1-1609년)설진때는 고려때의 성 모양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공민왕 6년(1357)에 해적떼의 행패로 진장과 백령도 주민들이 함께 황해도 문화현으로 이주할 때까지의 백령 토성의 형태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웅진군지 역사편 제3장2절 2항 백령지의 변천과정(變遷過程) 116쪽기록(7행)>에 의하면 <백령진성은 고려왕조 어느 때 쌓은 것인지 그 기록이 보이지 않으니 그 이전 삼국시대에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여 백령 토성의 축성년대(築城年代)를 고구려나 또는 통일신라시대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하고 있다. 백령약지(白翎略誌)에 의하면 남포 2리 오군포(五軍浦)에 고려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이곳에서 당군(唐軍)과 격전을 벌였다는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그때에도 이곳 백령도에 수군으로 파견하고 토성까지 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토성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있는 조사단

그리고 현대의 백령성지는 외곽성과 내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길병원(吉病院)앞쪽으로 석축(石築)을 한 흔적이 완연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것이 내성지(內城止)인지 진의 부지(敷地)를 보호하기 위한 석축이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에도 백령토성지가 이렇게 완연하게 일부나마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근래 개발사업이나 또는 다른 용도로 인해 유물(遺物)이나 유적(遺跡)들이 흔적조차 어지고 멸실

훼손(滅失毀損)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있는 옛 백령토성지가 남아있어 조사연구(조사연구)의 자료가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욱 귀중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길병원은 폐원하고 병원은 이전 하였음.



토성에서 발굴된 와편들



또한 조상들의 얼이 쌓여 있는 이고장 주민들은 큰 자부(自負)와 긍지(矜持)를 가지고 보완(補完)은 못하더라도 더 이상 훼손이 없되도록 보호관리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백령토성지야 말로 앞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연구를 하여 이고장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나 이제나 국방(國防)의 요새(要塞)일 뿐 아니라 중국대륙과의 교역(交易)의 거점(據點)임을 관광객이나 그 외의 방문객들에게도 널리 홍보가 되도록 제반 시설보존과 안내시설이 있었으면 한다.

대청도(大靑島)와 원순제(元順帝)



김재호 면장과 그의 면담

동정서벌(東征西伐)로서 대원제국(大元帝國)을 이루었던 몽고(蒙古)는 고려(高麗)고종(高宗) 12(1225) 고려로부터 공물(貢物)을 요구(要求)하여 가지고 원(元)으로 귀로도중(歸路途中) 도적에게 살해 당하고도 이를 고려(高麗)에서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이를 이유삼아 고려고종 18년(1231)에 대공세(大攻勢)로 침입(침입)하였던 것이다.

그때 항거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고려는 왕도(王都)를 강화도로 옮기고 고종 46년(1259)까지 장장 28년간의 항몽전(抗蒙戰)을 벌였으나 7차에 걸친 대공세로 국토는 잿더미가 되고 백성은 토탄에 빠지자 할 수없이 태자(太子)를 원(元)에 보내어 항복(降伏)을 표시하고 40년만인 원종(元宗)11년(1270)에 개경(개경:송도(松都)으로 환도(還都)를 하였던 것이다.

그 후 약100년간을 원(元)나라 황제(皇帝)의 딸인 공주를 정비(正妃)로 맞아야 고려왕위(高麗王位)에 오를 수 있었던 주권(主權) 없는 부마국(駙馬國:사위의 나라)이자 원의 속국(屬國)으로서 가진 치욕과 수모를 받아야 했던 압제기 아래서 대청도가 원(원)의 유배지(유배지)로 이용되는 동안 원의 많은 귀족(貴族)과 태자(太子)들이 유배생활을 하다가 죽거나 풀려서 돌아가거나 한 곳이다. 이렇게 몽고의 귀족들이 대청도로 귀양왔던 내용을 고려사(高麗史)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충렬왕(忠烈王) 6년(1280) 원제(元帝)가 황자(皇子) 애아적(愛牙赤)을 대청도로 유배했다.
2. 충렬왕 9년(1283)원의 실자지(室刺只)를 대청도에 유배를 보냈다.
3. 충렬왕 10(1284)원의 대왕(大王) 활활알(闊闊歹)을 대청도로 유배 보냈는데 동왕(同王)23년(1297)에 사망하였다.
4. 충렬왕 18년(1292) 원의 적당(賊黨) 탑야속(塔也速)을 백령도에, 길출(吉出)을 대청도에, 첩적속(帖赤速)을 조야도(鳥也島:소야도)에 유배했다.

5. 충숙왕(忠肅王)4년(1317) 원의 위왕(魏王) 아목가(阿木歌)를 제주도에 유배하였다가 곧 대청도로 옮겼다.

6. 충숙왕 11년(1324) 원제가 발자태자(渤刺太子)를 대청도에 유배했다.

7. 충혜왕(忠惠王) 즉위년(即位年)(1330)원의 명종태자(明宗太子)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를 대청도에 유배 보냈다가 이듬해에 소환했다.

이와 같이 많은 원의 귀족들이 유배를 왔던 대청도이고 그중에서도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대청도에 유배를 왔다가 이듬해에 소환(召還)되어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皇帝)로 즉위(即位)한 명종태자(明宗太子)에 대하여는 문헌(文獻)이나 전설(傳說)등으로 많은 기록을 남겨 놓고 있어 대청도하면 원순제(元順帝)의 유배와 그가 거처하던 고궁(古宮)터를 말하게 되기도 하는 곳이다.

대청도에서 수집한 작자미상(作者未詳)의 “유산유수 유수유어 지격(有山有水有水有魚之格)”이라는 제목(題目)의 원순제 유배에 대한 글을 쓴 내용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몽고인(蒙古人) 흘필열(忽必烈:구비라이) 후손(後孫) 원순제(元順帝) 태자신황(太子神皇)이 계모의 모함에 의해 암도

(岩島:대청도)로 멀리 유배될 때 고관(高官) 및 친족 친근 서민등 100여호(餘戶)가 함께 바다를 건너 암도(岩島)에 도착하여 자리를 정하였을 때 왕도(王都)에는 필히 삼각(三角)이 있을 것이라하여 현 고주동(庫柱洞) 큰산이 삼각으로 죄어 있어 이를 삼각산으로 정하였으니 현재도 그때 이름이 그대로 존속되어 전해지고 있어 마치 그때를 방불(彷彿)케하고 있다.



궁궐터였던 대청초등학교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정성훈씨가 옛 궁궐터 자리를 구전으로 들었고 외편을 수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옛 묘자리로 현재도 비가 오면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옥죽포(玉竹浦)는 그 지명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궁궐(宮闕) 옛터이며 홍덕희 정승(洪德熙 政丞)의 집터등이 이제도 남아있다. 그리고 말미(末尾)에 <그가 살던 옛 집터가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라고하여 소환되어 황제(皇帝)로 등극(登極)한 원순제를 신황(神皇)이라 칭하였으며 유배당시에 같이 따라왔던 시종자(侍從者)중에는 정승까지 있었고 100여호라 하였으니 6~700여명이 따라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세종실록 지리지 황해도 웅진현편 해도조(世宗實錄 地理志 黃海道 甕津縣篇 海島條)>에서도 <고을서쪽 수로(水路)75리에 대청도가 있는데 이곳에는 고궁삼간(古宮三間)과 뒷간 1간(間)담장들의 옛터가 있다.>라고 기록한 다음 원나라에서 유배왔던 귀족이나 황자(皇子)들의 이름과 년 월을 고려사(高麗史)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 말미에<경오(庚午:충혜왕 즉위년-충숙왕 17년)에 선제태자(先帝太子-명종태자)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가 이 섬으로 유배를 왔다가 임신(壬申:1332) 12월에 소환되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신증동국여지승람 황해도 장연현 고적조(新增東國輿地勝覽 黃海道 長淵縣 古跡條)>에서도 <충숙왕 17년에도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를 대청도에 유배 보냈다가 후원년(後元年)에 소환하였는데 그들이 거처하던 집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 1714년(숙종-肅宗40년)에 이중환(李重煥)이 지은 <택리지 황해도 편(擇里志 黃海道 篇)>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장연(長淵)의 남쪽 큰바다 가운데 대청, 소청, 두섬이 있는데 섬의 둘레가 아주 넓다. 원나라 문종(文宗)이 순제를 대청도로 귀양 보낸일이 있는데 순제는 집을 짓고 살면서 순금불상(純金佛像)을 봉안(奉安)하고 매일 해돋이 때마다 원나라(몽고:蒙古)에 돌아 갈 것을 기원(祈願)하였는데 얼마 뒤에 돌아가서 등극하자 공장(工匠) 100여명을 보내고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감독케하여 큰 절(寺)을 해주 수양산(海州 首陽山)에 지었고 이것을 신광사(神光寺)라 하였다.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전국에서 첫 번째였는데 중간에 불이나서 고쳐 지었으나 옛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

섬은 황폐화하여 사람이 없고 수목만이 하늘을 가렸다. 순제가 심었던 뽕나무, 옷나무, 쭉, 꼭두서나무 등은 저절로 말라지며 궁터의 섬돌과 주춧돌자리가 남긴 자취는 지금도 완연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명종태자가 귀양왔다가 소환된 후에 자취를 알 수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17권 장연현편(長淵縣篇) 백령진 대청도조(白翎鎭 大靑島條)>에서도 고려사 내용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역시 그 말미에 <도중기소거택 기유존(島中其所居宅 基猶存)이라하여 그들이 살던 집터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이와 같이 여러

고문헌(古文獻)에 원순제의 고궁(古宮)의 옛터가 남아있다는 기록과 함께 대청도의 주민들도 내동(內洞), 양지동에 있는 대궐(大闕)터의 유래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대청도에는 언제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노인층(老人層)들로서는 신행전(新行殿)이란 소설을 거의 한번씩은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향이 이야기 책 도는 신행전이라는 소설은 원순제를 신황(神皇)이라고 하여 쓰여진 옛날 소설책인데 근래에 와서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대



궁궐터 자리에서 수집한 와편들

궐터는 60여년전까지도完好하게 남아있었는데 1932년인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모두 묻어서 없애버리고 대청공립보통학교를 지었으니 “대궐터”는 영영 볼 수없이 묻히고 말았다.

이 학교는 1921년 5월1일 대청사숙으로 개교하여 29년 3월 14일 대청사립보통학교로 인가받아 32년 3월 1일 대청공립보통학교로 다시 인가 받아 운영해오다 현재는 99년 3월 1일 대청초, 중, 고등학교 통합운영 방침으로 제24대 신흥기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청도의 원로(元老)인 김정옥옹(金晶玉翁)이나 문순곤(文淳坤)옹의 말에 의하면 20세전까지도 그 궁궐터의 섬돌(계층돌)과 주춧돌이完好하였다. 하며 오늘날과 같이 향토사료(鄉土史料)나 고족(古蹟)들의 자료를 구하는 시대가 올 줄 알았다면 고궁터만은 남겨놓고 학교를 지었을 것인데 그때 어른들은 그런 생각도 못 하였을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민족의 역사문화(歷史文化) 말살 정책(政策)과 함께 숭화사상(崇華思想)까지도 말살 한다는데서 원순제의 궁터가 남아 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없애버린 잔악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본래 학교터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구태여 꼭 궁궐터를 없애 버리면서 까지 학교를 옮겨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대궐터가 있던 위치이니까 풍수학상(風水學上)으로 보아도 명당(明堂)임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문순곤 옹과 조사자들과의 면담



현재 들어선 학교와 궁궐터

조사자일행이 궁궐터 조사 및 수소문한 결과 궁궐터를 확인하는 와편과 증언을 듣고 당시의 궁궐터를 확인하였으나 현재는 학교만이 세워져있어 전문가의 수집품 검증이 요구된다.

대청도는 암도라고 할만치 해안이 모두 기암괴석(奇巖怪石)의 절벽으로 둘러 쌓여 절경(絶景)을 이루고 있고 또 섬에 비하여 산이 높아 계곡은 깊고 좁아 평지를 볼 수 없는데 유독(惟獨) 원순제가

귀양살이를 하던 이곳 내동만은 전업농가(專業農家) 수십호(數拾戶)가 살수 있는 평지(平地)를 이루고 있다.

이 내동평야는 삼각산 줄기를 비롯하여 높은 산줄기로 둘러 쌓여 있어 섬이라도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섬이라는 느낌을 모르고 사는 곳이라고 한다. 여기서 동북간(東北間)으로약 1.5km 떨어진 해안인 옥죽포(玉竹浦)는 내동의 문호(門戶)이기도 하다.

문순곤(文淳坤)옹의 말에 의하면 원순제가 태자때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이곳 내동 지역을 장안(長安)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장안은 당(唐)나라의 옛 서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안이라 하면 서울의 별칭(別稱)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옥죽포(玉竹浦)는 당시에는 옥지포(玉趾浦)불렸다고 하며 원순제가 유배를 와서 대청도에 배를 대고처음 발을 디딘곳이라 하여 옥지포라고 하였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오늘의 옥죽포를 옥자포(玉子浦)로 기록되고 있어 옥지포와 거의 비슷한 맥락(脈絡)의 지명(地名)이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당시 이곳으로 유배를 온 명종태자는 이곳에 와서 산명을 삼각산, 마을지명을 장안, 옥지포 등으로 불렀던 것은 비록 귀양살이를 온 태자라 하지만 “내가 있는 곳도 왕도(王都)이다.”라는 생각으로 규모(規模)는 적었지만 궁궐을 짓고 거처하였고 시종자(侍從者)중에는 정승(政丞) 있었으니 6~700여명의 시종자들과 함께 이곳 내동 일대에다 왕도의 모양을 갖추고 귀양살이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대청도의 고주동(庫柱洞)은 <조선왕조실록 정조왕편>에 고사동(庫舍洞)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순제가 6~700여명의 식구들과 같이 먹을 식량(食糧)을 저장(貯藏)할 창고(倉庫)를 지었던 곳이라 하여 고사동이라 하였는데 이곳은 대청도에서는 가장 오지(奧地)로서 해적들의 약탈(掠奪)이나 도난(盜難)의 방지책(防止策)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많은 시종자들의 식량과 그의 따른 생필품을 옥죽포에서 내리고 이를 내동 궁궐까지 운반하는데 10여일이 걸렸고 그 거리는 10리였다고 전해 왔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수백년 자란 각종 수목(樹木)과 침녕쿨을 비롯한 각종 녕쿨이 하늘을 가리었고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거하고 도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인력으로 운반하는데 몹시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약 1.5km 거리였지만 10리 길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 되었을 것이다.



고주동 일대

그리고 이때 고려는 원의 부마국(駙馬國)이자 속국이었기 때문에 귀양살이 온 태자였지만 모든 일에 최대한의 예우(禮遇)를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要求事項)은 무엇이던지 들어주어야 했는데 당시 대청도 안에는 태자가 마실만한 식수(食水)가 없으니 수질(水質) 좋은 식수를 육지에서 공급(供給)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고려조정(高麗朝廷)에서는 이곳 대청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웅진반도에서 수질 좋은 우물을 선택하였는데 오늘의 미수복지(未收復地)인 웅진반도의 교정면(交井面)에서 가장 좋은 우물물을 공급하였다.

이 우물을 헌수정(獻水井)이라 하였고 또 이식수를 공급하는데 감독관(監督官)이 고려조정의 판서(判書-지금의 장관급)를 직접 파견(派遣)하여 주재(駐在)토록 하였다. 그래서 이 우물이 있는 곳의 마을을 판서동(判書洞)이라 칭(稱) 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식수공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에 대하여 많은 전설(傳說)과 일화(逸話)가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귀양살이 온 태자이지만 고문헌(古文獻)이나 전설에 의하면 웅진반도와 해주(海州) 수양산(首陽山)과 기타 명승지(名勝地), 그리고 가까운 소청도 등을 유람삼아 돌아다니면서 남긴 자취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해주 수양산을 유람하던 중 어느 곳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부처가 나타나서 태자에게 원하기를 “나는 거처할 집이 없어 이렇게 한데서 비와 눈을 맞으며 고통(苦痛)을 겪고 있으니 내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환국하여 등극하리라”라고 하여 깜짝 놀라 꿈에서 깬 태자는 “괴이한 꿈이로다”라고 생각하여 눈을 비비며 앞쪽을 바라보니 무슨 불빛이 비쳐서 가까이 가서 보니 금불상(金佛像)이 풀 속에 있는 지라 태자는 이를 대청도 궁궐에 모셔놓고 대일 해돋이 때마다 환국을 원하는 기도를 하였

는데 얼마 후에 소환되어 등극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소환되어 등극한 원순제는 여러 가지로 나라 일에 바쁘다 보니 미처 수양산에서 부처와 약속한 일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또다시 꿈에 부처가 나타나 약속을 안 지키다고 호통을 하거늘 이때 원순제는 불야불야 100여명의 공장(工匠)과 자재를 보내어 수양산에 절(寺)을 지으니 그절이 원순제의 원찰(願刹)인 신광사(神光寺)이다.

이외에도 웅진반도 교정면(交井面)의 국사봉이나 요래동(堯來洞) 승총(僧塚) 등의 유래가 모두 원순제와 관계되는 내용들이다.

소청도 예동(禮洞) 동쪽의 분암(紛岩-분바위)에서도 원순제가 유배때에 유람차 갔다가 이곳 분암바위 해안일대가 너무나도 기이하고 아름다워 놀고 갔다하여 신행이 놀고 간 자리라 하여 오늘날까지 전설(傳說)과 일화를 남기고 있다.

대청도 서내동(西內洞)에서 사탄동(沙灘洞) 넘어가는 바른쪽편 산속의 돌들이 깔린 곳이 호인(胡人)의 공동묘지 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도굴등으로 (墓)의 형체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관심 없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이 호인묘지(胡人墓地)였다면 역시 원순제 일행 중에서 사망한 자들의 묘가 아니었겠나 하는 추측들이다.



대청도 선진포구

이렇게 원순제는 대원제국(大元帝國)의 운명이 그 종막(終幕)을 고향무렵의 태자로 태어나 계모의 모함(誹謗)이건 원(元) 황실(皇室)의 권력(權力)다툼이건 간에 대청도로 귀양살이를 왔던 비운(悲運)의 태자가 황실의 권력변화로 인하여 소환되어 황제에 오르는 행운아가 되어 대원제국(大元帝國)을 호령(號令)하였지만 원의 마지막 황실로서 몽고(蒙古)의 진기스칸(성길사한-成吉思汗)으로부터 15대(163년) 원의 태조인 구비라이로부터 10대(109년)를 끝으로 재임(在任)34년만에 대원제국의 막(막)을 내린 비운의 황제이기도 하다.

원순제는 태자때에도 대청도 유배중에 거처하던 궁실(宮室)의 옛터가 현재 초등학교 건물에 들어 앉았지만 학교 주변에 기와 조각과 도자기편이 산재해 있어 옛 궁터임을 확인(確認)해 주고 있으면서 삼각산과 옥죽포(玉竹浦), 고두동(庫柱洞), 호인묘지(胡人墓地)와 함께 원순제에 대한 이야기가 비록 귀양살이는 왔었지만 많은 시종자(侍從者)들이 따른 그의 위엄(威嚴)과 계모의 모함이라는 동정섞인 이야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청도에서는 끊임 줄 모르고 오고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섬들이 있지만 대청도와 같은 향토사문화(鄉土史文化)를 지니고 있는 섬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그 내용을 약기(略記)한 안내판(案内板)이 섬 입구인 선지포(船津浦)에 있었으면 외래객(外來客)들에게도 아주 좋은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덕적도의 3.1 독립만세 운동

덕적도는 인천항으로부터 서쪽 멀리 17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섬으로 당초의 입도조(入島租) 때부터 학문의 열풍(熱風)이 육지 못지 않게 앞서있어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를 앓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전설은 오늘까지 이어져 있고, 섬태생으로 대학 교수가 많은 곳이 덕적도 이기도 하다.

또한 덕적도에 가서 글아는 체를 말고 풍월(風月) 짓는체 하지 말라는 말이 육지에서도 유행어처럼 퍼져있었다.

특히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간악한 술책으로 한일 합방을 획책할 무렵에도 이곳 덕적도는 신학문(新學問)의 열풍이 전도(全島)와 그 부속 도서까지 파급(波及)되어 육지를 앞지르고 있었으니 마을마다 사숙(私塾)과 학교가 설립되어 신, 구학(新, 舊學)을 겸비(兼備)한 젊은 지성인(知性人)이 배출되었고 섬이었지만 구한말에 전파되어 들어온 기독교 문화를 앞장서 체득 하므로써 개화의식이 고조된 고장이었다.



기미 3.1독립만세 기념비

마을마다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학문은 날이 갈수록열이 가해지면서 한학서당(漢學書堂)에서 청장년들이 사립학교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자 신학문에 의한 반일 애국청년(反日 愛國靑年)들이 날로 늘어났다.

그 배경에는 이 섬의 향학열(向學熱)에 대한 전통에도 있었겠지만 당시 간악한 일제압정(日帝壓政)에서 벗어나는 구국(救國)의 교육이라는데서 모두가 앞장서 신교육을 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개화의식의 교육은 1919년 기미년(己未年) 3.1 독립만세(獨立萬歲)를 주동하고 왜경(倭警)의 총검(銃劍)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불렀으니 보람찬 애국의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열화는 섬 안에서는 끊이지 않고 인천, 서울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 유학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인천, 서울 등지에서 중등학교를 마친 젊은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대대로 이어오는 어업(漁業)에 종사하면서 주민계도(住民啓導)로 애국정신과 반일정신을 가슴깊이 심어주는데 큰 몫을 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일 합방전에 덕적도에 설립되었던 사립학교(私立學校)와 교사들은 다음과 같다.



기미 3.1독립만세 기념비

- 명덕사립학교(明德私立學校) : 현재 진1리 110번지 1907년 설립
이때 명덕사립학교 교사(教師)는 김포군 월곶면 부안 임씨(扶安 林氏)로서 통진(通津)에 있던 창신학교(學校昌新)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3년 동안 잡고 있다가 1912년 27세 당시 덕적도 명덕학교로 부임(赴任) 8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애국청년들을 길러내고 3.1 독립만세를 주동하고 35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심한 고문(拷問) 끝에 옥사(獄死)를 한 애국지사이다.
- 명신사립학교 : 현재 북리인 쑥개에 설립하였다가 후에 소재마을로 옮겼다 함. (垵 260번지) 1907년 설립. 이때 이 명신학교 교사(教師)는 배명선(裴明先)이었다.
- 합일사립학교(合一私立學校) : 현재 서포2리에 1908년 감리교회가 설립되면서 같이 합일학교도 설립되었다.

교사(教師)는 이재관(李載寬) 차경창(車敬昌) 두사람이었는데 한학(漢學)을 마치고 진말명덕학교(교사(教師)-임용우(林容雨))에서 속성과(速成科)를 마치고 합일학교 교사를 하였다.

기미 독립만세 운동(己未獨立萬歲運動)의 주동자로 8개월 언도(言渡)를 받고 옥생활(獄生活)을 같이 한 애국지사이다.



멀리 오른쪽에 기념비가 있는 진말

당시 이재관 23세, 차경창 20세였다.

이때 서울에서 성경학교(聖經學校)를 다니던 덕적면 서포 2리 태생 이동응(李東應)이 3.1 독립만세 사건의 여파로 고향인 덕적도 벚재(회룡골앞)로 귀향하는 길에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1부를 버선에 숨겨 가지고 돌아와 자기 조카인 이재관(李載寬-합일학교 교사)에게 주면서 소각(燒却)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재관은 그 선언문을 읽는 순간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스스로 자기를 달래면서 그날 밤 동지 몇 사람과 회룡골에서 논고문(論告文-격려문)을 붓으로 50여매를 작성하여 덕적도를 일주하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길, 고개 벽에다 붙이고 돌로 눌러놓고 하여 전도민에게 논고문을 알리는 주동역할을 하였다.

당시 논고문이란 이번 독립운동에 다같이 참가하자고 알려주는 문서로서 이재관이 직접 쓴 것이다. 그 논고문 중에는 “막비왕민(莫非王民)이요 막비왕토(莫非王土)”라고 하여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고 임금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애국(愛國)으로 충성(衷誠)을 다하자고 맹세(盟誓)하는 유고문이었다고 한다.

이때 명덕학교 선생인 임용우는 자기 고향인 김포에 가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동하여 끝을 마치고 덕적도의 3.1 독립만세를 주동하기 위하여 덕적도에 돌아와서 이미 이재관 등이 논고문을 전도(全島)에 알리었음을 알고 그 논고문을 가지고 이재관을 직접 찾아가서 논고문을 보이면서 “이것이 자네 필적이 아닌가 내가 없는 동안에 큰 수고를 하였네.”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였다.

임용우 선생은 김포에서 만세를 부르고 덕적도로 돌아오면서도 덕적도 만세운동에 군중(群衆)들을 집합시킬것이 큰 걱정이었으나 생각 끝에 춘계대운동회(春季大運動會)를 개최하고 각 학교는 물론 마을사람들까지 모이도록 이재관, 차경창 등과 합의를 보고 마을마다 연락을 하였다.

이날 덕적도면 춘계대운동회에는 도내(島內) 3개 학교와 소야도 사숙(私塾), 면내 유지(有志),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간단한 경기로 끝을 내자 이때 운동회에 참석하였던 왜경 “백근(白根)”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한 끝에 임용우 선생의 연설이 있었고 다음에 이재관 선생의 논고문 낭독이 있은후 만세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장소는 진 1리 현 중고등학교 해변으로 산66번지 송림지대(松林地帶——云松汀)였다.

이때 이곳에 모인 군중들은 2백여명이었다고 전해오고 있어 섬에서는 대단한 인원의



기념비가 있는 소나무 숲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산을 한 군중들은 다시 자기네 마을로 돌아가서도 산봉에는 봉화를 놓고 만세를 부르다가 늦게야 모두 해산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기미년 3.1 독립만세 사건으로 일제의 총검에 의하여 학살된 우리 애국 동포의 수는 부지기 수다.

그런데 덕적도의 3.1 독립만세 현장에서는 한사람도 왜경에 의한 피해를 받은 사람 없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당시 덕적면 면장 김현호(金顯鎬)씨와 부천군대 부면 경찰관 주재소에서 덕적면에 파견되어 나와있던 일인(日人) 순사 백근(白根)과의 밀약이 맺어졌으니 3.1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절대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왜경인 백근(白根)이 이를 인천경찰서에 보고하지 않기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이 백근(白根)이란 일인 순사는 우리말이 유창하였던 자로서 조용히 만세만 부르다만 절해고도인 섬에서 이러한 사건으로 타지(他地)에 영향이 갈 만큼 당시의 메스컴이 없었으니 자기의 신변 위협이나 치안상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밀약 성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멀리 떨어져있는 섬에서 이와 같이 섬 전체 군중이 시작부터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그것도 일본 순사를 설득하여 만세를 외치는 현장을 보고도 못 본체 하게한 사실 등은 당시 덕적면장 김현호씨를 비롯한 지도층들의 높은 지혜가 한데 뭉쳐졌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높은 수준은 신,구학을 모두 체득한 교육의 힘으로 오직 독립을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무장이 되었고, 특히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개화정신이 가세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김포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임용우 선생은 체포령이 내려 왜경들이 쫓고 있었고 또 덕적도 만세 사건은 울도(蔚島)에서 그 진상이 밝혀지고 말았으니 그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덕적도 만세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인천경찰서는 그 2~3일후에 경비정을 가지고 울도 앞바다에 있던 망대(望臺)를 철수하기 위하여 덕적도를 들러 김현호 면장도 이 경비정에 같이 타고 울도에 가게 되었는데 울도에 거의 다가서 왜경이 울도쪽을 바라보니 산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왜경은 즉각 경비정에 장착된 포를 작동하여 만세 부르는 현장에다 사격을 하려하자 김현호 덕적면장이 애걸하여 포격을 못하게 하고 도착하자마자 주모자를 체포하여 문초하게 되었는데 이때 만세를 운동에 참가하고 울도에 돌아와서 주민들을 모두 산마루로 모이게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이인응은 덕적도 서포2리 벼개 사람으로 울도 사숙(蔚島私塾)의 선생으로 와서 있었는데 덕적도 춘계운동회에 제자 몇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같이 만세 운동에 합류하고 와서 만세를 부르는데 주도하였던 것이다.

이인응은 왜경의 문초를 받게 되자 할 수 없이 덕적도 독립만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모두 밝힐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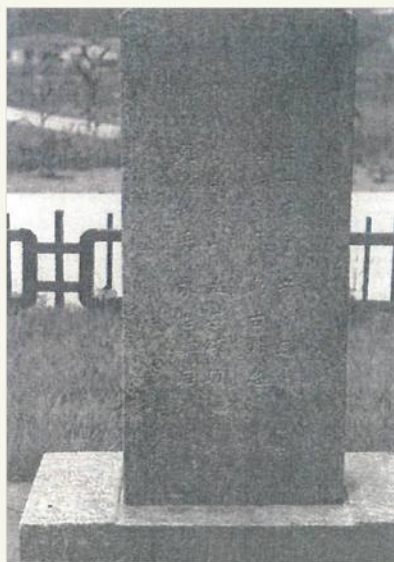
덕적도 기미독립만세 사건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자 주동자(主動者) 임용우 선생은 체포되어 1919년(일제(日帝) 大王 3년) 경성(서울) 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 연도를 받고 이재관, 차경창은 각각 8개월의 연도를 받았다.

임용우 선생은 악랄한 왜경의 고문에 못이겨 1919년 5월 10일(음.4월 13일) 35세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게 되자 주소지인 덕적도로 신병인도를 통보하자 이를 인수하여 업고 나왔으나 이미 운명(殞命)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1919년 5월 10일의 일이다.

이재관(당시 23세)과 차경창(당시 20세)은 1심에서 8개월을 연도 받고 복심법원에 공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1심대로 형량을 채우고 나온 젊은 애국지사이다.

이들은 이제 이세상에 안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남기고 간 숭고한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은 길이길이 빛을 더하여 전해져 우리 후세들에게 고귀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임용우 선생 송덕비

• 임용우 선생(林容雨 先生)의 송덕비(頌德碑)

일본이 망한 8.15해방 후인 1948년 3월 1일 선생의 옛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면민일동이 건립한 것으로 당초에는 면사무소 뒤잣등(도우잣등)에 세웠다가 진리 중고등학교 앞으로 옮겨졌고, 1981년에 기미 3.1 독립만세 기념비를 세우고 그 옆으로 또 다시 임용우 선생의 송덕비를 옮겨 현존(現存)하고 있다.

- 비문(碑文) : 전면(前面) / 殉國烈士林容雨 先生永世不忘碑(순국열사 임용우선생 영세불망비)
후면(後面) / 三一運動義重泰山守節死義付史鐫石(삼일운동 의중태산 수절사의 부사전석)

革命鬪士 死經鴻毛 萬古丹忠 永世不忘

임용우 선생 송덕비(혁명투사 사경홍모 만고단충 영세불망)

• 기미3.1 독립만세 기념비 (己未 3.1 獨立萬歲 紀念碑)

1981년 덕적면인(덕우회 공동) 일동이 건립한 기념비이다.

이 기념비 옆에는 임용우 선생의 송덕비와 옛 덕적진장이었던 첨사 선정비(僉使 善政碑)가 함께 옮겨서 보존되고 있다.

당고사(堂告社)와 해산막(解産幕)



멀리 산뒤에 해산막이 있었다.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인간은 자연을 숭배하며 초자연적인 절대 신(神)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풍습은 지금까지 잔존(殘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몇날 몇 달을 거센 파도를 타고 갈매기를 벗 삼아 고기떼를 찾아다니는 어부(漁夫)에게는 누구보다도 이 같은 굳은 신앙(信仰)과 그들의 생활신조가 있고 오늘날까지도 해안마을이나 특히 섬마을에서는 여전히 이를 지키는 풍습(風習)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이작도에서나 소이작도에서도 이와 같은 풍습은 오랜 옛적부터 전해져 오는 큰 행사로써 풍어(豐漁)는 물론 해상(海上)에서의 무사고(無事故)와 마을 전체의 무사태평(無事泰平)을 기원(祈願)하는 행사로 8월 추석(秋夕)이나 12월 30일 또는 동지달 보름 전후를 기하여 당고사(堂告社)를 지내는데 이 당고사를 지낼 때 잡으려고 키워놓은 소를 잡고 온 동네가 정성을 다하여 년중 행사 중 가장 귀중(貴重)하고 엄중(嚴重)하게 부정(不正)을 피하는데 서로 도와야 하는 행사이다.



소이작도의 원로들로부터 사료를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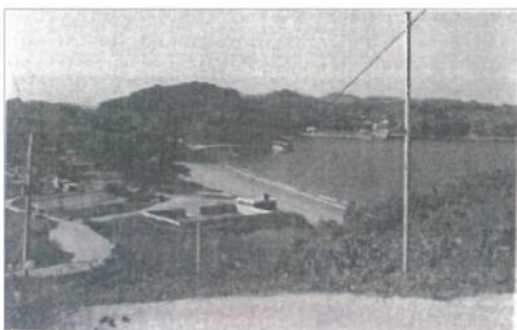
특히 대·소이작도에서는 이때 다른 곳과는 유달리 다른 풍습이 있었는데 당제사를 지내는 날 임박하여 애기를 낳는 것도 일종의 부정이라 하여 집에서 애기를 못 낳고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외진 곳에 막(幕)을 치고 그곳에서 당제사 전에 낳으면 집으로 돌아오고 전에 못낳게 되면 당고사 끝나는 날까지 막(幕)

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풍습이 있었다.

이곳에 현재 60여세 이상 되신분들 중에는 이러한 해산막(解産幕)에서 낳은 분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산막이 있던 곳이 대이작도에서 팔각정이 있는 부아산 서쪽 골자기인 휘청골이었고 소이작도에는 별안 동남쪽 뚝끝에다 해산막을 쳤었다고 한다.

이렇게 가족과 남편의 무사고와 마을의 태평(泰平)과 부모님들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위하여는 젊은 부인(婦人)들이 이와 같은 고통(苦痛)도 감수(甘受)해야 했던 섬 생활이기도 했다.



소이작 별안해수욕장

그러나 개화(改化)된 문명(文明)에 따라 많은 생활의 개혁(改革), 신앙의 개혁 등으로 옛날과 같은 무속신앙(巫俗信仰)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시골이나 특히 섬 생활에선 자연숭배(自然崇拜)의 풍습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풍습은 우리 민족이 고대(古代)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소이작도의 손가락바위

삼별초(三別抄)의 항몽기지(抗蒙基地)였던 영흥도(靈興島)

영흥도는 고려시대부터 문헌(文獻)에 나타나기 시작한 섬으로서 섬의 이름도 지금의 영흥도(靈興島)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간혹 중간에 연흥도(延興島) 또는 연흥도(燕興島)등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 알고 표기(表記)된 지명(地名)으로 생각된다.

영흥도는 고려 고종(高宗)때의 항몽전(抗蒙戰)에서 패(敗)한 고려가 몽고(蒙古)에게 굴복(屈伏)한후 1270년부터 1273년에 이르기까지 삼별초군(三別抄軍)의 항몽전(抗蒙戰)때 서해중남부지역(西海中南部地域)의 연계 기지로서 항쟁했던 내용을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볼 수 있다.

고려는 고종 18년(1231) 몽고가 침입(侵入)하자 왕도(王都)를 강화도(江華島)로 옮기고 장장 28년간의 항몽전 끝에 항복(降伏)을 하고 40년만인 원종(元宗)11년(1270) 5월에 개경(開京:松都)에 환도(還都)를 하게 된다.

이때 오랜 항몽전에서 모든 싸움에 선두(先頭)에 섰던 삼별초의 지휘관(指揮官)이었던 배중손(裴仲孫)과 장수(將帥) 김통정(金通精)등은 몽고에 대한 항복을 반대하여 고려정부(高麗政府)에 반기(反旗)를 들고 몽고에 대하여 계속 항쟁(抗爭)을 결의(決意)하고 고려의 왕족(王族) 승화후온(承化候溫)을 왕으로 옹립(擁立)하고 선함(船艦) 1천 여척(餘隻)에 공사재물(公私財物)과 백성들을 모두 싣고 장기전(長期戰)을 펴기 위하여 같은 해 8월19일 진도(珍島)로 근거지(根據地)를 옮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강화도를 출발한지 74일이란 너무나도 오랜기간 후에 진도에 도착 하였는데 이것은 곧 바로 진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간의 항몽요지(抗蒙要地)를 두루 살피며 그곳을 경유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關)해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권 18 원종(元宗)11년(1270) 6~8월(487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원종11년(1270) 6월3일 김방경(金方慶)을 역적(逆賊)을 역적(逆賊)-삼별초를 말함> 추토사(追討使)로 삼았다.

군사(軍士) 60여인(餘人)과 송만호(宋萬戶-몽고인)등 1천 여명의 몽고병(蒙古兵)이 삼별초를 추격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러 적선(賊船)을 바라보니 영흥도에 정박(碇泊)하였다.

방경(方慶)이 이를 토벌(討伐)하려 하였으나 송만호(宋萬戶)가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만 두었는데 적은 그만 숨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삼별초가 진도로 남하도중(南下途中) 영흥도에 들러 위치와 섬의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이곳에 2개월여를 머무르며 항쟁(抗爭)에 임(臨)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때 몽고는 용맹(勇猛)했던 삼별초를 크게 두려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삼별초의 주력(主力)은 진도로 옮겼으나 원종 12종(1271)에 점령되자 제주도로 다시 옮겼고 원종13년(1272)까지도 영흥도는 계속 삼별초의 항쟁기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고려사 27년, 원종13년(1272) 11월 기사조(己巳條)에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원종 13년3월 기사(己巳)에 삼별초가 거제현(巨濟縣)에 들어와 전함(戰艦) 3척(隻)을 불사르고 현령(縣令)을 잡아갔다.

적선(賊船)이 또 영흥도에 정박하고서 근경(近境)을 횡행하거늘 왕(王)이 원수(元帥) 혼도(忻都)에게 기병 50으로 하여금 호위케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영흥도를 삼별초의 대항몽기간(對抗蒙期間)인 1270년부터 1273년 까지 계속 항쟁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삼별초가 영흥도를 항몽 기지로 삼은 것은 진도를 근거지로 삼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원종(元宗)이 몽고와 결탁하고 삼별초를 추토(追討)하는 이상 항쟁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서남방(西南方)에 근거지를 옮겨가지고 적어도 서해남부일대(西海南部一帶)를 삼별초의 세력권(勢力圈)에 넣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건(條件)이 적당한 곳이라야 했는데 영흥도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섬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육안(肉眼)으로 육지(陸地)를 볼 수 있는 거리였고 지금도 그렇듯이 섬의 면적(面積)에 비하여 많은 농경지(農耕地)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해 중부지역과 서해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대 이며 해로상(海路上)의 요충지(要衝地)이었다.

대부도(大阜島)도 좋은 조건이었으나 육지와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적으로부터 노출(露出)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가 기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영흥도는 옛 부터 농경지(農耕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농사

(農事)를 지으면서 군량(軍糧)공급에 최선을 다하였던 곳으로 알려졌지만 농경지가 부족하였던 섬들에서는 몽고군이 철수했다면 모두 육지로 나와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영흥도만은 몽고 침입때에 입주(入住)하였던 피난민(避難民)들도 오히려 이곳에 정착(定着)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섬은 임야(林野)도 얼마든지 개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고 또 영흥도의 해안선은 국사봉(國思峰)과 양노봉(養老峰)을 중심으로 구곡(屈曲)이 많은 편으로 어장(漁場)이 많고 간조시(干潮時)에도 패류(貝類)와 해조류(海藻類)를 얼마든지 채취(採取)할 수 있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안 되는 섬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와 같은 곳이 모두 간척지사업(干拓地事業)으로 답조성(沓造成)이 되어 1년 생산량으로 4~5년을 먹을 수 있는 쌀 생산지로 널리 알려지기도 한 고장이다.

삼별초가 700여년전 이곳을 기지로 삼았을 때에는 오늘의 논밭은 재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으로 만조(滿潮)때에는 산곡(山谷)깊숙이까지 만곡(彎曲)을 이루어 많은 배를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었던 좋은 포구(浦口)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條件)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왕래하면서 항몽기지로 삼았던 섬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고서도 이곳을 항몽기지로 이용 했다는 것은 서해중부와 남해쪽의 중간지점을 뿐만 아니라 경기만을 육안으로 자세히 정찰(偵察)할 수 있어 러몽연합군(麗蒙聯合軍)의 활동상황까지도 거의 알 수 있는 첩보기지(諜報基地)로도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었으리라 믿어진다.

이렇게 영흥도는 몽고의 지배를 반대하는 항몽(抗蒙)기지로써 삼별초군이 최후(最後)의 죽음을 택할 때 까지 다양(多樣)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곳이었음은 6.25전쟁때 인천상륙작전 첩보기지가 영흥도였음을 새삼 되새겨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러몽연합(麗蒙聯合)의 추토(追討)로 삼별초의 수령(首領)이었던 배중손(裴仲孫)은 진도에서 전사(戰死)하고 삼별초의 장수(將帥) 김통정(金通精)은 마지막 항쟁기지였던 제주도(탐라-耽羅) 토벌(討伐)때에 산에 숨어 자결(自決)하므로써 몽고의 지배(支配)와 압제를 반대하고 나섰던 삼별초의 무인정신(武人精神)은 애절(哀切)한 종말(終末)을 고(告)하고 약100여년간을 고려는 몽고의 심한 압제 밑에 속국(屬國)으로 가진 치욕과 수모를 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40년간이란 항몽전(抗蒙戰)에서 고려국토는 잿더미가 되고 죽어간 백성은 수십만 (數十

萬)에 이르러 몽고로 끌려간 백성 또한 수십만 이라고 하였다.

인류(人類)의 역사(歷史)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만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낳으면서 인류사회(人類社會)는 존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엄청난 피해(被害)를 입고 또 몽고의 속국(屬國)이 되어 압제를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몽고와 항쟁을 하다가 죽는 편을 택했던 삼별초의 반기(反旗)는 당시에는 역적이었고 비록 항쟁에서 패배(敗北)는 했으나 고려무인(高麗武人)의 항몽의식(抗蒙意識)과 자주성(自主性), 전통적인 고려무인의 기상(氣像)을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도 삼별초의 항몽 요충지로서 3년간이나 같은 운명(運命)을 택했던 영흥도이기도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고전(古典)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을 뿐 현지인 영흥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삼별초의 애절(哀切)한 마지막 종말(終末)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탈했던 역사의 동반자 영흥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영흥도에 묻힌 삼별초의 역사를 되찾아 후세(後世)들에게 길이 전(傳)하면서 내 고장 향토사로 잘 다듬어 가꾸어 갔으면 한다.

※ 참고문헌 : 발굴·선양해야 할 향토사료는 인천문화원「향토사료조사보고서」(2000년) 원본의 일부입니다.



문화유적탐방

• 강화도 문화유적탐방을 마치고

부제 : 강화도의 재발견



강화도 문화유적탐방을 마치고

부제 : 강화도의 재발견

 광 인 화

5월 10일인데도 벌써 초여름 날씨다. 이날 웅진문화원 회원 40여 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강화도 문화유적 탐방을 떠나는 날이다. 오전 9시경 웅진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출발하면서부터 마음이 설렌다. 물론 그럴 것이 한국고대사인 단군신화의 발상지이면서 국난극복을 위한 저항의식으로 톨톨 뭉친, 고장인 강화도로 향하기 때문이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인구는 6만 여명, 면적은 305.75km²이다. 경기만(京畿漫) 북쪽의 한강 하구에 있으며, 동쪽의 염하(鹽河)를 사이에 두고 경기도 김포시와 접해 있다. 강화도의 중심인 강화읍은 고려 전기에 강화현에 속하였고, 1232년(고려, 고종 19) 몽골의 침입으로 왕실이 개경에서 천도한 뒤에는 강도(江都)의 소재지로 기능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군으로 소속된 이래 1994년까지 경기도 강화군에 속하였다. 1995년에 강화군이 웅진군과 함께 인천광역시에 소속이 되었다.

강화(江華)라는 지명은 940년(고려 초대 왕, 태조 23)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전에는 해구(海口), 혈구(穴口) 등으로 불리다가 이때에 강화현으로 편제하였다. 강화는 강과 관련된 지명으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등의 ‘여러 강을 끼고 있는 아랫고을’이라고 하여 강하(江下)라고 부르다가 ‘강 아래의 아름다운 고을’이라는 뜻으로 강화(江華)라고 고쳐 부른 듯하다.

각 면에서 오신 일행들과 즐거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세 강화도에 도착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조선시대의 교동도, 지금은 강화에 속하는 연산군 유배지를 찾았다. 이 교동도는 2014년 7월 1일 교동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창후리 선착장에서 배로 다녔었다. 이 유배지는 1506년 9월 2일 중종반정으로 폐위 된 연산군이 교동으로 유배되어 그해 11월 6일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지냈던 곳으로 작은 박물관과 위리안치소(연산군이 기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건물을 세움) 등이 있었다.

유배지를 나와서 대룡시장으로 향했다. 주차장 옆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인 ‘교동제비집(웰컴센터)’은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교동지역의 발전과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IT기반의 관광안내는 물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대룡시장은 1970년대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과거의 좁은 길과 오래된 가게를 박물관처럼 보존해 놓았는데 요즘 보기 드문 제비집을 그곳에서는 실제 볼 수 있었다. 관광객은 오래 된 이발관에서 머리를 잘라 볼 수 있고 1960년대 교복을 빌려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시장 입구에는 내가 어릴 적 먹었던 바로 그 강아지 떡(인절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 떡집 앞에는 다음 문구가 써어 있었다.

이북식 강아지 떡 이야기

이곳 교동도 앞 이북 연백평야는 풍요로운 곡창지대였다. 일제시대, 일본은 쌀을 군량미로 수탈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던 떡과 술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 마을 어르신들과 자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인절미라는 이름 대신 '갓 낡은 강아지 모양의 강아지 떡'이라는 이름의 떡을 만들어 먹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부모님도 실향민인데 어머니는 연백군에서 피란을 나오셨다. 어렸을 적, 인절미를 크고 둥글게 만들어 팔소를 넣은 떡을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그 이름이 '강아지 떡'임을 이제야 알았다.

그 다음 평화전망대(구 애기봉)에 갔다. 가장 가까운 곳은 이북까지 1.8~2km 거리라서 육안으로도 북한이 잘 보였고, 또한 2~3층에는 고성능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다음에 도착한 강화역사박물관은 개국시원부터 청동기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시대까지의 옛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 송은영 해설사의 해설을 들었다. 박물관을 나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로 향했다. 이 지석묘는 이른바 탁자식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대표적 고인돌로 흙으로 바닥을 수습 층 다진 뒤 받침돌을 좌우에 세우고 안쪽 끝에 판석을 세워 묘실을 만들고 사체를 넣은 다음, 판석을 막아 무덤을 만든 것이다.

첫날 마지막 일정은 굿모닝 인천(인천광역시정 홍보지)에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

소개된 적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버르던 곳이었다. 조양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강화도의 실업가 홍재묵과 홍재용이 세웠다. 조양방직이 문을 열면서 강화의 직물산업은 가내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바뀌면서 몸집을 키웠다. 197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지만 1990년대 현대식 섬유 공장이 생기고 신소재 섬유가 나오면서, 강화 직물산업은 내리막을 걷는다. 조양방직도 가동을 멈추고 제 기능을 잃은 채 멈춘 시간 속에 갇혔다. 2017년, 고철이나 조금 건져볼 심산으로 처음 조양방직 터를 찾았던 이용철(54) 씨에 의해 이끼가 움트던 폐허에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일 년 후 다시 태어난 조양방직의 새 이름은, 그래서 '신문리 미술관'이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공간이 아주 넓었는데, 테이블 사이를 일부러 가리지 않았는데도 불편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쓰던 재봉틀을 티 테이블로 쓰는 걸 보고 나도 집에 있는 재봉틀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식사 후 면별 노래자랑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플루트 연주에 최문수, 기타연주에 이린용, 사회는 유신일 회원이었다. 1등은 대청면: 김순자(부초 같은 사랑), 2등은 덕적면 굴업도: 김정현(소양강처녀), 3등은 북도면 장봉도: 최선해(애정이 꽃피던 시절)가 차지했는데 아주 흥겨운 한마당이였다.

이튿날 오전이다. 일정은 '강화이야기 자전거투어'로 강화읍 원도심을 돌아보는 일이었다. 자전거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강화문화관을 둘러보았다. 강화문화관은 강화출신의 수필가 故 조경희 선생의 유지에 의한 것으로, 선생께서 2005년 타계하시며 강화군에 사전 기증하신 소장품 8,287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울러 1970년에 <한국수필가협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고인의 수필문학에 끼친 업적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드디어 열 명씩 줄지어 자전거를 타고 맨 먼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에 도착했다. 이곳은 고 조경희 회장이 다니셨다는 성당이라서인지 꼭 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다. 김형식 대표(강화이야기투어)는 "이 성당이 강화읍 핫 플레이스 두 곳 중 한 곳"이라며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강화성당은 태극무늬에 솟을대문 이 서 있고 근사한 팔작지붕 건물이 우람하게 서 있어 '성공회강화성당(聖公會江華聖堂)'이라는 현판과 지붕 위 십자가가 없었다면 영락없는 사찰 건물이다. 십자가가 새겨진 범종도 특이하다. 1900년 영국성공회에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성당으로 목재로 골격을 만들고 벽돌을 쌓아 올린 기와집으로, 현존하는 한옥교회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내부는 서유럽의 바실리카 양식(중세유럽)으로 외부는 동양의 불교사찰 양식(조선시대)으로 지어졌다. 예배당 안, 양쪽 문을 댔던 나무는 영국국기를 상징하며 영국에서 가져온 나무이고

지금도 매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마침 서울교구의 주교님께서 방문하셔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다음 용흥궁은 철종(강화도령)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조선 후기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19세까지 살았던 집이다. 원래 초가집이었으나 철종이 보위에 오르고 4년 만에 기와집으로 짓고 궁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내전과 별전이 있으며, 철종잠저구기(哲宗潛邸舊基)비와 비각이 세워져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고려궁지로 향했다.

고려궁지의 출입문을 지나면 우물과 수령 400여 년의 느티나무 뒤로 강화유수부 동헌 건물이 있다. 동헌의 위쪽에는 고려궁지 발굴 터가, 아래로는 복원한 외규장각이 존재한다. 몽골군이 송도(개성)를 침범하자 강화로 천도하면서 송도를 모방해 궁궐과 사직을 지었다. 그러나 몽고군의 침략을 받아 궁궐은 불타 폐허가 되었고 조선 인조 때 그 궁궐터에 왕의 피난처인 행궁과 유수부를 건립했다. 조선시대 관아 건물로 오늘날 군청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관이 아닌 중앙관료인 도지사급이 파견되어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시대 건물이 이렇게나마 복원된 것이 다행이다. 강화관광 플랫폼 3층에서 ‘소창 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끝으로 자전거 투어를 마쳤다.

오후에는 대명헌을 찾았다. 1928년에 지은 이 집은 강화도 천석꾼으로 알려진 황국현의 가옥으로 천석꾼의 집답게 당시 할 수 있는 호사를 다 누렸다. 백두산에서 잣나무를 베어와 대들보와 서까래를 올리고, 창틀과 문틀, 마루, 문간을 하나하나 다 짜 맞춘 2층 건물이다. 일본에서 들여온 색유리로 만든 창으로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든다. 독립 운동가이자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은 우리 민족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황해도 출신의 그가 강화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00년 25세 청년 김구는 2월 어느 날 지인을 만날 생각으로 강도남문(강화읍 남산리 소재)을 거쳐 성안으로 들어온다. 몇 년 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구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주경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김주경은 가산을 모두 날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난 뒤라 동생인 김진경의 집에 머물며 학동 30여 명을 모아 석 달간 서당을 운영했다. 그 후 1947년 해방을 맞은 뒤에도 다시 강화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집에 머물렀다고 하여 김구방문 기념고택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집안으로 들어와 부채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이 집에 살고 있는 도예가 최성숙 씨는 “7년 전, 30~40년간 비어있던 집을 매입해서 2년 6개월 청소하고, 2년 6개월 복원해서 이 시스템을 한 것은 2년 됐다”고 설명했다. 시대와 변화를 거스르며 옛 것을 지켜낸 고마운 새 주인 덕에 고택은 지금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과 신미양요의 전쟁을 치렀던 광성보다. 강화 해안의 12진보 가운데 하나로 1658년 설치됐다. 1871년 4월,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며 함대를 이끌고 침공할 당시, 백병전을 전개하였던 곳이다. 광성돈대(廣城墩臺)에 오르는 것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강화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온갖 외침들에 굴하지 않고 저항과 호국정신으로 지켜온 곳이다. 이곳을 단순히 지방역사라고 보면 큰 잘못이기에 통시적 민족사적으로 봐야 옳다. 단군신화의 발상지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지석묘와 마니산의 참성단 등 고대사와 관련된 유적이 많고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으로 40여 년간 수도역할을 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체결 등 강화도는 한국 고대사로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관성을 지닌 역사의 시원(始原)이요, 국난극복의 호국충렬의 고장이다.

나는 이런 문화유적지로 인도한 웅진문화원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같이 차원 높은 탐방 장소를 선택했기에 이번 탐방이야말로 매우 의의 있고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정을 통해 때론 오래된 것이 더 귀하고 새로워 아름답게 느껴지는 특색 있는 탐방이었다고 여겨진다.



옹진의 따뜻한 복지 행정 현장탐방

- 무료급식 및 밑반찬 전달
- 김장김치 나누는 이웃사랑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온수매트, 쌀 전달
- 위기 발굴 가구 주변 환경개선 서비스
- 스마트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완료
- 찾아가는 이동 목욕 차량운영
- 의료봉사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 노인 무료 안(眼) 검진.
-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
- 사랑 더하기 드림 스타트 여름 가족 캠프
- 새싹 수산 꿈나무 해외 견학
- 내 고장 옹진 역사 문화 탐방
- 효 '孝'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
- 서해 최전방 우도 부대 장병 위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전달

‘사랑나눔 무료급식 및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사업’은 웅진군 관내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정성껏 만든 식사와 밑반찬을 월 1~4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무료급식이 있는 날에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주민, 공무원 등이 점심시간 어르신들의 급식소 이동을 위해 차량봉사를 하고 있으며, 밑반찬 전달은 봉사자들이 이웃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반찬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장 김치로 나누는 이웃 사랑

옹진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을 실시했다.

옹진군자원봉사센터 8개지소 봉사자 400여명과 지역 내 군부대 장병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소외계층 630여 세대 및 무료급식소 8개소에 전달하는 '2018년 동절기 김장김치담그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온수매트, 쌀 기부

웅진군 영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저소득장애인 10가구를 방문하여 온수매트를 전달했다.
같은 날 영흥면 내2리 김호순 부녀회장은 설을 맞아 백미 50포를 기부했다.



위기 발굴 가구 주변 환경개선 서비스



이번 대상가정은 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노후 된 흙집으로 당장 시급한 쥐, 바퀴벌레 문제해결을 위해 백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방역을 실시하였고, 백령면사무소에서는 사례관리 사업비로 장판 및 깨진 현관문 교체,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동세탁(이불빨래) 실시, 해병대 제6여단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폐가구 수거 및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 하는 등 복지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진행했다.



스마트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완료

웅진군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인 관내 자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성질환의 지속적·체계적 관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원격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서지역 미래형 '스마트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웅진군은 원격진료시스템을 의료취약지역인 보건진료소 10곳(소야도, 승봉도, 이작도, 백아도, 소청도, 문갑도, 울도, 소이작도, 소연평도, 서포리)에 설치했다.



찾아가는 이동 목욕 차량운영

웅진군 영흥면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맞춤형 목욕케어'인 찾아가는 이동목욕차량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영흥면 자율방범대원 7명이 자발적으로 목욕봉사단을 구성하여 웅진군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 어려운 이웃의 가정에 월 4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원활한 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이들에 걸쳐 목욕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실시했다.



의료봉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옹진군은 도서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 등을 앓는 중증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하대병원 심뇌혈관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노인 무료 안(眼)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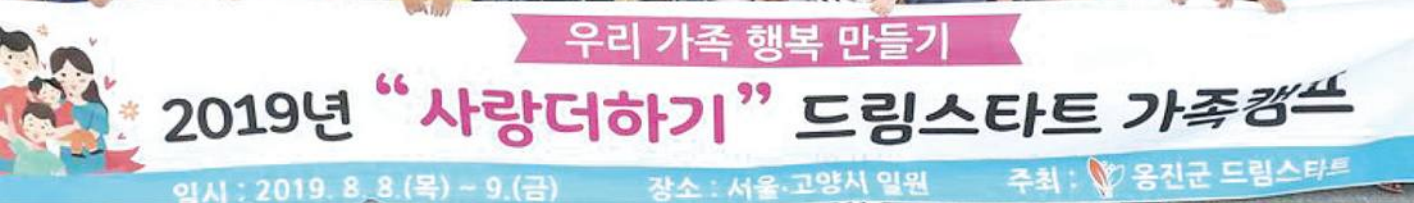
웅진군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했다. 해병대 919부대의 안과의사 지원과 웅진군 보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등 민·관·군 협력으로 이루어져 매우 의미를 깊게 했다.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

옹진군 연평면 부녀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자장면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을 회복시켜 드리고자 추진됐으며,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여 맛있게 만든 자장면과 떡, 탕수육 등 각종 음식을 7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제공했다.





‘사랑 더하기’ 드림 스타트 여름 가족캠프

응진군 드림스타트가 아동 및 가족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사랑 더하기’드림스타트 여름 가족캠프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평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드림스타트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견학 및 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한 추억 만들기를 돕고자 했다.



새싹 수산 꿈나무 해외견학

웅진군이 웅진의 미래 수산인력 육성을 위해 지역 초등학생 13명과 함께 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의 위해시, 영성시, 청도시를 방문했다.

중국의 수산시설과 문화유적지 견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수산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웅진군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했다.





내 고장 웅진 역사·문화탐방

웅진군은 1박2일의 일정으로 “내 고장 웅진 역사·문화탐방” 아동캠프를 실시했다. 영흥면 해군 전적비와 함상공원 등을 방문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체험 학습장 ‘니오타니 곤충농장’과 ‘에너지 파크’를 방문해 미래식량으로 각광받는 ‘곤충’과 전기 및 에너지에 대한 체험을 실시했다.



효 '孝'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

옹진군자원봉사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효 카네이션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센터 주요사업인 「행복 잇기 뜨개 사랑」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효 카네이션 만들기' 프로그램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해 관내 독거노인과 소외 어르신 700여명에게 봉사자들이 직접 뜨개질로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서해 최전방 우도 부대 국군장병 위문

웅진군 연평어촌계와 자원봉사자들이서해 최전방 외딴 섬 '우도'를 방문하여 국군장병 위문을 실시했다.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고,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만 주둔하고 있는 외딴 섬이다.

이번 위문행사는 연평도 닭강정집과 연평어촌계어주부회, 지역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여 치킨, 꽃게장, 제육볶음 등 직접 만든 음식과 과일, 음료, 떡 등의 각종 다과를 준비하여 연평도에서 우도까지 직접 운반하여 제공했다.





용진 섬마을 학교자랑

- 꿈꾸는 아이들이 함께 하는 장봉분교
- 배움이 즐겁고 큰 꿈을 키우는 백령초등학교에서 크는 아이들
- 학교 가는 길
- 내게는 감사할 것 밖에 없는
- 멀고도 가까운 섬, 백령도
- 별 보러 가는 길
- 학교자랑
- 학교자랑
- 내마음의 고향 영흥도
- 장봉분교자랑
- 자랑스러운 학교, 대청초등학교
- 즐거운 학교
- 우리 학교래요
- 백령초등학교의 자랑거리
- 어떤 섬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대이작도
- 볼수록 매력있는 소이작도

꿈꾸는 아이들이 함께 하는 장봉분교

 신 상 훈 (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교사)



장봉분교는 초등학생 12명, 유치원생 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삼목초등학교의 작은 분교이다. 장봉분교 운동장은 매우 크고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와~”하고 함성을 지르게 된다.

분교의 큰 운동장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한 크고 푸른 것을 알 수 있다. 각자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분교 아이들은 달려가고 있다.

장봉분교에 전입 온지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가끔씩 ‘꿈인가? 생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직생활 20년 넘게 큰 학교 위주로만 근무했던 내게 전교생이 12명인 분교에 근무하게 된 것은 나의 교직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21년이라는 세월동안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면서 보람된 일도 많았으며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았지만,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나에게 장봉분교에서의 이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매일 아침 출근시간이면 상쾌한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하며 가장 먼저 마주치는 분교 고양이들의 울음소리에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진다. 무거운 업무에 눌리고, 많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눌렸던 이전의 출근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2분, 학교 관사에서 교실까지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출근한다. 푸른 나무들, 찌르르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들, 누가 누가 잘 자라나 자랑질 하는 잡초들마저 너무 귀엽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장봉분교는 작은 학교인 만큼 모든 교직원들도 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생활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연합하여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간다.

운동장 한 편의 조형물에 기록되어 있는 ‘국민교육헌장’은 장봉분교의 오랜 역사를 말해

주기도 한다. 분교 곳곳에 한두 그루씩 자라고 있는 살구나무, 앵두나무, 매실나무, 은행나무, 호두나무 등 각종의 실과를 제공해 주는 나무들도 분교의 가족들이다. 이렇듯 분교의 구석구석이 아름답고 신기함으로 채워져 있다.

장봉분교에서의 학교생활도 이전의 학교 생활과는 너무도 다르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허락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언제나 펼쳐져 있고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수확한 것들을 즐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더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는 운동장에는 까치, 까마귀 외에 각종 새들이 노닐고 있으며 운동장을 가로 질로 달리는 우리 분교의 귀여운 고양이들 8마리, 계절마다 달리 자라는 여러 가지 꽃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감사한 삶을 나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가끔씩 배를 타고 인천시내로 나가는 체험학습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내 마음도 설렌다. 항상 체험학습을 나가면 아이들 안전관리에, 생활지도에 교사로서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버렸다.

나는 교육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있다. 앞으로 5~6년 후에 교편을 내려놓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서 교육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 그래서, 어쩌면 장봉분교가 국내에서 마지막 학교가 될 수도 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다. 또한, 지금 만난 아이들도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가 깊은 친구들이다. 함께 운동장 토끼풀을 뽑으며, 함께 삶은 감자를 먹으며, 함께 아이들과 즐거운 매일 매일을 경험한다. 장봉분교는 장봉도라는 작은 섬에 있지만 우리학교 바로 뒤쪽에 119 소방서가 위치해 있고 멀지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으며 바로 옆에 북도면사무소 장봉출장소와 보건소가 있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장봉도가 인천의 여러 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섬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렇게 좋은 장봉분교에 발령받게 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멎고 잃어버린 마음들이 이곳 장봉분교에서 빠른 속도로 치유되고 있다. 장봉분교에서의 좋은 추억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선교사의 삶을 이끌어줄 좋은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듯 많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장봉분교는 내게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봉분교에서 오늘도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배움이 즐겁고 큰 꿈을 키우는 백령초등학교에서 크는 아이들

 차 현 숙 (백령초 교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배움이 즐겁고 큰 꿈을 키우는 백령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3년 전 백령초등학교에 발령 받아 생활하면서 백령초등학교 학생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색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육지의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백령도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아침 산책’과 ‘내 고장 탐방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백령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빠져나와 자연 속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어른들을 만나고, 직접 생활을 경험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백령도내 콩돌, 사자바위, 하니 해변 등으로의 ‘아침산책’과 항공대, 발전소, 포병대대, 사곶해변, 두무진, 기상대, 우체국 등 ‘내 고장 탐방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들은 학생들이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령초등학교는 온 마을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곳!

‘우리’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따뜻한 마음, 편안한 몸, 행복한 생각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한다는 성실함으로 교직원과 아이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을 주시고 말보다 실천을 몸소 보여주시는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하는 곳!

때론 듄직한 아빠의 모습으로 때론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 및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시고, 세세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감선생님께서 함께 하는 곳!

몸이 튼튼하고 마음을 건강한 학생으로,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학생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배움을 즐기는 학생으로, 꿈을 갖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곳!

새로움에 도전하고 꿈을 키우며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학생들이 있는 곳! 바로 백령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가는 길

 노 광 록 (대청초 교사)

“선생님! 달은 왜 우리를 계속 따라오나요?”

전에 근무하던 학교의 한 학생이 한 질문이다. 대청도를 둘러보면서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다. 세계 어디를 가도 달이 우리를 따라오듯이, 대청도에서는 어디에서나 삼각산이 따라온다. 이러한 삼각산은 하루의 시작부터 함께 한다. 잠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삼각산 위에 걸려있는 태양이 아침을 강하게 반겨준다. 시야에 꽉 차는 흰색과 초록색, 눈부신 주황색의 조화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초대형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보너스다.

‘매에에에’

자동차 경적 소리가 뽕뽕 울리는 대신 흑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학교 가는 길. 길옆에 작은 밭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몸집이 비슷한 흑염소 2마리가 묶여있었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나는 흑염소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이리저리 서성이기도 하고, 내가 흑염소를 바라보는 것처럼 흑염소도 계속해서 한곳을 바라보기도 한다. 항상 내가 그 길을 지나가면 흑염소가 ‘매에에에’하며 반겨주었는데, 어느 날은 내가 지나가도 반겨주지 않는 것이었다. 갑자기 흑염소의 울음소리를 꼭 듣고 가야겠다는 정체 모를 오기가 생겼다. 일부러 땅을 발로 차며 걷자 그제야 흑염소가 눈치를 챘는지 울기 시작했다. 흑염소의 환대(?)에 큰 고마움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교정과 가까워지면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요가 흘러나온다. 동심이 흘러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운동장을 보면 체격 차이가 2~3배 나는 아이들이 몸을 부대끼며 축구를 하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에만 해도 아침시간 운동장은 형들의 소유였다. (물론 학교들은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1학년부터 6학년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는 아침축구 한마당이라니! 6학

년 형의 공을 빼앗으려는 1학년 동생의 발제간이 너무 귀엽다. 6학년 형은 1학년 동생의 노력에 못 이겨 공을 빼앗긴다. 동생이 으쓱할 수 있도록 일부러 공을 빼앗기는 형의 연기가 아주 연기대상 감이다.

처음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학교 가는 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삼각산 가 본적 있어?”

“너네 저 위에 흑염소 2마리 묶여있는 거 알아?”

“까마귀가 정말 크지 않아?”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에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었다. 도시에 있던 학교라면 그렇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낯설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선생님! 흑염소 좋아하면 00이네 가보세요! 거기 100마리 넘게 있어요!”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삼각산으로 현장체험학습 가요. 빨리 가서 간식 먹고 싶어요!”

물론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대청도의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수했다. 문득 울창한 숲에서 뛰어 놀고 나무 미끄럼틀을 타면서 노는 영국의 ‘서머힐 학교’가 떠올랐다. 숲과 자연이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다. 교육과정이나 교육 시스템은 많이 다르지만 인간의 손이 거처지지 않은 자연 그 자체와 함께 하는 교육환경은 이곳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인프라 등이 개선되어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이곳의 아이들은 섬에서의 값진 경험을 토대로 여러 분야의 귀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삼각산은 왜 우리를 계속 따라오나요?”

내게는 감사할 것 밖에 없는...

 임 병 미 (영흥초 교사)



영흥초등학교 사진

바쁘게 달려오지도 않았건만 잠시 뒤 돌아보니 나름대로 먼 길, 기나 긴 길을 걸어 온 것 같다. 다시 고향에 들어 온지도 20여 년째가 되었다. 잠깐 있을 줄 알았던 직장도 어느덧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몸 담고 있는 직장(영흥초등학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과 같이 생활한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성실히 살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어색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던 때... 나의 학생 때를 떠올리면서 웃음도 지어가며 여기까지 왔다. 그때는 서무실(현재 행정실) 근처, 교무실 근처는 함부로 접근을 못했지만 지금은 그 옛날과는 정서와 환경 등등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나는 수업시간, 학교 행사마다 카메라를 들고 가곤 한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이러한 아이들의 사진에 담긴 모습을 보면서 살짝 미소도 지어본다. 내 나이 먹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매년 커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래서 마음은 늘 청춘이라는 말이 나오는가보다.

고향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다보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해 오는 아이들을 보면 친구의 자녀 또는 친구의 조카, 나를 할머니라고도 부르는 아이들도 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 계절마다 변해가는 학교 풍경과 매년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 정이 들 만하면 바뀌는 교직원들. 어느새, 나는 이곳의 터줏대감이라고

할까 그렇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 감사하다는 것이다.

누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도록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 내가 되기를 바랄뿐이다. 조용함을 좋아하는 나는 정말 어떤 분의 은혜로 혼자 근무하는 곳에 있게 되었고,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하고나면 보람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오는 이, 가는 이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만 보려고 노력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세상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닳은 점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만나서 한 공간에서 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힘들어 속상해서 울기도 한다. 그러나 힘든 날 보다 웃는 날, 기쁜 날이 더 많아서 견딜 만 한 시간 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꿈을 꾸려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생각한다.

다른 직장인보다 퇴근이 이른 나는, 나를 가꾸는 취미생활도 많이 하게 된다. 이웃들과 모여 동아리 활동도 하고 영흥도를 벗어나 정기적으로 또 다른 공동체 생활을 하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간 여전히 운동장과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린다. 점심을 먹고난 후 서로가 그네를 먼저 타려고 달려가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그네 타려고 밥도 적게 먹고 먼저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겁기만 하다.



고물고물 애기 손으로
시간 시간 연습해서 우산을 돌리고



수십 번 연습 끝에 호흡을 맞춰
부채도 펼쳐보고



굴렁쇠 굴리는 아이들의 모습

멀고도 가까운 섬, 백령도

 이 주 희 (백령중 교사)

2017, 2018, 그리고 2019.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에서 시작한 나의 교직 생활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다. 낯설고 무섭기만 했던 백령도라는 섬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듯하다. 섬에서 부는 바람의 째깍하면서도 비릿한 냄새마저도 이제는 정감있게 다가온다.

사실 난생처음 겪는 군민(郡民)으로서 섬 생활과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신규 교사로서의 사회생활이 그리 녹록치는 않았으나 가족 같고 친구 같은 아름다운 인연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행복하고 강렬한 기억들도 금세 지워지곤 한다.

내가 다니던 대학의 문과대 건물 옆엔
스팀 목련이 한 그루 있다 해서
진달래 개나리보다 한참은 먼저 핀다 해서
해마다 봐야지 봐야지
겨울 난방 스팀에 쪼여 봄날인 듯 피어나는
정말 제철 모르고 어리둥절 피어나는
철부지 목련을 꼭 봐야지
벼르고 벼르다 졸업을 하고
벼르고 벼르다 후딱 십년도 넘어버린
나는 늘 봄날을 놓치고
앞치락뒤치락 추위와 겹고트는
때 아닌 스팀 목련도 놓치고
내가 대학 다니던 청춘도 놓치고
채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나는 늘 나도 놓치고

- 강연호, 스팀목련 -

지워지고 흐려지는 기억들 사이에서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은 소중한 추억들이 있다. 백령도에서 만든 이 추억 한 조각을 소개하여 오랫동안 붙잡고 기억하고자 한다.

나는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소위 말하는 '인스타 감성'이 넘치는 예쁜 카페에 가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카페에 들어서면 풍기는 향긋한 커피 냄새를 상상해보노라면 황홀함에 저절로 눈이 감기는 듯하다. 노량진에 다니며 임용 공부를 했을 때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면 집 근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다.(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카페란 신비한 공간이어서 복잡한 머리를 정리해주기도 했고, 고시생이 부릴 수 있는 작은 사치의 공간이기도 했다. 대학생 때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메리카노를 천 원에 파는 카페여서 늘 바쁜 카페였다.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중에 음료 한 잔을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나는 주말 아르바이트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에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보냈었다. 고시생 때 추억, 아르바이트할 때의 추억 등을 곱씹을 수 있는 카페는 내게 이래저래 의미가 깊은 공간이다.

그러나 육지와는 다르게 백령도에는 카페가 많지 않다. 사실 나는 처음 입도할 때만 해도 백령도에는 카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전 처음 도시가 아닌 곳에 살아가는 것이어서, 도민(島民)이자 군민(郡民)의 생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때는 섬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섬 살이에 대해 참으로 무지했었다. 백령도에 발령받아서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이렇게 먼 섬에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었는데 벌써 올해로 햇수로 3년째 잘살고 있다.

백령도에는 카페(커피를 파는 가게 포함)가 6개 정도 있다. 카페의 수가 적어서 카페 하나하나에 얹힌 추억들이 커커이 쌓인다는 점이 백령도 카페의 큰 매력인 것 같다. 백령도 카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백령도 생활 중에 도시의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찾는 카페베네 백령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카페베네는 백령도의 가장 변화가인 진촌에 있다. 우리 선생님들은 식당이 밀집한 진촌에서 회식 아닌 회식(다들 독거 청년이기에 주말엔 밥을 혼자 먹어야 해서 보통 밥을 다 함께 먹는다.)을 자주 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헤어지기 아쉬울 때마다 카페에 들른다. 향긋한 커피에 목마르고, 도시 감성에 목마른 우리 청춘들이 찾는 곳이 바로 카페베네다. 육지에 있을 때는 작고 예쁜 개인 카페들이 많기도 하고, 카페베네는 맛도 없고 멋도 없는 이미지여서 잘 찾지 않았었다.

그런데 세상에나. 카페베네에는 생각보다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들이 많다. 2018년 12월

~1월에는 학년 말이어서 전근 가시는 선생님들과의 석별의 정을 나누느라 카페에 자주 갔었는데 새로 나온 메뉴인 아인슈페너가 아주 맛있었다.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이기에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마신다. 백령도는 온도가 낮지는 않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겨울이 육지보다 춥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스 음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사그라들진 않는다. 시원한 아이스 음료에 츄로스, 파니니, 조각 케이크까지……. 도시에서 맛볼 수 있는 온갖 디저트가 카페베네에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디저트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조합, 가장 맛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노라면 우리 곁으로 학생들이 다가온다. 내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경찰을 만난 도둑처럼 살금살금 사라지곤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낮에 학교에서 보았음에도 처음 본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시키는지 궁금해 하고, 자기들도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육지에서 교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육지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나와 친구들을 떠올려볼 때 우리 아이들은 정이 많고 참 순박하다. 선생님을 아주 가깝고 정답게 생각해준다. 섬이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키우는 것인지, 아이들이 섬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 섬과 아이들은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많다.

프랜차이즈 카페이기 때문에 육지에도 있는 카페이긴 하지만, 백령도 카페베네는 어디지 모르게 특별한 점이 있다. 백령도에 입도했을 때 카페베네를 처음 보고는 "여기에 이런 것이?"하는 생경함과 신기함을 느꼈다면, 오히려 지금은 육지에 있는 카페베네를 보고 "여기에도 카페베네가?"하는 반가움을 느낀다. 조금은 역설적인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스스로도 조금 웃길 때도 있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이 싫지 않다.

백령도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낯설기만 하고 차갑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 가끔 배가 뜨지 못해서 인천 본가에 가지 못할 때(여름에는 안개, 겨울에는 거센 파도 때문에 며칠씩 배가 뜨지 못할 때도 있다.)는 우스갯소리지만 섬을 도려내서 연안부두 앞에 붙이고 싶다. 이 생각은 3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은 바람이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3년이 지난 지금, 인천과 백령도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지만 대신 내 마음속 거리는 전보다 훨씬 가깝다. 그래서 내게 백령도는 '멀고도 가까운 섬'이다.

훗날, 백령도에서 보낸 오늘을 떠올린다면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질 것 같다. 백령도에서의 추억과 파스함, 그리고 그 속의 '나'를 놓치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오늘도 힘차게 학교로 향한다.

별 보러 가는 길

 이 은 영 (백령중 교사)

창밖으로 손을 뻗어
바람의 악수를 기꺼이 받아
짓궂어라 기껏해야 머리카락이나 날릴까
심장까지 시원한데
높디높은 하늘 끝
매든 까마귀든 갈매기면 또 어때
바람의 끝에 매달려 온 바다 내음은
하늬도 사곶도 콩돌도
좋기만 해
덜컹 기울 길이야 좀 난감해도
왼쪽 코스모스에 오른쪽 해당화에
덩달아 붉디붉어
떨어지는 해를 받아
어찌 서운타 해
곧
별들이 쏟아질 텐데

학교자랑



박 연 서 (영흥고등학교)

할아버지의 병세로 인하여 인천 계산동에서 영흥도로 내려 왔을 때의 나이는 약 6살 때쯤이다. 처음 온 영흥도는 내가 친구들과 놀던 놀이터가 없었고 푸른 것들로 가득했다. 추석이나 명절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에나 내려오던 영흥도는 그렇게 나의 집이 되었다. 영흥도는 나에게 추억이 많은 곳이다. 할아버지와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놀기도 하고, 때로는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도 따고 가지치기도 해보고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보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자 추억들이 숨 쉬는 곳이다.

영흥도로 내려온 이후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다가와 주어서 금방 친해졌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지금, 다니는 영흥고의 친구들이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설렘은 없어도 모두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싸우거나 서로의 오해가 쌓여도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매일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크게 싸워도 금방 풀고 사이좋게 지내었고 우리는 그렇게 닳아 갔다. 힘들거나 고민이 있으면 성별 없이 모두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비밀도 잘 지켜주니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털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시간이 찾아와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기분이 드니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우리 영흥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등학교는 진로를 위하여 학생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가능한 다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다. 또한 교내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대회나 탁구대회 등을 열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10월8일은 챌린지 대회를 하였다 챌린지 대회는 움직이는 활동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전교생이 참가하는 것이다. 먼저 약과 만들기 체험을 하였는데 제사를 지낼 때 보던 약과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 반죽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팔이 아파오고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모양 틀을 이용하여 모양도 찍고 먹으면서 활동을 하니 즐거웠다. 그 다음 국사봉이라는 산을 오르는 활동을 하였는데 힘들고 끝날 것 같

지 않아 포기하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산을 내려오다 보니 벌써 모이는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번 계기로 산도 타 보고 선생님들과 딱딱한 공부 이야기 보다는 친구들과 하는 대화 같은 것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이번 10월18일 금요일에는 직업 체험으로 나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설명도 듣고 체험하는 날로 시내학교에는 없는 우리 학교만의 체험학습이다. 나의 장래 희망은 육군장교인데 섬에서 살다보니 인터넷에서 보는 것이 전부라서 궁금한 점을 풀어 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직업체험의 날 덕분에 나의 궁금한 점을 풀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설레었다. 내가 보았던 정보들과는 다른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새로웠다.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섬에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 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학생들을 위하여 해 주시는 모습이 시내학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셨다. 동아리 일은 일이 많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실 만도 한데 최대한 동아리를 개설해 주려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힘들고 진로를 향하는 길을 나아가기 편하게 노력해 주시는 게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 말씀 드리면 어느 선생님이든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다. 항상 우리가 시내학교보다 어떤 점들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너희가 더 착하고 더 잘 한다” 라는 말과 함께 우리들의 자신감을 높여 주는 게 보여 감동이었다. 또한 선생님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 생겨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면 되도록 다 해주려고 노력해 주신다.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인상에 남았던 활동들 중 하나는 고1때 한문 수업을 하는데 시험이 끝나 우리 학교에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점들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고쳐주었으면 하는 문제점들을 열심히 적었는데 한문 선생님께서 그 모습과 적은 것들을 보시고는 “이거는 전교생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전교생이 해 보았고 고1 모든 학생들이 이 일을 도왔다. 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적은 것들을 보니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보지 못하였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 일로 선생님들 또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으며 칭찬과 함께 수고하였다는 말을 해 주었다. 이 일은 전교생이 하기엔 실행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 하였지만 우리의 의견을 위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고 즐겁고 보람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이곳에서 얻은 것 들을 느끼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웃게 해 주고 잔소리도 해 주시는 부모님 같은 선생님들을 만나 행복하고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

 정 승 희 (영흥고등학교)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르지만 특별할 것 없이 자랐다.

부모님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전혀 다르지만 엄마 젖을 먹고, 부모님의 온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평범한 아이들 중 부모님의 이직으로, 어쩌면 우연적으로 영흥도에 들어왔지만 어른으로 성장해 어릴 적 추억을 꺼낼 때면 가장 큰 기억으로 존재할 것 이다. 그 기억 속에는 우리들이 학교 가는 길에 자주 지나던 바다와 마냥 즐겁게 뛰어 놀던 학교 복도 그리고 그 거리 위 옛된 우리.

영흥도는 작은 섬이라기엔 마트나 도서관, 카페 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물론 없는 게 더 많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 되어서 큰 불편함은 못 느낀 채 산다.

섬의 매력은 역시 도시에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갈매기들의 소리와 해변 가의 파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다. 휴가 때나 한 번 듣는 소리와 냄새를 우리는 매일 느낀다. 하지만 매일 느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솔직히 답답하고, 지겨울 때가 많다. 어른이 되면 영흥도를 벗어나겠다는 애들도 한 두 명이 아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되고 말이다. 늘 섬을 부정적으로 생각 해왔지만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많은 것 같다.

학교 분위기가 꽤나 자유롭고, 마을 주민 분들도 다들 친절하다. 자주 보이는 얼굴이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모습에 정이 많다고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을 예뻐해 주신다. 가끔은 동네 개와 고양이에게 다가간다. 강아지들은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만 고양이들은 역시나 도도하다. 그래도 간식 앞에선 밥 잘 먹는 얌전한 고양이도 되지만.

이런 환경들도 모두 좋지만 제일 최고인 것은 애들끼리 거의 친하다는 것 심지어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것이다. 섬에 사는 것만큼 애들이 착하고 순박해서 일까 마음씨가 곱고 넓어서 두루두루 친하다.

섬 애들이라고 발농사를 하거나, 유행을 모른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유행은 따라가지만 나쁜 짓에 물들이지 않고, 선은 제대로 긋는 점이 순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는다. 순수한 만큼 상처를 받는 것 같다. 더 안타까운 점은 친구는 있지만 마음 기댈 곳이 없는 친구들은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한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애기를 잘 들어주고 서툴지만 진심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준다. 사실은 그 아이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지만 서로 마음까지 친해진 지금은 고민 상담을 서로 해준다. 그 모습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가식 없는 위로들로 토닥여주다 보면 어느새 더 친해져 있다. 끈끈한 우정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서로 성격이 안 맞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운다. 사소한 문제는 금방 옳은 방법으로 풀린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이런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화해를 함으로써 우정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해 간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대표적으로 학교의 다양한 기회 제공이다. 유익한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 내용과 강사들을 섭외 해주신다. 그 덕분에 아는 것이 하나씩 생겨나갔다.

요즘은 멀고, 피곤하지만 자신의 꿈을 키우려 학원을 다니는 애들도 많다. 이렇게 꽃봉오리까지 맺힌 우리는 이제 꽃을 피워 내기만 하면 된다. 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성공했을 때 아름답게 피어가겠지.

마지막으로 작은 섬 아이들의 전진을 응원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고향 영흥도



윤 여 원 (영흥고등학교)

고향은 단순히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는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에게 영흥도란 그런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곳 또한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주고 안정을 찾는 이곳은 내 고향인 셈 이다.

학교, 학원, 집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걸어가는 길에 간간히 보이는 갖가지 풍경들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내가 집에 가는 시간은 구름이 예쁘게 떠 다니는 낮일 때도 있고, 해가 지며 붉게 물 드는 오후 즈음일 때도 있고, 별이 총총 박힌 늦은 밤일 때도 있다.

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깊고, 주변엔 산 밖에 볼 수 없는 이 집으로 이사왔을 때 나는 불만이 정말 많았다. 걷는 걸 정말 싫어하는 나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 갈 때마다 땅만 보고 걸었었는데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었는지 모른다. 우리 집이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이 그저 짜증만 났다. 언제인가 이곳이 불편하지만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과 즐길 것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뒤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요즘 나는 주변을 보는 취미가 생겼다. 특히 하늘·구름이 뜬 맑은 하늘과 붉게 물든 하늘, 그리고 함께 겹쳐진 산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다. 잠시 멈춰서면 풀 향이 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향이 참 좋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거 같다.

별이 총총 박힌 밤하늘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어서 참 아쉽다. 가까운 도시까지만 가도 몇 개 보기 힘든 별이 여기서는 별자리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히 보인다. 그게 참 예쁜데,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든다. 기분 나쁜 생각이 아니라, 기분 나쁜 생각을 잊게 해 주는 좋은 생각들. 그리고 펜스레 글을 쓰고 싶게 한다.

나는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단순히 섬에 사는 내가 아니라 진짜 세상과 어우러지는 나로. 비록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편해지게 하는 그런 곳이다. 앞으로도 그림고 애뜻할 이곳은 내 마음의 고향, 영흥도이다.

장봉분교 자랑



송 지 인 (4학년 · 인천삼목초등학교장봉분교장)

우리 장봉분교는 좋은 점이 엄청 많지만 짧게 줄여보겠다.

첫째, 급식이 정말 정말 맛있다. 일주일에 두 번 아침 일찍 기사님이 음식재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더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다. 우리 학교는 급식에 한우도 나오고 인삼, 삼겹살 등 맛있는 게 정말 많이 나온다.

둘째, 운동장이 천연 잔디이다. 우리가 잡초도 뽑고, 쓰레기도 주워서 매일 파릇파릇 예쁜 잔디를 볼 수 있다. 우리 학교 잔디가 너무 예뻐서 그런지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들 온다. 우리는 날마다 천연잔디에서 뛰어 논다.

셋째, 현장체험학습을 많이 간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본 곳은 파주 출판도시, 조력문화원, 대학로 쥘폴박물관, 실내 스키장, 홍대 난타체험관, 잡월드, 국립중앙박물관, 키자니아, 학생교육문화회관, 롯데월드, G타워, 장봉 헤림원, 영종도서관……. 선생님들은 힘 드시겠지만 나는 더 많이 가고 싶다. 아직도 나는 헤이리, 에버랜드등 가고 싶은 곳이 많다.

넷째, 산과 바다가 정말 가까이 있다. 사방팔방 다 산과 바다가 보이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갯벌에도 많이 간다.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놀러 다닌다. 나가고 또 나가고 생각보다 재미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간다.

다섯째, 전교생이 12명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서로 더 돈독 한 것 같다. 그리고 체험하고 배우는 혜택도 엄청 많이 받는다.

여섯째, 선생님들이 다 재미있으시고, 친절하시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까지 선생님들이 다 좋으셨다. 나는 선생님과 다른 놀이랑 공부 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과 함께 보드게임 할 때가 제일 재미있다.

일곱째, 우리 학교는 정말 예쁘다. 나무랑 꽃도 많고 울타리도 예쁘고, 3학년 때는 창문도 새 걸로 바꾸고, 벽 색깔도 레몬색으로 칠했다. 복도는 복숭아 색이다. 그래서 그런지

장봉도에 오는 관광객들은 다 우리 학교로 구경 오는 것 같다.

여덟째,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을 한다. 영어, 플룻, 국악, 마술, 체육, 봉사, 미술도 하는데 나는 그 중에서 국악이 제일 재미있고, 즐겁다.

아홉째,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이 모두 다 공짜! 섬이다 보니 무료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영어마을 캠프, 케이크 만들기 체험, 영어 말하기 대회, 지역학교 특성화 사업에서 플룻을 배우고 연주하는 것, 북도면에서 중국어 선생님을 보내주고 수업하는 것들도 다 공짜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좋아하신다.

열번째, 우리 학교에는 병설 유치원이 있다. 그래서 귀여운 꼬꼬미 유치원생들을 매일 볼 수 있다. 날마다 유치원생들과 밥도 같이 먹고 유치원놀이터에서 같이 놀기도 한다. 가끔 유치원에 모여서 함께 체험도 한다. 운동회랑 현장학습을 같이 갈 때는 우리가 귀여운 동생들한테 양보도 자주 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나는 장봉도에서 백 년 동안 살고 싶다! 우리 장봉분교 자랑 끝~!



자랑스러운 학교, 대청초등학교



최 건 우 (5학년 · 대청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다양한 외부 강사분이 오십니다. 예를 들어 ‘미스 모린’ 선생님께서 오셔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별자리 선생님이 오셔서 덕분에 별자리캠프에서 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말입니다. 인천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별은 보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전 대청초가 너무 좋습니다.

체험학습도 자주 갑니다. 저번에는 제주도를 갔는데 제 인생 최초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전 진짜 이렇게 좋은 학교를 처음 와봤어요. 또 친구들은 얼마나 착한지, 금방 친해졌어요. 또 엔트리봇, 오토봇, 드론체험 등 많은 과학실험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의 운동장에는 잔디가 없는데 대청초등학교의 운동장에는 잔디가 있어서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육남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 떡볶이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바다를 가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 앞에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 좋은 경치를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사냥감을 본 호랑이 마냥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엄청 더운 여름이나 겨울에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 뭔가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나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을 말이죠.

저는 이런 대청초등학교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즐거운 학교



장 민 준 (5학년 · 대청초등학교)

우리 대청초등학교의 좋은 점은 크게 5개로 나눕니다.

첫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청소년 단체, 육남매, 드론수업, 마술 등 여러 가지의 체험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청초등학교의 시설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비데, 정수기 등 많은 시설이 좋아 학교생활이 아주 편리합니다.

셋째, 스쿨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스쿨버스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방과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친구들, 선후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특기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급식입니다. 모두가 한번에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하고 맛이 있는 급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상 대청초등학교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래요

 이 윤 서 (백령초등학교)

빨주노초파남보 빛깔
알록달록 예쁜 학교가
우리 학교래요

다른 학교 부럽지 않은
큰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래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서로서로 돕는 학교가
우리 학교래요

어느 식당 못지않은
맛있는 급식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래요

“사랑합니다”
밝은 웃음 보여주며
같이 인사하는 학교가
우리 학교래요

우리 학교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학교는
백령초등학교래요

도서관에서 꿈 키우는
희망 가득 찬 학교가
우리 학교래요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가
우리 학교래요

백령초등학교의 자랑거리

 이 윤 지 (백령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인사를 잘해요.
우리 초등학교 건물은
알록달록 예뻐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열정이 넘쳐요.
우리 초등학교 도서관
도서가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 급식
나물이 맛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행복한 마음이 넘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빛나는
백령초등학교!



어떤 섬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대이작도



김 소 현 (5학년 ·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

전 대이작도에 온지 3년이 되어갑니다. 대이작도에 온지 별로 안 되었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섬 대이작도에 있는 대표적 상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형제 바위입니다. 오형제 바위는 관광지 10경중 하나입니다. 오형제 바위에는 전설이 있는데 우리 대이작도에 오형제 바위는 오형제를 위해 악천후에도 고기잡이를 떠난 부모님이 수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오형제가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난 이 이야기를 듣고 오형제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울컥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오형제 바위에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입니다. 최고령 암석은 이작 10경중 8경입니다. 최고령 암석은 무려 25억 1천만년이나 되었습니다. 공룡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니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그마가 흘러도 태풍이 불어도 암석이 떨어져도 버텨낸 암석은 아마도 우리 대이작도에만 있을 것입니다.

나는 대이작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이작도는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찾아보세요.

볼수록 매력 있는 소이작도



김 현 지 (5학년 ·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

4년전 우리 가족은 소이작이라는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섬에 이사를 왔다. 처음엔 ‘내가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젠 이곳이 좋다.

소이작도와 대이작도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형제의 섬이다. 소이작도에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손가락바위가 있다. 손가락 바위는 큰손가락이 높은 하늘을 가르키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나는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바위를 매일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소이작도의 또 다른 자랑은 바다와 아름다운 모래가 조화를 이루는 별안해수욕장이다. 우리 별안해수욕장은 물의 수심이 깊지 않아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고 물이 빠지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넓은 갯벌이 등장한다. 바지락, 조개, 소라, 다슬기 등 맛있는 해산물을 찾을 수 있다.

비록 인적이 드문 고요한 섬이지만 마음은 꼭 차고 신비로운 우리의 소이작도, 우리 가족의 터전이 된 소이작도 섬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싶다.



문화원 주요사업

1. 문화원자체역점사업

웅진문화지 발간
문화유적탐방
홈페이지 신규제작

2. 문화예술진흥사업

군민역량강화를 위한 명사초청강좌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절교실운영

3.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심청효행학생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생활문화센터 및 여가 공간을 이용한 문화 활성화
문화활동가양성사업

■ 도서지역 양서보급

■ 위탁사업

Again 서포리! 응답하라 덕적도! 축제 사업



2019년 사업추진 현황

- 📅 사업시기 : 2019년 연중
- 📅 사업범위 : 문화원자체역점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 📅 사업비 : 146,000천원 (전액 시·군비)



주요사업내용

1. 문화원자체역점사업

📅 웅진문화지 발간

- 목 적 : 웅진문화원의 연간활동과 웅진군 역사 기록지, 주민들의 문화작품 등을 알리기 위하여 웅진문화지를 발간.
- 기 간 : 4월 ~ 12월
- 추진사항
 - 6월 : 편찬위원회 구성 및 심의 회의
 - 7월 : 최근 타 문화원 발간 사례 조사, 활용참조
 - 8월 : 문화원 임원 및 회원, 학교, 마을주민 등 자료 및 원고 수집
 - 10월 : 원고 마감(원고 초안 수정 및 교정, 웅진군 추가 현황 자료 수집)
2차 편찬위원회 개최
 - 11월 : 인쇄업체 선정 및 최종 편집 및 인쇄
 - 12월 : 2019 「웅진문화」지 발송



📅 문화유적탐방

－ 목 적 : 관내 · 외 지역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향토사 및 우리 문화의 발굴 · 보존 · 전승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킴.

－ 기 간 : 5월 10일 ~ 5월 11일

－ 추진사항

〈제 1차〉

- 타 지역 문화탐방(강화도 1박 2일, 40명) 실시
- 교동도(연산군유배지, 제비집 및 대룡시장)와 강화도(평화전망대, 강화역사박물관, 고려궁지, 광성보 등) 내 11곳의 유적지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됨.



〈제 2차 - 관내지역〉

- 목 적 : 8월 27일 ~ 8월 28일
- 장 소 : 연평도 일대
- 추진사항 : 문화원 회원 및 문화에 관심 있는 웅진군민 60명



홈페이지 신규 제작

－ 목 적 : 행사 및 문화원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손쉽게 회원들과 소통하며, 문화원 사업 및 운영 정보 게재를 통해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극대화 된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함.

－ 기 간 : 4월 ~ 7월

－ 추진사항

■ 홈페이지 구성

- 문화원소개 : 인사말, 연혁, 임원현황, 조직구성, 정관 등
- 문화원사업 : 문화원자체역점사업, 문화원예술진흥사업 등
- 웅진의 향토사 : 웅진역사, 웅진인물, 웅진문화재
- 열린마당 : 공지사항, 회원참여, 설문조사, 갤러리 등



2. 문화예술진흥사업

📅 군민역량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강좌

- 목 적 : 군민들의 문화적 역량강화 및 소통을 위해 명사를 초청하여 강좌를 진행하여 새로운 지식을 함양.
- 기 간 : 9월 2일 (백령면), 9월 3일 (대청면)
- 추진사항
 - 백령 · 대청면 명사초청강좌
 - 일 시 : 1회차 : 2019년 9월 2일 14시
2회차 : 2019년 9월 3일 10시
 - 강 사 : 이상용 연사(방송인)
 - 장 소 : 해송관(백령면), 대청면사무소회의실(대청면)
 - 강의주제 : 웃으며 사는 여유 있는 세상



📅 찾아가는 문화 활동

－ 목 적 :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한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기 간 : 2월 ~ 11월

－ 추진사항

■ 연평도 '응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 일 시 : 2019년 5월 8일 12:00
- 장 소 : 연평종합회관
- 공연내용 : 민요공연(무형문화재 정은희 외 1명), 트로트공연(가수 한주은), 트로트공연(가수 흥찬)



■ 덕적도 '웅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 일 시 : 2019년 10월 7일, 8일
- 장 소 : 덕적도, 문갑도
- 공연내용 : 미술공연(미술사 최강), 트로트공연(가수 한가빈),
타악퍼포먼스공연(전통타악퍼포먼스그룹 아작)



■ 자월도 '웅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 일 시 : 2019년 11월 12일
- 장 소 : 자월도
- 공연내용 : 문화공연 4개 프로그램 선정



■ 영흥도 '웅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 일 시 : 2019년 11월 28일
- 장 소 : 영흥늘푸른센터
- 공연내용 : 문화공연 4개 프로그램 선정



📅 찾아가는 예절교실 운영

－ 목 적 : 예절교실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의 도덕 · 존중 · 배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전통문화를 체험하여 올바른 정신 함양.

－ 기 간 : 7월 ~ 10월

－ 추진사항

■ 7월 8일 대청중고등학교

- 장 소 : 대청중고등학교 도서관
- 강의주제 : 재미있는 차 예절
- 참석학생 : 전교생



■ 7월 11일 이작분교장

- 장 소 : 송이반
- 강의주제 : 함께하는 사회 - 다식만들기
- 참석학생 : 전교생



■ 7월 12일 백령중고등학교

- 장 소 : 해송관
- 강의주제 : 통통통 통하는 대화





■ 9월 2일 연평중고등학교
꽃을 통한 인성마당
음식문화체험 (화전)



■ 9월 5일 자원분교장
꽃산병 만들기



■ 9월 24일 신도분교장
영양강정 만들기



■ 10월 8일 영흥중고등학교
영양강정 만들기 / 약과 만들기



■ 10월 29일 장봉분교장
세시 다과 만들기



3.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 심청 효행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 목 적 : 효녀 심청전의 배경지인 웅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현대사회에 잊혀져가는 “효”사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며,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함. 진행하여 새로운 지식을 함양.
- 기 간 : 4월 ~ 6월
- 추진사항
 - 4월 :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추진 준비 및 각 면 학교 협조 요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글짓기·그림그리기 작품 응모 기간
 - 5월 28일 ~ 6월 9일 : 응모 작품 학교별 분류 파악 및 접수
 - 6월 10일 : 대회 심사 진행 (웅진문화원 소회의실)
 - 6월 24일 ~ 7월 5일 : 대회 작품 전시 (웅진군청 1층)



☞ 생활문화센터 및 여가공간을 이용한 문화 활성화

- 목 적 : 생활문화센터 및 여가공간에서 다양한 취미생활 및 체험 등, 강좌 수업을 통해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

- 기 간 : 3월 ~ 12월

- 추진사항

■ 정기강좌(복도, 자월도)

3월 ~ 6월, 가족공예, 캔들아트 각 10회(매주 1회) 단기강좌 운영



■ 특별강좌(정기강좌 제외 지역)

7월 ~ 11월, 가족공예, 캔들아트 각 10회 특별강좌(일회성) 운영.

(백령도 2회, 대청면 2회, 연평도 2회, 장봉도 2회, 대이작도 2회)



☞ 문화 활동가 양성사업

- 목 적 : 문화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주민들을 문화 활동가로 양성, 지도자로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기 간 : 4월 ~ 7월
 - 추진사항
 - 문화활동가 양성 다도·다례 교육
- 영흥면 주민자치센터 1층 강의실
매주 월 14시 ~ 16시



■ 7월 29일 다도·다례발표회 및 수료식

교육에 대한 실습 평가 및 우수교육생 시상 (문화원장 시상)

교육 수료에 대한 수료식 진행 (교육생 15명)



■ 도서지역 양서보급

－ 목 적 : 도서로만 형성된 웅진군의 특성상 군민이 접할 수 없는 양서를 선별, 현지 보급함으로써 독서를 통하여 지식함양과 인문학적 접근을 쉽게 하여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함

－ 기 간 : 2월, 7월

－ 추진사항

■ 1차 양서보급 - [인천 섬 이야기]

2월 정기총회 참석자 직접제공 및 불참석자 우편발송 보급 실시

■ 2차 양서보급 - [인생수업]

7월 우편발송을 통해 문화원 회원 및 관계자 보급 실시



■ 위탁사업

「Again 서포리! 응답하라 덕적도! 축제」 사업

- 목 적 : 우리군의 대표관광지인 국민관광지 덕적면 서포리를 전국에 홍보하고,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부각, 관광응진 이미지를 제고하여 여름이면 축제가 항상 있는 즐거운 해변으로 자리 매김하고 도서지역 공연예술 문화의 활성화 기여 및 주민역량강화 도모.
- 기 간 : 2019. 7.27. ~ 8.3.(8일간)
- 장 소 : 덕적면 서포리 해수욕장
- 프로그램
 - 2019. 7.27.(토) 17:00 ~ 22:00 개막식, 생활댄스경연대회
 - 2019. 7.28.(일) 19:00 ~ 21:00 상시이벤트
 - 2019. 8. 1.(목) ~ 8.3.(토) 가족스마트영상제
 - 2019. 8. 3.(토) 18:00 ~ 22:00 한여름밤의 영화콘서트, 폐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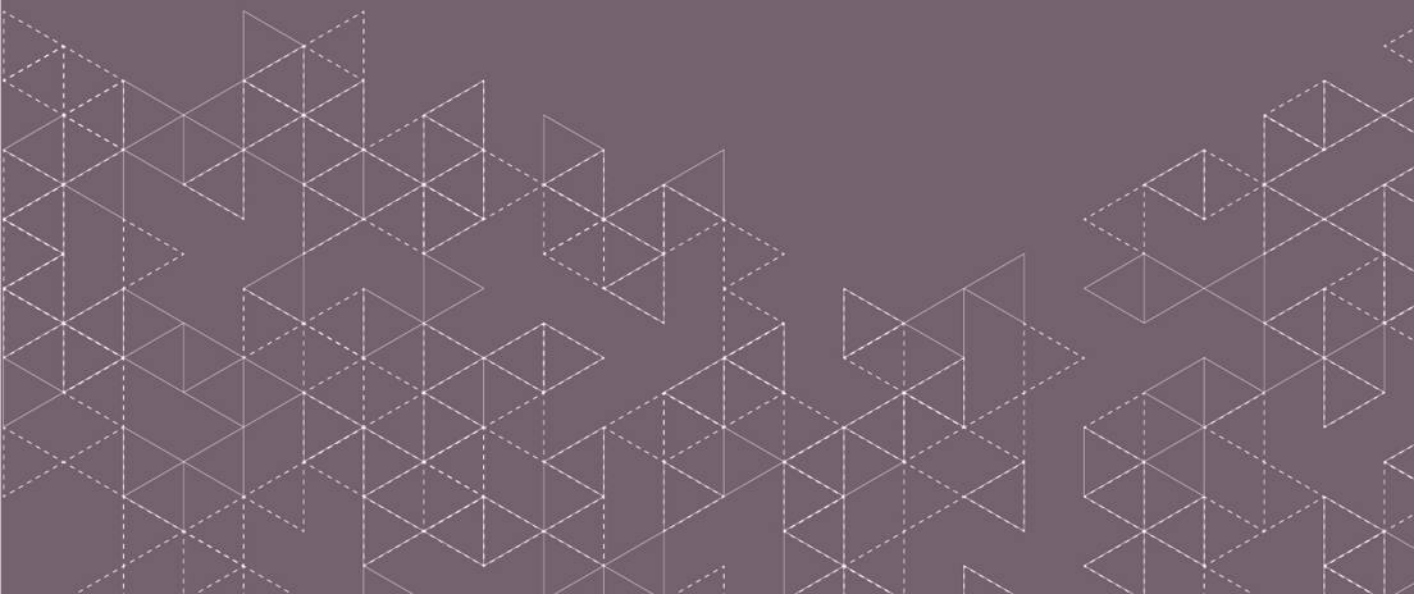




**제20회
심청 효행 학생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

•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내가 1순위로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께

- 고정욱 작가의 '고맙습니다'를 읽고 -



초등 최우수

 5학년 이 예 진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첫 손녀 예진이에요.

최근에 읽었던 책을 소개하며 할아버지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고정욱작가님의 작품이랍니다. 도서관 책꽂이에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제목도 눈길이 갔지만,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이라 단숨에 읽게 되었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할아버지가 떠올라 마음이 몽클했어요. 주인공 지영이 처럼 저도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지요.

‘나는 평소에 할아버지께 어떤 효를 실천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제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처음, 첫경험은 할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처음 두발로 섰던 날, 첫 생일날, 입학하던 날, 그리고 지금까지요.

제가 유치원에서 졸업할 때까지 할아버지께서 키워 주셨잖아요? 엄마께서 입원하시고, 아빠께서 많이 바쁘셨지요.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묶어주시고, 제 손을 꼬옥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 손녀 딸, 오늘도 잘해. 우리 예진이 파이팅!” 이라고 긍정에너지를 주셨어요.

하원할 때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오늘은 뭐가 재미있었어?” 따뜻하게 물어봐주셨고요.

유치원 행사 날, 엄마께서 바쁘셔서 행사에 못 오셨을때에도 저는 괜찮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가셨고, 차안에서 한복을 갈아 입혀 주셨어요. 또 유치원 숙제를 도와 주셨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학교 갈 때면 제 모습이 안 보일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죠. 또 학교에서 돌아 오면 가장 먼저 반겨 주시고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아버지께서 항상 제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셔서 그 감사함의 깊이를 잊고 지냈어요.

마치 주인공 지영이가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느꼈던 것 처럼요.

재작년 할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2017년 9월, 할아버지께서는 귀수술을 받으셨어요.

“요새 왜 자꾸 한번에 못 들으시지?” 조금 짜증나기도 했었는데, 수술을 하셔야 한다니…….

우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신 것 같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는 2주 동안의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답니다.

또 11월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우리 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었지요. 사고 순간에는 너무놀라서 다른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셔서 제일 많이 다치셨잖아요. 응급실에 가셔서도 MRI, CT 등 제일 먼저 검사를 받으셔야 했는데 엄마랑, 동생, 저를 걱정하시면서 “나는 괜찮다, 괜찮다.” 라고만 하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눈물이나요.

우리 할아버지,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나는 어찌나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매년 건강 검진결과를 보면 할아버지는 항상 건강하다고 했는데, 재작년부터는 눈, 위, 폐 모두 다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이언맨처럼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시고 건강하실 줄만 알았는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칠순 대만여행에서는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챙겨 주셨지만, 팔순 여행에서는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순간 순간 소중하게 생각하며 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한 입 먹으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두 입 먹으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한 번 안으면 할아버지의 기쁨이 느껴지고, 두 번 안으면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

옛날에는 할아버지의 친절함, 우리에게 다 양보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편지를 쓰는 동안 할아버지의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한 순간 순간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한 일은 할아버지의 손녀로 태어난 것이랍니다.

자월도의 날씨처럼 따뜻한 우리 할아버지,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2019년 5월 24일

할아버지와 함께 해서 매일 행복한 예진 올림

나의 어머니



초등 우수

 6학년 노 수 빈 (연평초)

늦은 저녁 병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픈 모습으로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 조용히 다가가 아프신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너무나도 아프신 모습을 하고 계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차올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숨을 죽이고 울고 있다. 어머니의 말소리가 아닌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와 나의 울음소리만 병실에 퍼졌다.

1년 전만 해도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시고 1년 동안 깨어나시지 않으신다. 만약 내가 그날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면 어머니는 괜찮으셨을까? 내가 그날 집에 있었으면 어머니는 지금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웃고 떠들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1년 동안 그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나는 울먹이며 '어머니' 라고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규칙적인 기계음뿐, 만약 깨어나시면 어머니와 가고 싶은 곳도 함께 갈거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도, 싸운 것도 전부 사과하고 싶다. 아니 사과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전부 잊으셔도 좋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추억, 우리에게 대한 감정도 사라지셔도 좋다. 그냥 진짜 그냥, 건강하게 일어나서 웃으실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버려도 괜찮다.

하지만 신은 매몰차게도 어머니는 갑자기 1년 전에 쓰러지면서 다치신 상처와 함께 병이 악화돼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셨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오셨다. 동생들도 아버지와 함께 왔다. 수술은 자그마치 17시간이나 걸리는 수술이 되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버티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나는 조용히 수술실 근처에 앉아 수술이 잘되기만을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다.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한다. 나는 안심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리의 힘이 풀려서 풀썩하고 앉아버렸다. 그 후 나는 어머니의 병실에 남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밤을 며칠이나 샀으니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하셨다.

아버지도 어머니 때문에 며칠이나 밤을 새신 얼굴을 하고 있으셨지만 나는 집에 가려고 길을 걷고 있다.

집에 가는 길이 전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이었다. 나는 또 다시 울먹이며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어머니의 체향으로 가득했다. 나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베개를 끌어안고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다.

며칠 후 나는 한 것 밝은 얼굴로 선물을 사가지고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아직 아침이라 새들이 우는 소리와 기계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내가 병실의 문을 열자 어머니는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다.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온 말들을 전부 잊어버린 채 선물을 떨어뜨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다. 나는 금방 눈에 눈물이 차 실 새 없이 흘러 나왔다.

어머니는 나를 관찰하며 달래고 계셨다. 그래 이 온기와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다.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의사를 부른 후 아버지와 동생들을 불렀다. 아버지랑 동생들도 어머니를 보며 펄펄 울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입에 미소를 머금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진정됐는지 동생들은 질문이라든가 걱정하는 말들을 꺼내기 일 수였다.

아버지랑 나는 서로를 쳐다보고 픽 하고 웃어버린 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창문 밖을 한참을 바라보다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으셨다. 나는 웃으며 그쪽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나 언제 죽는지는 모르기에 시간은 한정 되었기에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히 생각하며 매일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생각했다.

안녕! 우리 딸



중등 최우수

 김 아 진 (덕적중)

“유진아,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 와줘.”

“응.”

“유진아, 엄마 화장실.”

“응.”

나와 우리 엄마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아니 나와 엄마가 떨어진다는 생각조차 하기도 싫었다. 나와 엄마 그리고 동생, 이렇게 세 가족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 내 나이 16살, 학교는 안다닌지 꽤 됐다. 나의 소원 중 하나는 동생만은 학교에 보내 졸업시키는 건데 그걸 이룰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봤을 장래, 난 나의 장래를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실 어렸을 땐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빠를 찾는 게 꿈이었다.

1. 늘 그랬듯이…….

우리 아빠는 내가 다섯 살 아기 때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갔다. 나와는 꼭 돌아오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어왔다. 아빠는 날 찾고 있는 걸까?

지금의 난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나 말고도 더 열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도…….

우리 엄마는 CRPS증후군과 간암을 앓고 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른다. 하지만 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다. 가끔 엄마가 아픈지도 잊을 때가 있다. 그만큼 우리 앞에서 자주 웃어주시기 때문이다.

“어? 벌써 11시네!”

난 붙이는 전단지 알바를 한다. 낮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1시간당 육천원, 4시간이면 이만 사천원, 이걸로 2주를 버텨야 한다니 턱없이 부족하다. 동생이 먹을 걸 사달라 조를 때마다 식은땀이 난다. 언니가 돼서 이거 하나 못 사준다는 거에서도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다. 동생이 고른 건 이천원짜리 과자, 우리 가족이 먹을 물 6병짜리 사천원, 순식간에 육천

원이 날아가 버렸다. 할 수 없다. 내가 굶는 수밖에. 처음엔 힘들었다. 굶는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서인지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배가 정말 고프면 기도를 하곤 한다.

2.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엄마는 많이 아프다. 응급실도 많이 갔었다.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이 실려간 엄마. 내가 뉘을 놓고 있을 때 동생이 나에게 달려왔다.

“언니, 언니! 큰일 났어. 엄마 어떡해?”

난 순간 멍해지더니 아빠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다. 눈물을 닦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는 우는 걸 싫어한다. 하지만 중환자실 문 앞에서 순간 눈물이 또 터지고 말았다. 독한 주사를 놓고도 아픔이 가시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한 의사가 날 부르더니 의자에 앉혀놓고 말을 꺼냈다. 그 의사의 표정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보였다. 그는 나에게 엄마 얘기를 해주었다. 난 그 말을 들은 순간 주저앉아 울었다. 나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다. 아니 우리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옆 창가를 보는데 빗방울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날 끌어안았다. 동생과 난 비를 맞으며 경찰서로 뛰어갔다. 난 경찰서에 무작정 들어가 아빠를 찾아달라고 소리쳤다. 경찰은 날 진정시켰고 나의 생년월일 등등 여러 질문을 던졌다. 한참 뒤 수소문 끝에 아빠의 번호를 알아냈다. 아직 정확하지 않아 경찰이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아빠가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신동 경찰서인데요. 이순복씨 남편 분되시나요?” 라는 말에 아빠는 아니라는 거짓을 내뱉었다. 분명 목소린 어릴 적 들었던 목소리와 같다. 난 경찰관의 전화기를 가로챘다.

“아빠, 나야. 아빠 딸, 유진이, 엄마가 많이 아파. 아빠, 어디야?”

난 끊임없이 말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다. 난 또 울음이 터졌고 경찰관은 날 진정시킨 뒤 엄마가 있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렇게 시각은 오후9시가 되어 동생은 재웠다. 엄마는 약기운 때문인지 잠을 자고 있어 난 그옆에 쏙그리고 앉아 옛날에 엄마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잠에 들었다. 자던 중 어디선가 삐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설마하며 일어났는데 우리엄마에게 나는 소리였다. 엄마는 숨이 멎었다. 난 동생의 귀를 막았고 의사들이 뛰어왔다. 심장 충격기를 가했는데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생은 울며 나에게 말을 건넸다.

“언니가 말한 눈 감는다는 게 이거야?” 라며 계속 물어봤지만 난 마치 정신이 나간 거 같았고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사망신고를 받고 장례도 무사히 치렀다. 엄마의 마지막 쪽지에는…….

‘안녕, 우리 딸들’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 엄마는 없겠네. 우리 딸들 엄마가 더욱 강하게 키웠어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구나. 우리 큰딸, 마지막까지 짐이 돼서 미안하구나. 눈물도 더 이상 흘리지 마렴. 네 아빠 네가 어렸을 때 엄마와 이혼했단다. 엄마가 아프다니깐 떠나버렸어. 이젠 아빠 그만 찾고 너의 꿈을 찾으렴. 우리 딸들, 엄마 옆에 항상 있어줘서 든든했다. 큰딸,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렴. 사랑하는 딸들, 엄마가 미안하다…….’

— 엄마가 안녕 딸 — 안녕 엄마



어머니의 삶이란



중등 우수

 김 휘 준 (영흥중)

저는 등대지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라는 책은 조창인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은 어머니의 사랑이 주제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인공 재우는 어머니와 형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유독 형만 챙기는 것 같아서 재우는 가출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재우는 구명도라는 섬에서 등대지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대지기로 8년이라는 삶을 산 재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형이 어머니를 모셔달라는 것이었죠. 재우는 처음에 거절하였습니다. 형만 그토록 아끼시던 어머니를 이제와서 자기 보고 맡으라니 내키지 않았겠죠. 하지만 형수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재우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재우는 처음에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왜 나에게 잘 대해주시지 않았던 어머니를 자기가 모셔야 되냐고 생각했는지 재우는 어머니를 남 보듯이 돌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어머니여서일까요? 재우는 어머니와 지내면서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마치 프로그래머의 키보드처럼 막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등대에 무언가가 고장이 났죠. '역시 이런 상황에선 무언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재우는 그걸 고치러 높은 등대에 올라가게 되고 고치던 도중 감전이 되고 맙니다. 그 때 어머니는 등대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라 직감이 왔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팬티에 빗물을 담아서 재우를 마시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비가 내리고 있던 터라 추위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고 재우는 비록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가졌지만 살게 됩니다.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말이죠. 그때 재우는 알게 되죠. 어머니의 사랑은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형뿐만 아닌 자신에게도 큰 사랑을 주셨음을요... 저는 이 등대지기라는 제목이 한 편으로는 좋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슬퍼집니다. 재우가 등대지기라는 삶을 산 것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어머니도 등대지기 이셨던 것입니다. 재우의 등대지기, 재우를 위해 불을 밝혀주셨던 분인 거죠. 그리고 이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등대지기의 또 다른 뜻은 아마 후회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등대를 후회라고 생각한다면 등대지기 재우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살아 계실 때

한 번 못하여 등대라는 후회만 남은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등대지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사랑,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느꼈지만 저는 굳이 어머니를 떠올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올린 이유는 바로 제가 그동안 아빠에게 너무 무뎠었고 아빠가 저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아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저희를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책을 읽고 좀 더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들 알게 돼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등대지기라는 말뜻이 등대만을 바라보아서인 것이 슬프지만 그 희생과 사랑만큼 저희도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고 저희를 아끼시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대지기는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닌 저희도 될수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등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빛을 밝힐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엄마보다 아빠에게 그동안 무뎠었고, 저희를 위해 노력하시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아빠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제가 등대라도 등대지기를 밝힐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삶은 우리만을 바라보는 '등대지기' 같은 삶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예의를 갖추어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 번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쉽게 말하자면, 계실 때 잘해드리라는 말이다. 그것이 효다.

효는 한국문화의 근간이다. 한국만큼 효가 잘 자리 잡은 국가는 거의 없다. 또한 우리가 숙명적으로 지킬 윤리이자, 실천해야 할 권장 사항이기도 하다. 효는 실천의 미덕이다. 그런데 우리는 효를 실천하라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한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효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옮기자니 사람들은 막막하게만 느낀다. 이런 막막함은 곧 물질적인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효’라는 착각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논어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이 짧은 생각을 과감하게 지적한다. 자유라는 제자가 효에 대해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는 공경이 효의 핵심이라고 알려준다. 개나 말도 먹을 것으로는 제 부모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경이 있어야 진정한 효이다. 공경과 봉양이 함께 가야 “계실 때 잘해드리기”라는 과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논어에서 언급한 효의 개념은 그 내용이 짧음에도 가장 확실한 핵심을 담고 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나는 효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깨달았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생명과 의미를 부여해준 부모님, 조부모님에게 진심이 담긴 공경을 전해드리는 것이다. 논어를 읽으면서 또 한 번 크게 깨달았던 점은 공경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에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래도 비싸고 화려한 선물이 수반되어야 효의 화룡정점을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논어를 읽으면서 나는 그러한 생각을 과감하게 부술 수 있었다. 부모님, 조부모님에게 정신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옳은 효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금전, 선물 등 물질적인 봉양이 필요하다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다. 경험을 통해 내 생각에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논어를

읽고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다. 고민 끝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많이 찾아뵙지 못했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실천하고자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숨 쉬는 기록’ 동아리와 ‘6.25 참전용사 간담회’였다. 조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노년층에 속한 분들은 누군가 자신의 삶을 알아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의 삶을 기록한 전기문을 기록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동아리 활동으로 실천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서부터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지 못했던 나는, 이 활동 덕분에 자주 방문할 수 있었다. 외할머니 또한 다 큰 손자가 주말마다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하셨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귀 기울여 듣고 종이에 기록해준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 할머니의 삶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섬에 사는 어느 여인의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연세가 많으신 탓에 할머니가 가진 기억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찾아갈 때마다 매번 고맙다고 하셨다. 나는 외할아버지께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신적인 행복을 드렸다. 작년 현충일에도 ‘6.25 참전용사 간담회’를 열어 외할아버지를 초청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이었던 외할아버지는 참전유공자라는 자격을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 개발과 세월의 흐름으로, 참전유공자의 기억도 사람들 속에서 잊힐 뻔했다. 매년 현충일 행사를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참전유공자의 기억을 공유하는 이 간담회 행사에서 외할아버지는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놓으셨다.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손자인 나에게 정말 기쁘다고 하셨다.

효는 선물이 아니다. 효는 부모, 조부모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이다. 물질만 수반한 효는 성공할 수 없다. 나의 경험처럼, 효가 제대로 살아 숨 쉬려면 정신적으로 봉양해드려야 한다. 논어의 구절처럼, 살아계실 때 예의를 갖추어 섬기라는 것이다. 효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실천까지 나아간 것은 논어 덕분이었다. 조공처럼 부모에게 돈만 바치며 이것이 효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허삼관매혈기



고등 우수

IX

 김 현 서 (영흥고)

피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쉽게 느껴지고 편해 보인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사시사철 피땀 흘려 버시는 돈이 허삼관이 피를 팔아 버는 돈과 다른 점이 없다. 바래왔던 내 자식 태어났음에 감사하여 손끝이 다 닳는지도 모르고 일하고, 우리새끼 '나 부르는구나' 감격하여 일판에서 몸 썩어가며 돈 벌고, 내 자식 '아프구나' 더 아플 수도 없는 몸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내가 걷는 앞길이 어떤 길이던 부모의 피와 살이 뭉쳐 있기에 갈 수 있는 것이다. 피가 흐르지 않았다는 건 상관없다. 앞으로가야 할 피와 살이 지금 부모의 것이라면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되는 것이다. 즉, 부모는 자녀 앞길 열어주는 문지기이자 도로이다. 자녀라는 이름하에 통행함에 우리도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태어나 자식의 성공을 위해 일생을 다한다. 이제 내 몸이 다 상해 앞길을 못 만들 상태가 되어서도 그 마지막까지 피해 안주려 용쓰다가 연장선 만들어 놓고 떠난다. 그걸 알 리가 없는 자녀들은 그 길 걸으며 길의 단점만 호소한다.

“우리 집은 왜 부유하지 않아?”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한마디지만 애써 그 모습마저 감추기 위해 괜찮은 척 다시 핏길을 만들려 출근 할 뿐이다. 나의 부모님은 말 수가 조금 적은편이시고 어찌면 조금은 보수적이었다. 게다가 난 외동아들이라서 또래 집단보단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자라다보니 부모님의 내면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힘들어 하실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나에게 의지하셨다.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힘드실 때 마다 내게 ‘높은 사람이 되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꿈꿔왔고, 나만은 힘든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셨다. 많이 속상했다. 그것이 부모님이 청춘을 버린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다 잡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님들의 성공은 자식이 몸과 정신이 편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다. 그 성공을 보답하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될텐데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 거

라는 자신은 없다. 만약 나의 자녀가 생긴다면 부끄럽지 않은 나의 부모님처럼 희생하고 싶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하고 자녀라는 이름으로 보답하는 삶을 꿈꾼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야지만 진정한 삶을 살았다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어떤 직업이던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고 저마다 역할이 있다. 그래서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던 각자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도 다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곧 가정의 행복으로 돌아온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집안의 화목을 바란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가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가족을 위해 살까? 가족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생기게 된다. 내가 시작해야 할 첫 단계가 바로 가족이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집단에 속한 상태로 성장한 후에 인연이 닿는다면 또 가족을 형성한다. 평소에 크게 생각지 않아도 항상 떠나지 않는 존재다.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가장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 내가 힘이 들 때 가장 의지할 수 있고 많은 힘이 되어준다. 쉽게 떠나가지 않는 내 정신적 지주는 가족이다. 사실 가족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 때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도 내가 졸업한 후엔 도움을 청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래 친구들 또한 각자 삶을 살다보면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기에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행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라 함은, 나 자신보다 챙겨야 할 실질적인 ‘나’라고 생각한다.

2019 심청효행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 최우수상 | 황 류 안 (북포초)



| 우수상 | 서 하 영 (북포초)



| 장려상 | 이 윤 서 (백령초)



| 장려상 | 신 동 민 (영흥초)





| 최우수상 | 양 연 수 (영흥중)



| 우수상 | 안 은 희 (백령중)



| 장려상 | 김 미 령 (영흥중)



| 장려상 | 김 민 주 (영흥중)





| 최우수상 | 유 시 아 (연평고)



| 우수상 | 강 민 지 (영흥고)



| 장려상 | 김 예 진 (영흥고)



| 장려상 | 이 미 리 (연평고)



IX

제 20 회 심청 효행 학생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



**임원 및
회원명단**



웅진문화원 임원 및 회원 명단

순서	직 위	성 명	주 소	순서	직 위	성 명	주 소
1	원장	태동철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61	회원	서양원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
2	이사	차광윤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	62	회원	김길수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
3	이사	김성남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	63	회원	김유호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
4	이사	김진식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64	회원	김희옥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
5	이사	박용운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65	회원	안춘화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
6	이사	장세성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66	회원	이순자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
7	이사	장정돈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67	회원	황영옥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
8	이사	최대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68	회원	강송자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
9	이사	강신보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69	회원	곽인화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
10	이사	곽윤직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70	회원	길정연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1	이사	장덕찬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71	회원	김명호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2	이사	서옥선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	72	회원	김선주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3	이사	이해주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	73	회원	김수원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4	이사	강도영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	74	회원	김순자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5	이사	손순자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75	회원	김재홍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6	이사	최은식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76	회원	김정배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7	당연직이사	이 철	관광문화진흥과	77	회원	김현기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8	감사	박용만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78	회원	문경복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19	회원	김영태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	79	회원	문무성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0	회원	이방일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	80	회원	박애자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1	회원	이순덕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	81	회원	백철희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2	회원	최선훈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	82	회원	소복선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3	회원	김영순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	83	회원	송현희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4	회원	송영옥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	84	회원	안성진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5	회원	이명재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	85	회원	양길식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6	회원	조종식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	86	회원	오현석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7	회원	최옥선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	87	회원	유명조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8	회원	김경협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88	회원	유신일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29	회원	김영식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89	회원	유이철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0	회원	김재홍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0	회원	유준석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X

인민과 함께

순서	직 위	성 명	주 소	순서	직 위	성 명	주 소
31	회원	김종녀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1	회원	이돈혜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2	회원	박세경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2	회원	이미경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3	회원	박영매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3	회원	이성덕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4	회원	오정희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4	회원	이인용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5	회원	이순복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5	회원	이의숙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6	회원	전옥화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6	회원	이진열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7	회원	정옥실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7	회원	임선철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8	회원	홍 복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	98	회원	임승균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39	회원	김능호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99	회원	임승진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0	회원	김순애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0	회원	임평택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1	회원	김순자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1	회원	장성준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2	회원	김옥자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2	회원	장성호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3	회원	도민숙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3	회원	정영민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4	회원	박혜숙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4	회원	정찬문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5	회원	이경화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5	회원	조세관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6	회원	이은철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6	회원	천종식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7	회원	임현희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7	회원	최문수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8	회원	정대철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8	회원	최원선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49	회원	정용실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09	회원	최인심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50	회원	정희철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10	회원	최진국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51	회원	조철수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11	회원	허복순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
52	회원	조충은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12	회원	곽윤철	인천광역시연수구
53	회원	주영철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13	회원	김기룡	인천광역시연수구
54	회원	지형옥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14	회원	박익홍	인천광역시남동구
55	회원	최광수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15	회원	신명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56	회원	한영남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116	회원	최완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
57	회원	황명식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				
58	회원	강일규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				
59	회원	김영희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				
60	회원	김정현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				